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비매품

93340
9791195509331
ISBN 979-11-955093-3-1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정은미 · 김병로 · 박명규 · 최규빈 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집필진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사회학과 교수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목차

제1장 서장

1. 서론 ····· 12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 15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 17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 22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 40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 42
3. 통일의 이유 ····· 44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 46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 52
6.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 58
7. 통일 후 사회통합 ····· 62
8. 소결 ····· 66

제3장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서론 ····· 72
2. 남한의 존재 인식 ····· 74
3. 대남인지도 ····· 85
4. 남한의 대북지원 ····· 89
5. 소결 ····· 96

제4장 북한실태 변화

1. 서론 ····· 102
2.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 105
3. 전반적 사회통제 ····· 113
4. 문화의식 ····· 119
5. 정치사상의식 ····· 124
6. 소결 ····· 135

제5장 주변국에 대한 인식

1. 서론 ····· 140
2. 가장 친밀한 국가 ····· 142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 148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 154
5. 소결 ····· 165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1. 서론 ····· 170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 171
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 177
4. 소결 ····· 185

제7장 결장

1. 통일의식: 도구적 기대감과 신중함 ····· 191
2. 대남인식: 긍정적 이미지와 이질화 ····· 193
3. 생활상태: 변화, 통제, 불안 ····· 195

부록) 집계표 2015 ····· 199
설문지 2015 ····· 268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표본·조사내용 20

〈표 1-2〉 성별·연령별 분포 22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4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5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6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7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8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30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1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32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4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5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6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37

〈표 2-1〉 통일의 필요성 42

〈표 2-2〉 통일에 대한 염원 44

〈표 2-3〉 통일의 이유 46

〈표 2-4〉 통일의 방식 48

〈표 2-5〉 통일 예상시기 50

〈표 2-6〉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53

〈표 2-7〉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54

〈표 2-8〉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의 기대감 56

〈표 2-9〉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60

〈표 2-10〉 통일 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 64

〈표 2-11〉 통일 후 거주 희망지역 66

〈표 3-1〉 북한주민의 연령별 대남인식 78
(2011~2015 전체 660명 표본조사, 단위: %)

〈표 3-2〉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5) 88

〈표 4-1〉 공식 소득수준 (2014~2015) 106

〈표 4-2〉 실제 소득수준 (2014~2015) 108

〈표 4-3〉 장사 및 개인사업 인구 111

〈표 4-4〉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5) 121

〈표 4-5〉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 127
(2011~2015년 전체표본 660명 대상분석, 단위: %)

〈표 4-6〉 연령별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130
(2011~2015년 전체표본 660명 대상 분석, 단위: %)

표목차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143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45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46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47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49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1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2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53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56
〈표 5-10〉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58
〈표 5-11〉 중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60
〈표 5-12〉 일본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61
〈표 5-13〉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163
〈표 5-14〉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164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172
〈표 6-2〉 남한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174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 (2015) 176
〈표 6-4〉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177
〈표 6-5〉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180
〈표 6-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81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183

그림목차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5) 75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5) 79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5) 82
〈그림 3-4〉 북핵위협의식 (남북한비교) 84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5) 86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89
〈그림 3-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92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93
〈그림 3-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95
〈그림 4-1〉 장사경험 유무 110
〈그림 4-2〉 타지역 이동경험 113
〈그림 4-3〉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5) 114
〈그림 4-4〉 생활총화 출석률 (2011~2015) 116
〈그림 4-5〉 사회통제 실태 117
〈그림 4-6〉 정부비판행위(낙서, 삐라 등) (2008~2014) 118
〈그림 4-7〉 한류접촉경험 (2008~2015) 120
〈그림 4-8〉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5) 123
〈그림 4-9〉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5) 126
〈그림 4-10〉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2008~2015) 129
〈그림 4-11〉 경제침체의 원인 131
〈그림 4-12〉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2011~2015) 133
〈그림 4-13〉 경제체제 선호도 (2008~2015) 134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 장

제1장 서장

1. 서론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분단상황이 70년 동안 이어지고 남북한의 체제가 상당히 이질화되고 문화적인 소통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통일을 강조하는 담론은 여전히 힘을 지닌다. 그 이유는 남북한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의 민족으로서 언어와 풍습, 공동체의 운명을 공유하였고, 분단상황 자체가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르낭에 따르면 민족공동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통의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기억에 더하여 이후로도 함께 살아가겠다는 집합적 의지가 필요하다. 전통의 힘과 찬란한 과거가 아무리 분명해도 미래에 함께 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민족의 공동체적 결속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남과 북이 동질적인 혈통과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로 합하려는 열망은 어느 정도인지, 분단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들이 있다. 하지만 한쪽만의 태도나 감정만으로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의지, 공동체적 공감수준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현 상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통일지향의 정치·경제적 내용이 남한주민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그것이 학문적 관심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조사해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미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최근 남한의 통일의식이 가진 여러 특징들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분단 70년의 긴 시간이 흐른 탓에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동북아 국제환경에 대한 생각이 단일하지 않고 세대 간, 계층 간 견해 차이도 적지 않다. 통일이 조만간 실현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미래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통일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과반 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0~3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형 과제로 파악하는 신중한 태도가 뚜렷하다. 북한을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인식 또한 강하고 안보와 관련된 불안의식이 꽤 높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종종 사안에 따라 실용적이고 양면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고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며 계층적 지위가 높은 중상층에서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계층적 분화 현상도 주목되었다.

남한 국민들의 생각과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서로 일치하며 얼마나 어긋나고 있을까? 과연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요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한국의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는지, 통일의 이유와 기본 동력을 어디에서 찾는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충실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체제의 특성상 위로부터 주입된 규범적인 대답이 개개인의 솔직한 생각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북한거주 당시의 생각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집합의식을 큰 틀에서 알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의 꿈, 민족적 열망, 통합적 지향을 확인함과 함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질감, 사고의 차이, 상이한 가치체계와 정체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통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대립과 분열을 조장할 요소들은 냉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 역량을 구비하는 데, 이 조사가 하나의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통일의식조사』를 수행하여 남한주민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대북정책 평가,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사회의 변화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는 아직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주민의 의식에 대한 경험적이고 계량적이며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따라서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및 대남인식, 북한사회의 변화 인식, 주변국 관계 인식, 적응 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

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아직 부재하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현실진단과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통합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를 기획하고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떠하고 남한주민의 통일의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한통합지수』의 의식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만의 통일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 또는 통합의 문제를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의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과 환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해가며 남북한주민 모두의 통일의식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인식이다. 통일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

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성,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이 설문범주는 2011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는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취업상태, 월평균 수입, 월평균 근로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1]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셨습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1] 2015년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표본·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사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 - 2004	87	94					
2005 - 2008	142	—					
2005 - 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4	—	—	—	—
2011			—	128	—	—	—
2012			—	—	133	—	—
2013			—	—	—	149	—
2014			—	—	—	—	146
총 계	296	370	104	128	133	149	146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Y	Y	Y	Y	Y	Y	Y
대남의식	Y	Y	Y	Y	Y	Y	Y
북한실태 변화	Y	Y	Y	Y	Y	Y	Y
남한적응 실태	—	—	Y	Y	Y	Y	Y
주변국 인식	—	—	—	Y	Y	Y	Y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실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1〉에 나타나듯이, 2015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146명이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 1-2〉는 5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9.0%, 여성 61.0%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5%p 증가했고, 반면에 여성의 비율은 약 5%p 감소했다.[2]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10대 0.7%, 20대 30.1%, 30대 30.8%, 40대 25.3%, 50대 11.0%, 60대 이상 2.1%를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과 거의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 성별·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10대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20대	14 (38.9)	22 (61.1)	23 (51.1)	22 (48.9)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30대	11 (40.7)	16 (59.3)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40대	6 (35.3)	11 (64.7)	11 (32.4)	23 (67.7)	11 (29.0)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50대	1 (7.7)	12 (92.3)	5 (38.5)	8 (61.5)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60대 이상	4 (33.3)	8 (66.7)	6 (50.0)	6 (50.0)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2]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중은 약 80%이다.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8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6명은 모두 2014년도에 탈북했으며, 이 중 129명은 2014년도에 입국했으며, 17명은 2014년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5년에 입국했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이듯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 2015년 평균 2.49개월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탈북하여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2015년 조사의 경우에는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69.8%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탈북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연도 / 소요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개월	2.9	1.6	0.0	26.8	30.8
2개월	25.7	18.1	29.3	48.3	39.0
3개월	38.1	48.8	47.4	8.1	14.4
4개월	14.3	14.2	8.3	2.0	6.8
5개월	1.0	6.3	5.3	4.7	2.1
6개월	2.9	4.7	1.5	2.7	1.4
7개월	5.7	0.8	3.8	2.0	0.7
8개월	1.9	2.4	1.5	1.3	0.0
9개월	0.0	0.8	0.8	0.7	1.4
10개월	2.9	1.6	2.3	0.0	3.4
11개월	1.9	0.8	0.0	0.0	0.0
무응답	2.9	0.0	0.0	0.0	0.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4〉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6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63.2%, 12.7%를 차지한다.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1.3)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3) 교육수준·직업 분포

네 차례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 2015년 61.0%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7.8%, 2014년 31.6%, 2015년 36.3%로 나타나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고등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인민학교	1.0	3.2	0.0	1.6	2.1
무학	0.0	1.6	0.8	0.6	0.7
무응답		1.6			
합계(N)	105	125	133	147	146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6〉에서 보이듯 노동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 2012년 37%, 2013년 31.6%, 2014년 30.6%, 2015년 26.0%로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2015년에는 장사(20.5%)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장사의 비중이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농민	8.6	8.7	3.8	7.5	4.8
사무원	12.4	4.7	9.8	12.2	8.9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학생	6.7	6.3	6.0	7.5	4.8
군인	5.7	3.9	4.5	4.8	4.8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장사	10.5	11.1	13.5	4.8	20.5
주부	10.5	11.1	16.5	19.1	11.6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무응답	5.7	1.6	-	-	0.7
합계(N)	105	127	133	147	146

(4) 당원 가입 여부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7〉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 조사에서 17.8%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0.0%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노동자 38.5%, 사무원 19.2%, 전문가 15.4%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게 나타났으나, 2015년의 경우에는 노동자〉사무원〉전문가 순서로 당원 비중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농민, 장사, 외화벌이 직업의 경우 당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원	9.5	14.4	14.3	13.5	17.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무응답	3.8	1.6	-	-	0.7
합계(N)	105	127	133	147	146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5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1-8〉에 나타나듯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45.1%, 2012년 43.4%, 2013년 37.4%, 2014년 26.2%, 2015년 35.6%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 역시 2011년 32.9%, 2012년 30.2%, 2013년 52.7%, 2014년 61.1%, 2015년 54.8%로 나타나 최근 3년 사이에 10명 중 5명 이상이 공식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9〉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 2015년 29.5%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응답과 '100만원 초과'의 응답으로 전자의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5년 24.7%로, 후자의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5년 23.2%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10만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1년 22%에서 2015년 6.2%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득 격차의 변화는 공식 소득 부분에서보다 비공식 소득 부분에서 훨씬 더 불평등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소득 구성의 변화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의 차별적 분배 메커니즘에 의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0원	27 (32.9)	32 (30.2)	69 (52.7)	91 (61.1)	80 (54.8)
1,000원 이하	7 (8.5)	10 (9.4)	2 (1.5)	13 (8.7)	7 (4.8)
5,000원 이하	37 (45.1)	46 (43.4)	49 (37.4)	39 (26.2)	52 (35.6)
1만원 이하	2 (2.4)	4 (3.8)	5 (3.8)	2 (1.3)	1 (0.7)
10만원 이하	6 (7.3)	9 (8.5)	0 (0.0)	3 (2.0)	4 (2.7)
50만원 이하	2 (2.4)	5 (4.7)	4 (3.1)	0 (0.0)	0 (0.0)
100만원 이하	1 (1.2)	0 (0.0)	2 (1.5)	0 (0.0)	1 (0.7)
100만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표 1-9〉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0원	18 (22.0)	21 (19.3)	32 (25.0)	33 (23.2)	24 (16.5)
1,000원 이하	6 (7.3)	0 (0.0)	3 (2.3)	4 (2.8)	0 (0.0)
5,000원 이하	7 (8.5)	2 (1.8)	0 (0.0)	2 (1.4)	0 (0.0)
1만원 이하	2 (2.4)	2 (1.8)	3 (2.3)	2 (1.4)	0 (0.0)
10만원 이하	18 (22.0)	25 (22.9)	9 (7.0)	26 (18.3)	9 (6.2)
50만원 이하	19 (23.2)	44 (40.4)	52 (40.6)	43 (30.3)	43 (29.5)
100만원 이하	6 (7.3)	8 (7.3)	10 (7.8)	17 (12.0)	36 (24.7)
100만원 초과	6 (7.3)	7 (6.4)	19 (14.8)	15 (10.6)	34 (23.2)
무응답	23 (21.9)	18 (14.2)	2 (1.5)	2 (1.4)	0 (0.0)
합계(N)	105	127	133	144	146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0〉를 보면 응답자들의 10명 중 약 8명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

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5년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8.3%, 농민 51.2%, 사무원 71.0%, 전문가 67.5%, 학생 46.3%, 군인 48.3%, 외화벌이 92.3%, 가정부인 90.2%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외화벌이군과 가정부인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0〉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있다	68.6	69.3	74.4	69.8	76.7
없다	27.6	29.9	25.6	30.2	23.3
무응답	3.8	0.8	-	-	-
합계(N)	105	127	135	149	146

(6) 탈북 후 정보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1〉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핸드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14년 기준으로 280만대에 이르며, 평양을 포함한 15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작은 도시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이처럼 북한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직행탈북자'의 증가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탈북 후 입국의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4] KDB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15』 (서울: KDB산업은행, 2015), p.756.; 미국의소리,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2014.3.)

〈표 1-11〉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무응답	2.9	-	-	-	0.7
합계(N)	105	127	133	149	146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2〉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8.1%,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41.8%로 크게 감소하였다. 남한의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 해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2〉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없다	39.1	37.8	34.6	30.9	58.2
있다	58.1	62.2	65.4	69.1	41.8
무응답	2.9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3〉에서 보이듯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39.0%로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로 감소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 2012년 9.5%, 2013년 9%, 2014년 14.9%, 2015년 17.8%로 나타났다. 이혼 비율의 증가는 남한사회의 적응 및 정착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연령대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또는 가족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접근 및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13〉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미혼	52.4	45.7	37.6	30.9	39.0
결혼(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이혼	0.0	9.5	9.0	14.9	17.8
무응답	5.7	0.8	-	-	0.7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4〉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다. 자녀의 수는 결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혼자의 수와 자녀의 수가 0명인 응답률이 동반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2순위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이었던 것이 2014년과 2015년 조사에서 각각 2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4〉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0명	22.9	24.4	38.4	34.2	39.7
1명	27.6	27.6	32.3	27.5	35.6
2명	17.1	19.7	24.1	29.5	21.2
3명	5.7	7.1	4.5	6.7	2.1
4명	3.8	1.6	0.8	1.3	1.4
5명	-	-	-	0.7	-
무응답	22.9	19.7	-	-	-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북한 정세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다. 대체로 남북관계가 좋거나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또한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때로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정부가 대내적으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가면 통일인식이 제고되는 경우가 있다. '통일 대박'이 바로 그 예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나 회의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는 반전시키기 역부족이다. 더욱이 통일 인식에서 세대 간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인식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거주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이 1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네 차례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 역시 대내외의 상황 및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설문 문항들에서는 남한주민과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설문 문항들에서는 남한주민들과 매우 다른 응답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혹자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일반주민의 통일 인식을 파악하는 시도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상적 통제로 철저하게 공식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된 북한주민들을 자율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취급하여 통일 인식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것은 충분히 타당한 문제 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접근과 분석 그리고 해석의 엄밀성과 신중함을 통해 그러한 문제 제기를 극복하고자 하며, 동시에 통일 이후 '평화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통일 이전에 남북한주민의 소통적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 생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에 생각했던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의 이유, 통일 방식과 통일 예상 시기, 통일 편익에 대한 집합적·개인적 기대감,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북정책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통일 후 남북한주민 간 사회통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2.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1)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절대적이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5.2%, 2012년 93.7%, 2013년 93.3%, 2014년 100%, 2015년 97.9%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의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나타나 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의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5]

〈표 2-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필요함	95.2	93.7	93.3	100	97.9
그저 그렇다	3.9	5.5	6.0	0	1.4
필요하지 않음	1.0	0.8	0.8	0	0.7
합계 (N)	104	127	133	149	146

5년간 실시된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거주 지역'으로 평양과 강원도에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 출신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률과 강원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률은 모두 85.7%로 나타나 전체 평균 응답률 96.2%에 비해 훨씬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χ^2=44.362, p=.001). 그 밖의 거주 지역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 응답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일을 원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응답자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설문 참가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묻는 반면에, 통일의 염원에 대한 문항은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북한주민'이라는 일반화된 타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응답 결과, 통일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인식과 제삼자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북한주민 중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은 2011년 99%, 2012년 99.2%, 2013년 97.8%, 2014년 97.4%, 2015년 97.3%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세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격차는 필요성과 염원의 차이에서 온 점도 있지만, 질문이 초점을 맞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필요성은 직접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인식을 물은 것이지만 통일의 염원은 북한주민이라는 일반화된

5] 이 글에서 인용된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는 모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 9월 11일에 발표한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 보고서를 참조함.

타자의 인식을 묻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자에 비해 전자의 경우 좀 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응답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후자의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규범적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보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다.

〈표 2-2〉 통일에 대한 염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원함	99.0	99.2	97.8	97.4	97.3
원하지 않음	1.0	0.8	2.3	2.6	2.7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에 대한 문항은 2015년 설문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질문이다. 설문참가자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9%로 2014년 47.6%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28.2%로 2014년 24.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하여' 8.5%로 2014년 11.7%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 9.9%, 3.5%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남북한주민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40.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하여'(26.3%)이고,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4%)로 나타나 남북한주민간의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주민에게 통일의 동인(動因)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북한주민은 자신이 잘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도구주의적(instrumentalist)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의 이유로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응답률이 북한주민의 경우 2014년 7.6%에서 2015년 3.5%로 감소한 반면에, 남한주민의 경우는 2014년 9.1%에서 2015년 12.3%로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남북한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밖에 5년간 실시된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다(χ^2=36.292, p=.014). 모든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통

일의 이유로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지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50대 이상의 응답률 57.6%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30대의 응답률 39.4%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반면에 30대의 경우는 통일의 이유로서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응답률이 19.7%로 20대 8.1%, 40대 4%, 50대 3%, 60대 이상 0%인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30대가 1995~1998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즉,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30대에 주민 개개인의 삶의 개선보다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동체적 유대 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3〉 통일의 이유

단위: %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남북간 전쟁 위협 해소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선진국 도약	합계(N)
2014년	24.1	7.6	11.7	47.6	8.3	145
2015년	28.2	3.5	8.5	47.9	9.9	142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앞서 살펴본 통일의 이유 문항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방식에 대한 질문 역시 2015년 설문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설문참가자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48.6%로 2014년 39.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4%로 2014년 31.8%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17.1%로 2014년 21.6%에서 소폭 감소했다.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와 '남북한 두 체제가 각각 유지 된다'는 응답률은 각각 3.4%와 6.8%로 나타나 통일 이후에도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보였다. 특히,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통일 방안인 '연방제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응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4%p, 2.1%p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한국의 체제가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48.1%로 가장 높아 통일 방식에 대한 남북한주민의 인식이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견해가 4.8%로 매우 낮은 데 반해 북한주민에게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 차이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욱 통일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통일의 방식

단위: %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남북한의 체제 절충	남북한 두 체제 공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합계 (N)
2014년	2.0	21.6	4.7	39.9	31.8	148
2015년	3.4	17.1	6.8	48.6	24.0	146

다음으로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통일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응답자가 북한체제의 안정성 또는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결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4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응답 결과를 통해 우리는 북한주민이 얼마나 통일을 필요로 하고 염원하는가를 확인했다.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예상하는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내구력 측면에서 통일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북한주민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대립적인 남북관계의 모습이 북한주민에게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북한의 세습적인 권력승계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 2-5〉를 보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011년 26.9%에서 2012년 43.3%로 크게 증가했고, 그 이후로 2013년 44.4%, 2014년 45.3%, 2015년 43.4%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10년 이내'로 응답률이 30.3%이고, '5년 이내'가 11%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 '5년 이내'(18.9%)와 '10년 이내'(18.2%)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1년 사이에 통일 예상 시기가 상당히 늘어난 셈이다.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 역시 2014년 4.0%에서 2015년 6.2%로 증가했다.

반면 2015년 실시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의 응답 패턴은 대체로 분산적이어서 특정 항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13년 25.8%→2014년 23.5%→2015년 19.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북한주민의 응답 추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남한주민이 예상하는 통일 시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는 '20년 이내'로 25.5%로 북한주민의 경우 응답률이 6.8%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북한 주민이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10년 이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응답률은 17.8%에 불과하다.

〈표 2-5〉 통일 예상시기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이내	20.2	11.8	12.0	18.9	11.0
10년 이내	30.8	29.1	22.6	18.2	30.3
20년 이내	12.5	8.7	8.3	9.5	6.8
30년 이내	2.9	1.6	4.5	3.4	2.1
30년 이상	6.7	5.5	8.3	4.7	6.2
불가능하다	26.9	43.3	44.4	45.3	43.4
합계 (N)	104	127	133	148	146

5년간 실시된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성별(χ^2=23.186, p=.000), 연령(χ^2=42.747, p=.002) 직업(χ^2=64.567, p=.029)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성별의 경우 북한 남성에 비해 북한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북한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지만, 응답률이 각각 남성 35.4%, 여성 45.3%로 여성의 응답률이 10%p 가까이 더 많았다. 반대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예상 시기인 '10년 이내'에서는 남성 30.4%, 여성 23%로 남성의 응답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연령별 응답률 분포를 보면, 40대 연령층이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역시 30대와 40대보다 오히려 통일의 예상 시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은 50대 47.6%〉20대 43.1%〉60대 이상 41.7%〉30대 41.3%〉40대 36%로 나타난 반면에, '10년 이내'의 경우 40대 31.7%〉30대 27.1%〉20대 23.5%〉60대 이상 20.8%〉50대 20.7%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29.2%로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해 다른 연령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단기간의 통일 예상시기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 최고령층이라는 것은 이들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하에서 응답했다기보다는 '희구'(希求)적 차원에서 통일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상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직업으로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직업은 '전문가'이고, 반대로 '학생'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전문가 53.7%〉가정부인 51.1%〉농민 48.8%〉노동자 41.1%〉장사 40%〉군인 32.3%〉외화벌이 일군 30.8%〉사무원 30.6%〉학생 29.3%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내'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직업이 군인(32.3%)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1)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 후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경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북한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가져올 이익(통일 편익)을 북한사회 전체 측면과 개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통일이 북한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연도별 응답 결과를 보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2011년 100%, 2012년 96.9%, 2013년 99.3%, 2014년 98%, 2015년 99.3%로 나타나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해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4%인 점을 감안다면, 통일 편익에 대한 남북한주민간의 기대감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에 따른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분배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북한이 통일로 인해 많은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주민은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 비용에 대해 남한 측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2-6〉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익이 됨	100.0	96.9	99.3	98.0	99.3
이익이 안됨	0.0	3.2	0.8	2.0	0.7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다음으로, 통일이 가져다줄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 편익에 대한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통일을 당위적이고 규범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통일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이 높을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통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에 가져다줄 이익의 기대감 수준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5.2%, 2012년 94.5%, 2013년 95.5%, 2014년 98%, 2015년 97.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 사이의 응답률 격차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양자 간의 응답률 격차가 매우 작다는 점이 대조적인 현상이다.[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높은 기대감은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나 국면이 전개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2-7〉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익이 됨	95.2	94.5	95.5	98.0	97.9
이익이 안됨	4.8	5.5	4.5	2.0	2.1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2)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통일 이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위에서 분석했던 통일 편익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빈부격차나 실업문제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과 같이 사회통합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빈부격차가 통일 이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1년 82.7%, 2012년 79.9%, 2013년 86.5%, 2014년 85.3%, 2015년 79.4%로 나타나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2011년 87.7%, 2012년 80.5%, 2013년 90.1%, 2014년 90%, 2015년 87.7%로 나타나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7.2%로 매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2013년에 최고율을 보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2011년 53.7%, 2012년 49.6%, 2013년 54.5%, 2014년 49%, 2015년 54.1%로 나타나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52.2%로 앞서 살펴본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 현격히 기대수준이 낮다. 여기서 북한주민이 예상하는 지역갈등은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사이의 갈등일 가능성이 크며,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간 갈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2011년 63.9%, 2012년 53.3%, 2013년 60.6%, 2014년 56%, 2015년 55.5%로 나타나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57.9%이다.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바로 앞서 살펴본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경제 분야의 개선 기대감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대수

6] 구체적으로 남한 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간의 기대감 격차는 2013년 26.8%p, 2014년 28.7%p, 2015년 29.4%p인 반면에, 북한의 경우 기대감 격차가 2013년 3.8%p, 2014년 0%p, 2015년 1.4%p이다.

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의 이념갈등은 통일 이전에 보였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대결로부터 기인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오랜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주민이 각각 내재화한 문화와 규범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갈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의 기대감

단위: %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빈부격차	2011	58.2	24.5	5.1	5.1	7.1
	2012	55.7	24.2	7.3	7.3	5.7
	2013	62.4	24.1	3.8	2.3	7.5
	2014	61.1	24.2	4.7	2.7	7.4
	2015	47.9	31.5	9.6	4.1	6.8
실업문제	2011	66.3	21.4	1.0	7.1	4.1
	2012	61.8	18.7	9.8	4.1	5.7
	2013	72.5	17.6	2.3	3.8	3.8
	2014	70.5	19.5	2.0	4.0	4.0
	2015	73.3	14.4	5.5	2.7	4.1
지역갈등	2011	28.4	25.3	12.6	20.0	13.7
	2012	26.5	23.1	14.9	19.0	16.5
	2013	30.3	24.2	10.6	26.5	8.3
	2014	28.9	20.1	13.4	25.5	12.1
	2015	28.8	25.3	11.0	24.0	11.0
이념갈등	2011	41.2	22.7	10.3	10.3	15.5
	2012	36.1	17.2	14.8	18.9	13.1
	2013	43.9	16.7	10.6	20.5	8.3
	2014	41.2	14.8	8.7	20.1	13.4
	2015	41.1	14.4	10.3	21.2	13.0

2015년에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해보면 빈부격차나 실업문제 등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과 같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문제보다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5년간 실시된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의 기대감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연령, 교육수준, 직업이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실업문제와 교육수준을 교차분석한 결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8.003, p=.021). 재북 시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인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88.5%인 반면에, 인민학교인 응답자들은 63.6%에 불과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통일 이후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학력의 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역갈등에서 직업 변수가 유일하게 상관성을 나타냈다(χ^2=32.791, p=.018), 개선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직업은 농민(63.4%)으로, 기대감이 가장 낮은 직업은 외화벌이 일군(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45%, 악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45%로 견해가 반반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념갈등에서는 연령 변수가 유일하게 상관성을 보였다(χ^2=22.507, p=.004). 50대 이상의 연

령층에서는 통일 후 이념갈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50대 70%, 60대 이상 68.8%),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20대 58.6%, 30대 46.4%, 40대 58.6%).

6.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남한사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통일에 기여하는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남한사회 안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남남갈등'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주민들은 대북정책과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항목별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인도적 지원의 기여도가 가장 낮고, 사회문화 교류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경제협력과 남북 당국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의 기여도에 대한 응답률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5.3%, 2013년 64.7%, 2014년 67.1%, 2015년 69.2%로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66.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83.8%, 2012년 80.3%, 2013년 82.6%, 2014년 81.2%, 2015년 82.2%로 5년간 평균 응답률이 80.5%로 나타났다. 금강산개성 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9.2%, 2012년 82.5%, 2013년 80.5%, 2014년 82.6%, 2015년 78.1%로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8%, 2012년 79.8%, 2013년 88%, 2014년 86.6%, 2015년 79.5%로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1.7%로 나타났다.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을 기준으로 높은 응답률 순서로 나열하면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사회문화 교류>경제협력>인도적 대북지원 순서로 나타났다.

〈표 2-9〉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단위: %

		매우 도움 (A)	다소 도움 (B)	A+B	별로 도움안됨 (C)	전혀 도움안됨 (D)	C+D
인도적 지원	2011	58.1	10.5	68.6	22.9	8.6	31.4
	2012	44.4	21.0	65.3	19.4	15.3	34.7
	2013	48.9	15.8	64.7	17.3	18.1	35.3
	2014	55.0	12.1	67.1	20.1	12.8	32.9
	2015	45.2	24.0	69.2	19.2	11.6	30.8
사회문화 교류	2011	52.5	31.3	83.8	13.1	3.0	16.2
	2012	44.3	36.1	80.3	13.9	5.7	19.7
	2013	46.2	36.4	82.6	13.6	3.8	17.4
	2014	37.6	43.6	81.2	16.1	2.7	18.8
	2015	50.7	31.5	82.2	11.0	6.8	17.8
경제 협력	2011	54.5	24.8	79.2	13.9	6.9	20.8
	2012	49.2	33.3	82.5	15.1	2.4	17.5
	2013	55.6	24.8	80.5	12.8	6.8	19.6
경제협력	2014	53.7	28.9	82.6	12.8	4.7	17.5
	2015	49.3	28.8	78.1	13.0	8.9	21.9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	2011	52.0	26.0	78.0	18.0	4.0	22.0
	2012	53.2	26.6	79.8	16.1	4.0	20.2
	2013	57.9	30.1	88.0	6.8	5.3	12.0
	2014	61.1	25.5	86.6	11.4	2.0	13.4
	2015	51.4	28.1	79.5	10.3	10.3	20.6

한편, 5년간 실시된 조사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에 대한 응답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성별, 연령이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도적 대북지원의 기여도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남성 56.6%, 여성 73.7%로 여성의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χ^2=20.701, p=.000). 또한,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83.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고난의 행군'시기(1995년~1998년)에 사춘기를 보냈던 현재 30대의 응답자들은 57.8%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연령층 간의 격차를 보였다(χ^2=17.374, p=.002). 하지만 현재 20대의 경우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70.4%로 나타나 젊은 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의 연령집단 간의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의 기여도에서는 성별이 유일하게 상관성을 보였다(χ^2=24.353, p=.000).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남성 71.1%, 여성 86.7%로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회담의 기여도에서도 유일하게 성별이 통계적 상관성을 보였다(χ^2=21.005, p=.000).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남성 74.2%, 여성 88.1%로 나타나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에 대한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북한 남성보다는 북한 여성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통일 후 사회통합

(1) 통일 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

일반적으로 통일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북한주민의 인식은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통일 후 남북한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생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했다.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또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각각 35%와 46.2%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또는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각각 17.5%, 1.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통일 후 남북한주민 간의 유대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긍정의 응답보다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소극적인 긍정의 응답이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남한사회에 거주하기 시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착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라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5년 통합 데이터 기준으로 통일 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통일 후 남북한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이 남성 74.3%, 여성 85.8%로 여성의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χ^2=13.549, p=.000).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률이 20대 75.6%, 30대 83.2%, 40대 81.3%, 50대 83.1%, 60대 이상 95.8%로 나타났다(χ^2=11.576, p=.021).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고령층에 비해 북한의 젊은 층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심리적 갈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통일 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응답률
매우 잘 어울려 지냄	36.9	34.7	36.8	33.6	32.9	35.0
그럭저럭 어울려 지냄	43.7	39.4	50.4	45.6	52.1	46.2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함	19.4	25.2	10.5	19.5	13.0	17.5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함	0.0	0.8	2.3	1.3	2.1	1.3
합계 (N)	103	127	133	149	146	658

(2) 통일 후 거주 희망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이후 거주지의 선택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을 택할 경우, 그것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한사회로의 통합 실패로 볼 것인가. 또한, 북한도 남한도 아닌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참여자들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를 질문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26.7%가 북한을, 48.6%가 남한을 선택했다.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북한의 선택이 줄어들고, 남한의 선택이 늘어났다. 이밖에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라며 최종 거주지 선택을 유보한 응답률은 21.9%이며,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라는 선택은 2.7%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5년 동안에 통일 후 남한지역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2015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 이후 대규모 북한 인구가 남한사회에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10명 중 5명 이상이라는 점은 통일 이후 남한사회가 북한주민에게 당연한 종착지가 아닌 다양한 거주지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또한, 통일 후 거주지 선택에서 성별 간 차이를 나타냈다. 5년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일 후 거주지 선택에서 남성의 경우 북한 40.1%, 남한 39.3%, 상황에 따라 선택 18.3%, 외국 2.3%로 나타나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북한 22.3%, 남한 49%, 상황에 따라 선택 27.5%, 외국 1.3%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다. 이러한 성별 간 응답의 차이는 가족관계의 위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7] 응답자 중 남성은 결혼 상태 50%, 이혼 상태 7%인 반면에, 여성은 결혼 상태 47.2%, 이혼 13.5%로 나타나 북한에 남아있는 법적 가족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7]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남한사회에서 생활 만족도와 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 남성이 통일 후 거주지로 북한을 더 많이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족 문제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통일 후 거주 희망지역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28.9	32.3	27.8	30.6	26.7
남한	45.2	45.7	46.6	40.1	48.6
상황에 따라 선택	25.0	20.5	23.3	28.6	21.9
외국	1.0	1.6	2.3	0.7	2.7
합계 (N)	104	127	133	147	146

8. 소결

2015년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전반적으로 2014년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절박하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그러나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측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더욱 뚜렷해졌다.

둘째, 현실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 통일인식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자의 절반 수준이다. 두 이유의 응답률 격차는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 후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예측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통일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다. 응답 결과로 보면, 통일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 개인에게 '대박'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통일 후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이 통일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중 8명 가까이는 통일 후에 남북한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통일 후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 역시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일 후 사회체제로서 남한사회가 압도적으로 북한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선택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통일 후에도 남한지역에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이고, 나머지의 응답자들은 북한지역을 선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선택을 유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의 결과로서 남한사회가 반드시 북한주민의 유일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에게 남한사회가 미치는 통일의 유인력(誘因力)이 아직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인식에서도 세대 간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5년~1998년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춘기를 보냈던 현재 30대의 응답자들은 여러 항목들에서 고령층(60대 이상)과 다른 응답 태도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북한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뚜렷하였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30대에 국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동체적 유대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통일 이후에 남북한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60대 이상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통일의 예상 시기에서도 20대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서 세대 변인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통일 후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세대 통합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제3장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1. 서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남북관계의 사건과 인적·물적 교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지난 1년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마도 2014년 9월에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일 것이다. 비록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못해 응원단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고 북한이 여자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종합순위 7위에 오르며 북한주민들에게 스포츠 바람을 일으켰다.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북한의 권력실세 3인방이 2014년 10월 4일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하여 선수단을 치하하는 한편, 귀국한 선수단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등 적극적인 선전공세를 폄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북한에 대북대화를 제의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와 기대감을 높였다. 2015년은 분단·광복 70년을 맞는 해로 남북이 함께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며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5년 4월 27일 남한정부는 5.24조치 이후 첫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였으며 5월 1일에는 민간·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8월의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충돌과 '8.25 합의' 이후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남북관계 사건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이번 조사는 남북관계가 호전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이 많이 반영되었다. 2014년 2월 12일 남북 간에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포함하여 2015년 조사 대상자들이 북한에 거주하던 시기인 2014년과 2015년 초반의 남북관계는 적어도 심각한 갈등과 긴장의 국면은 아니었다.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던 2013년과 비교하면 남북관계의 환경은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로 돌아선 상황이었다. 2015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대체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무척 중요하다.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체제를 동경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열망함으로써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주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남한을 통일의 미래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남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

는지,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및 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의식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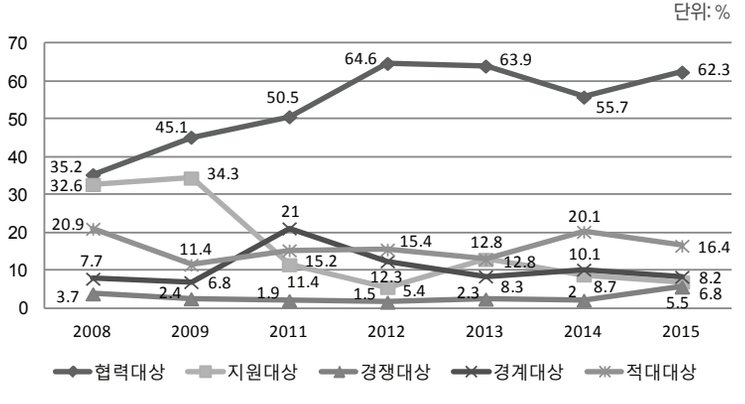
2. 남한의 존재 인식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북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1년 사이에 55.7%→62.3%로 상승하였으며,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20.1%→16.4%로 완화되어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즉 최근 3년 동안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은 63.9%→55.7%→62.3%로, 적대의식은 12.8%→20.1%→16.4%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상승하고 적대대상 인식이 완화된 것은 지난 1년 동안 그 이전 해의 핵실험과 남북군사대결 등 초긴장 국면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3차 핵실험(2013.2.12.)으로 초긴장이 지속되던 2014년과는 달리 2015년에는 2014년 하반기에 조성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와 분단·광복 70년을 맞은 2015년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2014년 9월에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여 관심이 고조된 데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권력실세 3인방으로 불리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2015년 들어서는 분단·광복 70년을 맞아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며 4월 27일에는 5.24조치 이후 첫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이 완화되고 협력의식이 고조된 데에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5)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는 남북관계의 상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이 20.1%로 최고조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치달으면서 북한주민들의 대남 경계의식과 적대의식이 상승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 지도부의 전격적인 방남과 분단·광복 70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로 조성된 분위기가 북한주민들의 대남 협력의식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는 북한당국이 대중매체를 통해 남한에 대해 어떻게 선전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당국이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대남 비난전을 강화하고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활용하여 대남 적개심 고취와 비방하는 활동을 지속하면 주민들의 대남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의식이 "남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62.3%라는 압도적 다수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준비라는 관점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대중국 선호도와 함께 비교하면 대남 선호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8], 그럼에도 남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2015년의 경우,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서 세대별 의식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성세대일수록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남 '적대대상' 인식에서는 20대(22.7%)가 가장 높고, 30대(17.8%)>50대(12.5%)>4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1~2015년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별 분석을 해보니,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2011~2015년 전체 표본은 총 660명이었는데, 전체표본을 분석한 결과 $x2$=40.951, p=0.054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대남 협력대상 인식은 40대(67.1%)>30대(61.7%) ≒ 50대(61.5%)>20대(54.7%)>60대(51.6%)의 순이었고, 대남 적대대상 인식은 20대(19.2%)>30대(17.5%)>50대(16.7%)>60대(12.9%) ≒ 40대(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20대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60대로 올라갈수록 협력의식이 약하고 적대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라 부를 수 있는 40대 연령층은 대남 협력인식이 가장 높고, 적대의식이 가장 낮다. 85만여 명이 식량부족으로 사망하는 초유의 대기근을 겪으면서 20대 청년시기를 보냈던 '고난의 행군 세대'는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낮고 협력의식이 높은 호의적 대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세대'를 지나 연령이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8] 2014년과 2015년에 북한주민의 중국선호도는 각각 79.2%, 71.9%인데 비해, 남한선호도는 16.1%, 22.6%에 불과하다.

남한에 대한 협력의식이 약해지고 적대의식이 높아진다. 북한의 대남의식은 40대 연령층을 기준으로 종모양 혹은 포물선 모양의 곡선을 형성하는 독특한 의식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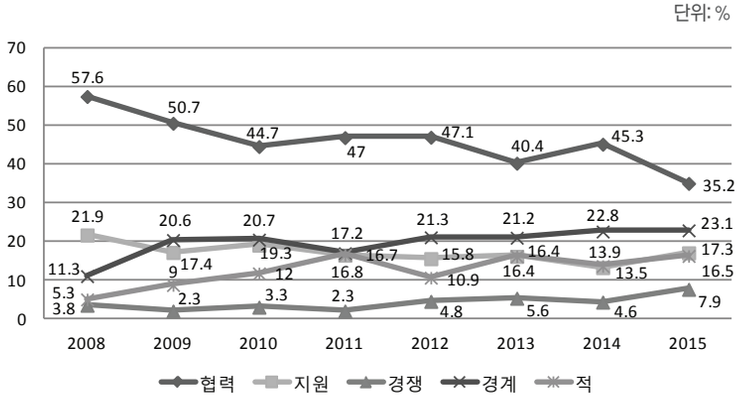
〈표 3-1〉 북한주민의 연령별 대남인식(2011~2015 전체 660명 표본조사,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협력대상	54.7	61.7	67.1	61.5	51.6
적대대상	19.2	17.5	12.0	16.7	12.9

X^2=40.951, p=0.054

북한주민의 대북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한 흐름과는 반대로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협력의식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지난 1년 동안 '협력대상' 인식이 45.3%→35.2%로 10.1%p라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 의식은 13.9%→16.5%로 2.6%p 증가하였다. 남한주민의 입장에서는 북한 고위층의 전격적인 방남과 분단·광복 70년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과 이후 조성된 전쟁위기 국면에 대한 잔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주민들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협력적 대남인식(62.3%)은 남한주민의 협력적 대북인식(35.2%)에 비해 2배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주민들보다 상대를 더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3-3〉에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남한주민의 안보불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보다 실제로 상대를 덜 위협적이며 덜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표본이 담고 있는 편향성 때문인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표본이 갖고 있는 편향성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8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볼 때 북한주민 의식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과거 귀순자 표본과는 달리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하는 북한이탈주민 표본은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조사로서 2014년 7월 『조선일보』의 자료를 들 수 있다. 『조선일보』는 친인척 방문 혹은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은 2%에 불과하였고,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56%였다.[9] 이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안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남한을 더 협력적 대상으로 응답했을 것이라는 추정과는 달리, 북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보다 오히려 남한을 더 협력적이며 친근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62.3%로 조사된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은 북한이탈주민 표본에서 생겨난 오류가 아니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을 '아랫동네'라 부르며 남한을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 남한주민이 북한(54.7%)을 가장 '위협'적인 대상으로 꼽는 반면, 북한주민은 미국(64.4%)을 꼽는다. 북한주민에게 남한은 2.0%만이 위협적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은 남한주민의 대북 협력의식보다 높은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9] "北 해주(황해도)서도 청진(함경북도)서도 남한TV 시청… "김연아 광고 재밌게 봐", 『프리미엄조선』 (온라인),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북한에 한류가 확산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월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남한주민의 대북 경계심 내지 두려움과는 달리 크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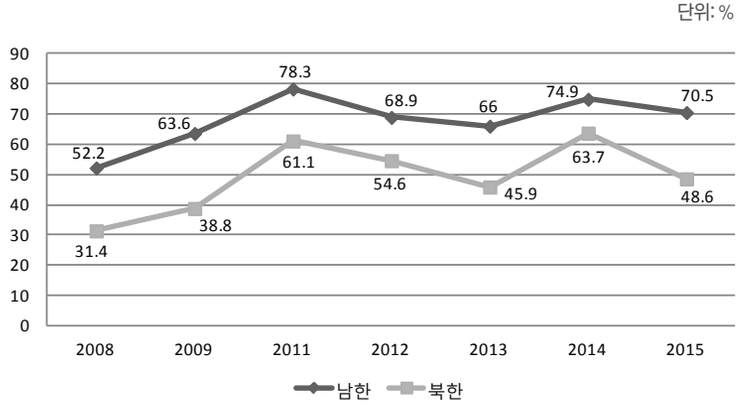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25.3%), '약간 있다.'(23.3%)를 합하여 48.6%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전혀 없다.'(20.5%), '별로 없다'(30.8%)를 합하여 51.3%로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작년에 63.7%로 최고조로 높아졌다가 2015년에 48.6%로 15.1%p가 낮아졌다.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까지 31.4%, 38.8%로 낮게 유지되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크게 높아졌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2011년에 61.1%로 껑충 뛰어올랐다. 2010년의 조사자료가 없어서 천안함 사건이 미친 효과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지나면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상승한 것은 분명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3차 핵실험 이후 긴장국면이 조성되어 조사 이래 최고조인 63.7%로 상승하였

고, 2015년에 다시 48.6%로 가라앉았다.

한편,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남한주민의 의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상대가 무력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안보불안 의식유형이 남북한 사이에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주민의 남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2008년 이후 고조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졌고 2014년에 다시 고조었다가 2015년에 다시 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도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졌고, 2014년에 고조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누그러졌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시 상대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남북한 사이에 비슷한 양상으로 고조되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한에서 동일하게 안보불안 의식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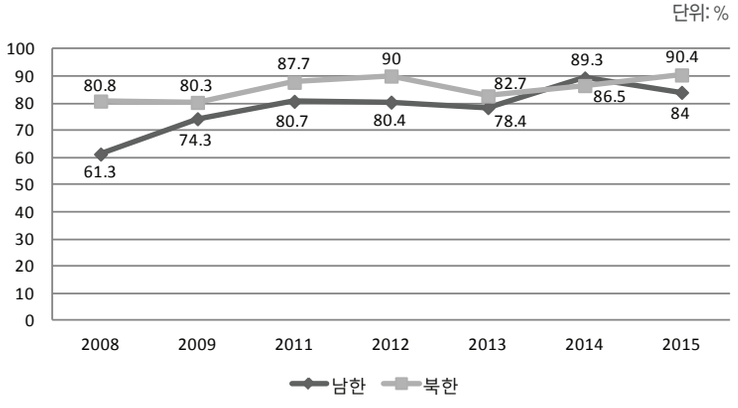


(3) 북핵위험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0.4%가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중 65.1%는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25.3%는 '다소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의 8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남 및 대미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위협에 대한 남북주민 간 인식의 차이도 흥미롭다. 2014년을 예외로 하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들은 80% 정도가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90% 가깝게 자신들의 핵무기가 위협적 수단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림 3-4〉 북핵위협의식(남북한비교)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고조되었던 적대의식이 완화되고 협력의식이 상승하면서 예년과 같은 의식의 지형으로 복귀하였다. 그에 따라 남한발 안보불안감도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무기의 위력은 더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남 협력의식의 상승은 2014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지도부의 전격적인 방남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 데다 2015년 상반기에 분단·광복 70년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 쪽에서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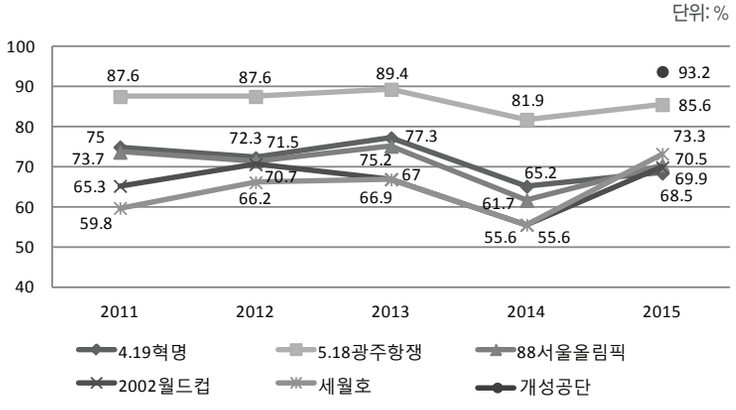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3-5〉는 2011~2015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개성공업지구'(93.2%)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1980년 '5.18광주항쟁'(85.6%)을, 그 다음으로는 역시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세월호'(73.3%)와 88서울올림픽(70.5%)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2002 월드컵(69.9%), 4.19혁명(68.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사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0]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남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하더라도 작년의 64%에서 올해 73.6%로 9.6%p 상승하였다. 세월호 관련 인지도는 2015년 조사에서 처음 추가한 항목이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북한에서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며, 2002년 월드컵축구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는데, 이는 2014년 9월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여자축구가 우승을 함으로서 북한 안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 김병로·최경희, "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년 상반기), pp. 125~126.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5)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평균은 개성공단을 포함할 경우 76.8%로 작년의 64.0%에 비해 12.8%p 상승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최근 10년간 북측지역에서 가동된 사업이고 2013년 공단의 문을 닫을 뻔한 사건도 경험했던 터라 북한 안에서 많이 알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개성공단의 인지도가 93.2%로 다른 항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일단 올해 분석에서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한 평균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평균 72.3%→70.8%→75.2%→64.0%로 평균 70%대를 유지해 오다 2014년에 64%로 떨어졌던 것이다. 2015년에 다시 70%대로 회복되었다. 대남인지도가 2015년에 다시 회복된 것은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스포츠 교류와 고위층 지도부의 남한 방문을 보도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보접촉의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남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2015년 69.7로 북한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지도가 5.18광주항쟁(85.6%)이나 세월호(73.3%)같이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70.5%)과 2002년월드컵(69.9%)에 관한 소식도 그에 못지않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이나 2002월드컵 소식은 정부의 공식매체가 전달해주지 않았을 것이며 한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70.5%, 69.9%라는 많은 주민들이 남한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정보유입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정보전달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남북 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5년의 경우, 선거방식(97.9%), 생활수준(98.3%), 역사인식(92.5%), 언어사용(93.8%), 생활풍습(87.0%), 가치관(91.8%)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과의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심각한 차이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간의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선거방식(93.3%), 생활수준(94.5%), 역사인식(80.7%), 언어사용(84.2%), 생활풍습(82.1%), 가치관(91.0%) 등으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주민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 간 차이를 굳이 따져보면 남한주민들은 역사인식과 언어, 생활풍습에서 북한주민들보다 동질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3-2〉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5)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3.3	97.9
생활수준	94.5	98.3
역사인식	80.7	92.5
언어사용	84.2	93.8
생활풍습	82.1	87.0
가치관	91.0	91.8
평균	87.6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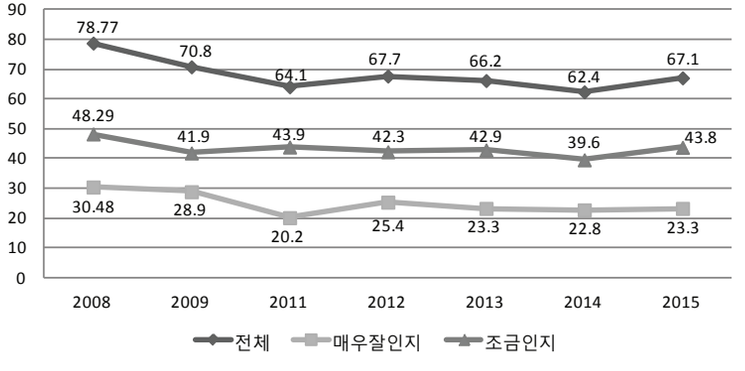
4. 남한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 인지도

대북지원에 대한 문제는 남한사회 내에서 남남갈등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대북지원 이슈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3.3%), '조금 알고 있다'(43.8%)를 합하여 총 67.1%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알 알지 못하고 있다'(21.9%),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11.0%)를 포함하여 총 32.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11.0%로 이전 해의 15.4%에 비해 소폭 줄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67:33으로 약 2:1, 즉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단위: %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작년과 비교할 때 62.4%→67.1%로 약간 높아졌다. 시기별로 보면, 2011년 이후 64.1%→67.7%→66.2%→6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5년에 67.1%로 소폭 상승한 것이다. 2014년에 대북지원 인지도가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 남북 간 인적 왕래와 교류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북인원으로만 보더라도 2012년 120,360명에서 2013년 76,503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2014년에 129,028명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2015년에도 상반기까지 64,306명을 기록한 것을 보면[11] 2015년 대북지원 인지도가 다소 상승한 것은 이러한 남북 교류와 왕래의 증가에 따른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북지원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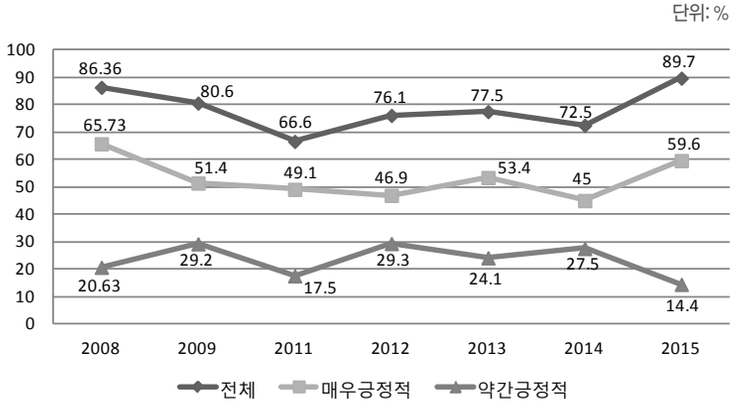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89.7%로 높았으며, 그중 59.6%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가로 볼 때, 북한주민의 절대다수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호의적인 대남인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이나 남한주민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북지원이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북한주민들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북한당국이 지원품을 빼돌려 다른 정권에 유리하게 사용한다는 논리를 들어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한다. 남한주민의 2015년 의식조사에서도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1%로 '도움이 된다'(46.9%)는 응답보다 많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 확신을 갖고 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지원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대북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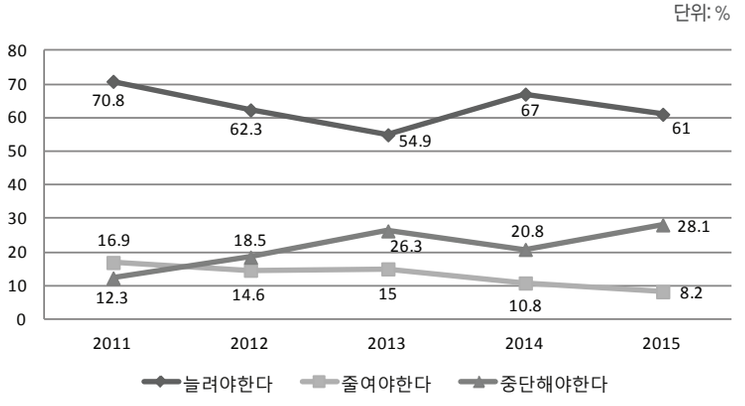
시기별로 보면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72.5%→89.7%로 17.2%p가 상승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에 수년 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1년 동안 남북 간 왕래와 교류의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해 89.7%라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남한의 지원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대북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45.0% →59.6%로 14.6%p라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1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06』 제288호(2015.6.1.~6.30.), p. 14.

〈그림 3-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3)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1.0%, '줄여야 한다.' 8.2%로 응답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69.2%는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쪽이라면, 28.1%는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의견을 기준으로 보면,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약 7 대 3 정도로 나눠진다. 이 역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장이나 남한주민의 여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정치적 문제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51.2%의 남한주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7.0%→61.0%로 감소한 반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0.8%→28.1%로 증가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작년에 예외적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 70.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식량난이 매우 심각했던 상황을 벗어나 북한의 경제와 주민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긴급한 대북지원이 필요 없다는 여론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경제가 소폭으로나마 성장추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긴급한 대북지원의 필요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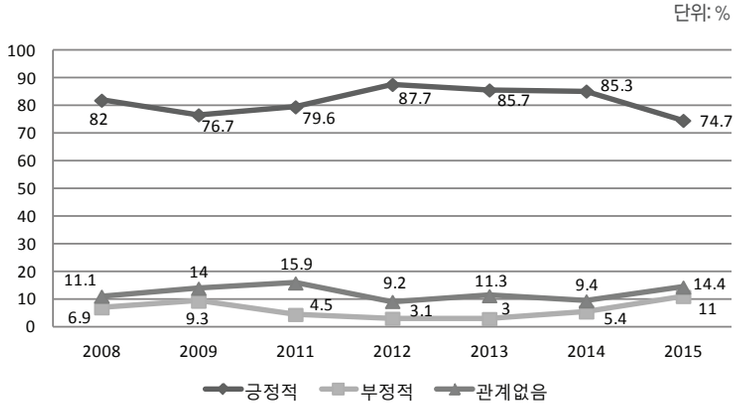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한주민들은 2015년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46.9%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53.1%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55.5%)와 '약간 긍정적'(19.2%)을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각각 5.5%로 매우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14.4%로 많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75~8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2015년 대북지원 인지도는 67.1%로 지난 1년 사이 약간 높아졌으며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의식은 17.2%p라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전년도에 비해 인적 교류와 왕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도와 효용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최근 호전됨으로써 남한의 대북지원이 그다지 긴급하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사이에 그 필요성이 10%p가량 감소한 것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소결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본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적대대상'에서 '협력대상'으로 변화되었으며,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도 소폭(4.4%p) 낮아졌다. '적대대상' 인식은 지난 1년 사이에 3.7%p 감소한 반면, '협력대상' 인식은 6.6%p 증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1년 사이에 호전되고 안보불안감도 완화된 것은 3차 핵실험 이후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하던 시기를 벗어나 남북 스포츠 교류와 북한 고위층의 방안으로 화해국면이 조성되었고 분단·광복 70년을 맞아 관계개선의 대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남 인지도는 평균 73.6%로 높은 편이며 작년에 64%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상승하였고,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효용성도 각각 4.7%p, 17.2%p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7:3으로 지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하였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는 10% 가량 줄어들었다. 북한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외부지원에 대한 북한 내부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의식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은 62.3%로 매우 높으며, '적'이라는 의식(16.4%)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물론 이러한 호의적 대남의식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선호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나, 그럼에도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의식보다 협력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 적이라는 의식보다 서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상호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은 매우 크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들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식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표본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 해의 표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1~2015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결

과가 하나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인데,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종모양 혹은 포물선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독특한 의식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호의적 대남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 20대 젊은층으로 내려갈수록 적대적 대남의식이 강하며, 마찬가지로 60대로 올라갈수록 적대적 대남의식이 높아진다. 20대 젊은층이 남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마당 세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난의 행군 세대'의 의식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호의적 대남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교류와 북한 시장화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 변화

제4장 북한실태 변화

1. 서론

2015년 조사 대상자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므로 2014년 북한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2014년은 제3차 핵실험(2013.2.12.) 이후 최고조로 긴장된 시기를 벗어난 시점이고, 장성택 처형(2013.12.12.) 이후 2014년 내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이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1년 내내 북한의 '로동신문'에 러시아 관련 소식들이 1면 뉴스로 장식한 기간이기도 하다. 2014년 11월 17~21일에는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하는 북·러 관계의 진전도 있었다. 또한, 2014년 2월에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가 발표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10월 22일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11월에는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석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내부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년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기로 김정은은 3월 9일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출마와 선출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통해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는 '수령'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2014년에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신설하며 주민들에게 기대함을 높여주었다. 2014년 6월 11일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신설하였고, 7월 23일에는 도급 경제개발구 6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신의주시를 국제경제지대로 지정하였다. 이듬해인 2015년 1월 14일에는 조선경제개발협회를 통해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제8차 사상일꾼 대회를 개최(2.24~26)하여 주민들의 사상의식을 다잡고자 시도하였다. 사상일꾼 대회를 개최한 직후 4월 14일 "괴뢰 정보원 첩자인 김정욱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9월 5일에는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를 개최하고, 9월 19일에는 제4차 청년동맹 초급일꾼회의, 11월 4일에는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결속을 도모하였다. 5월 13일에는 평양시 평천구역의 아파트 건설장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자가 신속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과 평양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등 민심수습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경색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2014년 7월 7일 정부성명으로 '북침전쟁연습 전면중지', 북핵관련 '외부 공조청탁' 금지, 연방제 통일 방안 실현, '비방중상 종식' 등을 제안

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의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고위급 인사들이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참가하여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가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하며 자신이 강조한 체육강국의 면모를 자랑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그 여세를 몰아 2015년 3월 25일에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강국이라는 자긍심으로 주민결속을 시도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북한의 현실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집권 3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2002년 7.1개혁 당시 300여 개로 시작했던 북한의 종합시장이 400여 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유동성과 한류접촉은 어떤 수준인지, 사회통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존재한다. 또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주민들이 북한 사회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북한체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북한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다.

2.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1) 공식소득과 실제소득

〈표 4-1〉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조사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공식 소득은 '전혀 없다' 54.8%, '천원 이하' 4.8%, '5천원 이하' 35.6%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공식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54.8%로 절반 이상이나 된다. 이는 북한의 공식 월급체계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심각하게 와해되었거나 빈곤층의 복지체계가 붕괴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그뿐 아니라 월급으로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1천원(4.8%), 5천원(35.6%)의 생활비를 받는다는 40.4%까지 포함하면 북한주민의 절대다수인 95.2%의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서 실제로 중산층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식 월급으로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4-1〉 공식 소득수준 (2014~2015)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2015
0원	91(61.1)	80(54.8)
천원이하	13(8.7)	7(4.8)
5천원이하	39(26.2)	52(35.6)
1만원이하	2(1.3)	1(0.7)
10만원이하	3(2.0)	4(2.7)
100만원이하	0(0.0)	1(0.7)
100만원 초과	1(0.7)	1(0.7)
합계	149(100.0)	146(100.0)

시계열로 살펴보면, 공식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람은 2013년 51.9%, 2014년 61.1%로 2015년의 54.8%로 작년에 비해서는 주민소득이 호전되었으며 2013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2011~2012년의 25.7%, 25.2%와 비교하면 공식소득이 전혀 없는 인구층이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식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장사나 부업활동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아래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사나 부업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극빈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공식 소득을 포함해도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2015년에 16.4%나 된다. 2014년의 22.9%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 1년 사이에 경제가 그만큼 호전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의 월 최소 생활비를 50만원으로 잡더라도 22.6%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최소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잡을 경우, 주민의 절반인 52.1%는 최소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공식월급이 전혀 없는 것과는 달리, 장사나 부업을 통해 확보하는 소득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만원이하'가 6.2%, '50만원이하' 29.5%, '100만원이하' 24.7%, '100만원초과' 23.3%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공식월급의 수준은 대다수가 5천원 이하이지만, 장사와 부업을 통해 실제로 버는 수입은 주민의 절반이 100만원 수준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비공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실제수입이 대단히 많다.

지난 1년간의 변화만 보더라도 실질소득은 현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10만원이하'가 23.6%→6.2%로 줄어든 반면, '100만원이하'나 '100만원초과'의 인구층은 22.2%→48.0%로 대폭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물론 이러한 소득의 증가가 실제 소득수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지, 1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악화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짐작건대, 두 가지 현상이 모두 진행되었을 것이다. 절대소득분도 어느 정도 늘어났으나,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실제 소득수준 (2014~2015)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2015
무응답	2(1.4)		-
0원	33(22.9)		24(16.4)
천원이하	4(2.8)	34(23.6)	9(6.2)
5천원이하	2(1.4)		
1만원이하	2(1.4)		
10만원이하	26(18.1)		
50만원이하	43(29.9)		43(29.5)
100만원이하	17(11.8)		36(24.7)
100만원 초과	15(10.4)		34(23.3)
합계	144(100.0)		146(100.0)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이후, 즉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여 주민들 간 빈부의 격차가 한층 심화되었다.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장사와 부업으로 100만원 내지 그 이상의 소득을 버는 반면, 절반의 주민들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원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경제가 호전되는 추세에 따라 주민생활이 개선되고 있으나, 장사와 부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절반의 주민들은 생존이 곤란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2) 사적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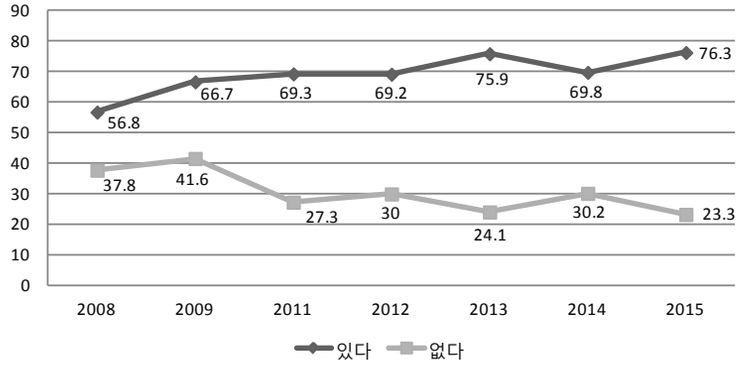
공식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비공식 소득조차 없는 사람들이 16.4%가 존재하고 10만원이하의 소득자가 6.2%, 50만원이하의 소득자가 29.5%나 된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 장사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장사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6.3%로 나왔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즉 2015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최근에 이를수록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장사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1〉이 보여주듯, 최근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장사 경험은 69.3%(2011년)→69.2%(2012년)→75.9%(2013년)→69.8%(2014년)→76.3%(2015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 직업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장사경험이 2000년대의 50~60%에서 최근 5년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사회에 장사를 비롯한 사적 경제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장사경험 유무

단위: %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70%로 조사되었는데, 북한주민 전체를 놓고 보면 장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까?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가장 많은 응답은 '80%'(30.8%)와 '90%'(27.4%)에 집중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주민들의 80~90%가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3〉에서 보면, 2014년에는 '80%'에 집중되었던 응답이 2015년에는 '90%'로 비중이 옮겨갔음이 드러난다. 김정은 정권이 첫 집권을 시작하며 단속과 통제를 강화했던 2012년에는 사적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되어, 2013년의 조사에서는 '6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차츰 회복되어 2014년에는 '80%'로, 2015년에는 '90%'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표 4-3〉 장사 및 개인사업 인구

단위: 명(%)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10%미만	0(0.0)	7(1.9)	2(1.8)	2(1.5)	1(0.8)	5(3.4)	2(1.4)
20%	3(1.0)	7(1.9)	2(1.8)	2(2.3)	4(3.0)	5(3.4)	1(0.7)
30%	13(4.4)	15(4.1)	9(8.0)	7(5.4)	10(7.5)	4(2.7)	4(2.7)
40%	11(3.7)	19(5.1)	5(4.5)	5(3.8)	6(4.5)	14(9.4)	6(4.7)
50%	18(6.1)	42(11.4)	7(6.3)	6(4.6)	23(17.3)	12(8.1)	10(6.8)
60%	26(8.8)	42(11.4)	13(8.9)	19(14.6)	51(38.3)	14(9.4)	13(8.9)
70%	47(15.9)	46(12.4)	14(13.4)	15(11.5)	14(10.5)	19(12.8)	25(17.1)
80%	91(30.7)	108(29.2)	24(21.4)	39(30.0)	13(9.8)	57(38.3)	45(30.8)
90%이상	82(27.7)	75(20.3)	36(32.1)	34(26.2)	11(8.3)	19(12.8)	40(27.4)
무응답	5(1.7)	9(2.4)	2(1.8)	-	-	-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149(100.0)	146(100.0)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6.28방침'과 '5.30조치'가 나왔고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지표별 생산을 폐기하고 총액기준의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공장과 기업, 회사, 상점, 농장 단위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생산과 분배, 무역 등 여러 기능을 공장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종합시장을 비롯한 시장거래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 결과 7.1개혁 당시 300여 개로 시작한 종합시장이 2015년에 40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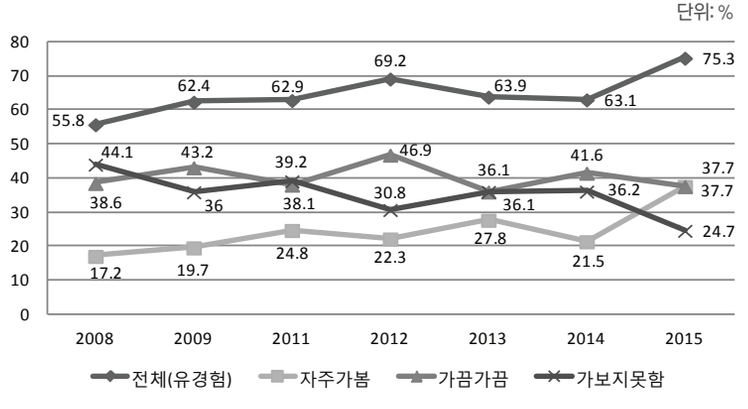
2015년 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80%에서 90%로 늘어난 것은 이러한 내부 변화를 반영한다.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2013년에 60%까지 떨어졌던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이처럼 다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2015년 주민의 실질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도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 증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90% 가까운 주민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공식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장사나 개인 사업 등 사적 경제활동에 진출하여 돈을 버는 이중적 소득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물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생활은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향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활에 필요한 적정소득이 3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급등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의 호전과 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22.6%의 주민들은 실질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존 불가능한 10만원이하의 소득자에 머물러 있고, 29.5%의 주민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50만원이하의 소득자들이다. 시장이 증가한다고 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장사활동의 증가와 시장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전반적 사회통제

(1) 지리적 이동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유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12]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폐쇄체제를 그만큼 와해시키고 있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4-2〉는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보았다'는 응답이 지난 1년 동안 63.1%→75.3%로 12.2%p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자주 가보았다"는 사람들이 21.5%→37.7%로 16.2%p라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회통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처럼 지역 간 이동이 증대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경제활동 목적으로 타 지역을 활발히 왕래했음을 말해준다.

〈그림 4-2〉 타지역 이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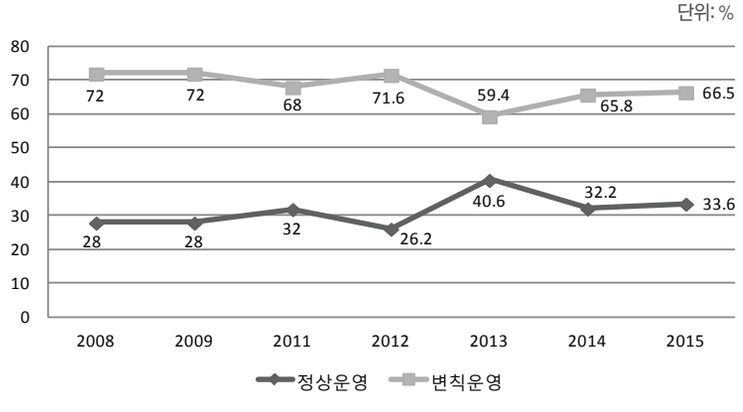


12]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2) 직장 내 생산규율

〈그림 4-3〉은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33.6%인데 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66.5%를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 활동이 대체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에 40.6%로 높아졌던 직장 내 생산규율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2.2%, 33.6%로 낮아져 변칙운영의 비율이 6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직장 내의 생산 활동이 단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 변칙적 생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4-3〉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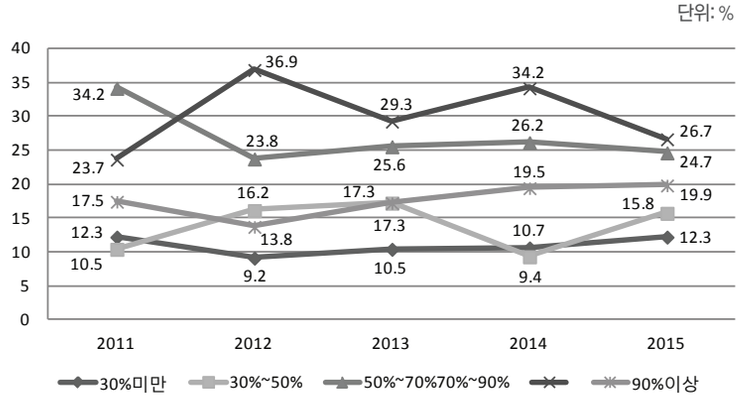


2013년에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던 직장 내 생산규율이 지난 2년 동안 이완된 것은 장사와 개인사업 활동이 다시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조사에 나타난 현상은 김정은 정권 출범 2년 차인 2013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첫 1년차에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때여서 장사 활동도 80%대에서 60%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직장 내 생산 활동이 대폭적으로 정상화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집권 2년 차에 들어 사적 경제활동이 80%대로 증가하고, 3년 차에 다시 90%로 증가하여 직장 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생산 활동은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직장 내 생산 활동에서 변칙운영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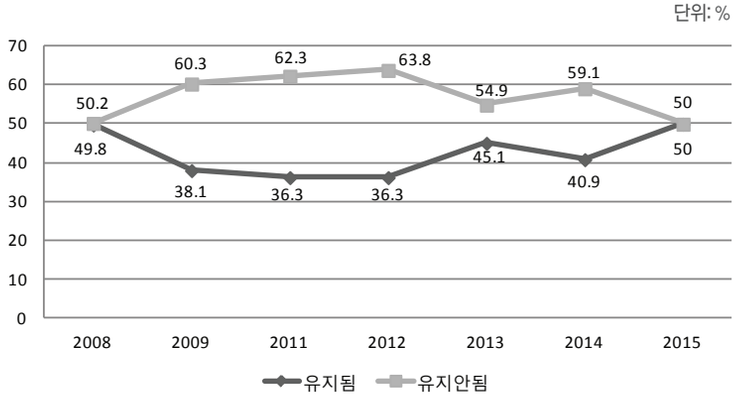
(3) 생활총화 출석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중 하나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실태일 것이다.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간 생활총화 참가율이 70~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26.7%)를 차지하고 있고, 50~70%라는 응답(24.7%)이 그다음으로 많다. 90% 이상이라는 응답은 19.9%로 세 번째로 많다. 평균으로 보면 생활총화 참가율은 70~80% 정도 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생활총화 참여율이 소폭 낮아졌다. 생활총화 참여율이 90%이상이라는 응답은 19.5%→19.9%로 변화가 없으나, 70~90%라는 응답은 34.2%→26.7%로 7.5%p나 줄었고, 50~70%라는 응답도 26.2%→24.7%로 소폭 줄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총화 참여가 소폭 줄었다. 즉 주민들의 결속력이 조금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4〉 생활총화 출석률 (2011~2015)



〈그림 4-5〉 사회통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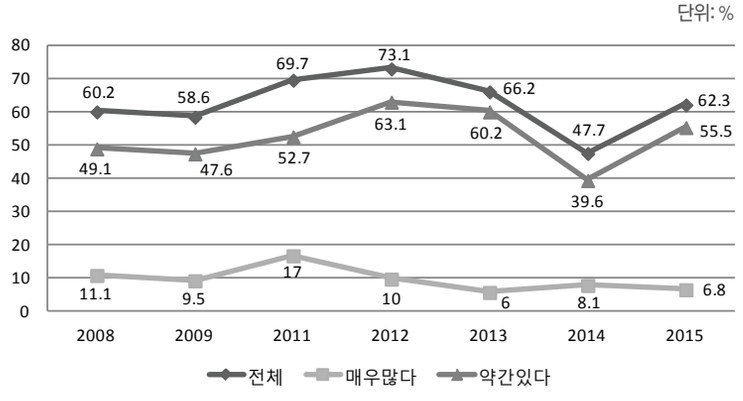
(4) 사회통제 실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는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과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년 동안 사회통제는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40.9%→50.0%로 9.1%p 상승하였다. 2012년 36.3%였던 것과 비교하면 13.7%p가 상승하여,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통제는 크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5) 정치적 비판행위

〈그림 4-6〉은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2014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15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많다'(6.8%)와 '약간 있다'(55.5%)를 합하여 '있다'는 의견이 62.3%로 많았다. 2014년에 특이하게도 66.2%→47.7%로 크게 떨어졌다가, 2015년에 47.7%→62.3%로 예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그림 4-6〉 정부비판행위(낙서, 삐라 등) (2008~2014)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매우 많다'는 응답은 6.8%로 매우 적고, 대체로 '약간 있다'(55.5%)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약간의 정부 비판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나 정부를 비판하는 낙서와 삐라가 매우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 안에 정부를 비판하는 심각한 행동이 발생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14년에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다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반정부 활동이나 정부비판 활동이 그처럼 큰 폭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북한 외부에서 전개하는 관련 활동들이 사정에 의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남으로써 생겨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북한 민주화운동 등 미국과 한국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대북활동이 2013년 시진핑 정부에 들어 중국 내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4. 문화의식

(1) 한류 접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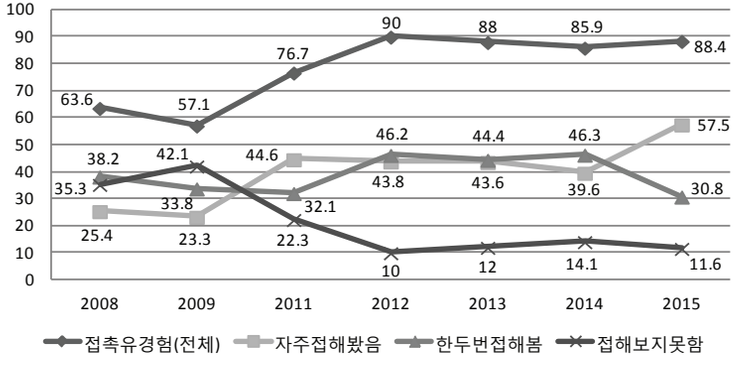
〈그림 4-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5년에 88.4%에 달하였다. 즉 북한주민의 88.4%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드라마나 노래 등 남한의 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한두 번' 접해본 사람은 30.8%, '자주 접해보았다'는 사람은 57.5%로, 다수가 남한의 문화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에 '자주 접해보았다'는 응답이 39.6%→57.5%로 17.9%p나 증가했다. 2012년 이후 북한주민의 한류 접촉 수준은 80~90%에 이르며,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은 40~50%에 이른다.

지난 1년 사이에 한류의 접촉빈도가 급증한 이유는 북한 내에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 등 남한의 문화콘텐츠가 이미 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객관적으로는 2014년과 2015년 북·중관계의 악화로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문화접촉의 특성상 접촉

의 경험은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북·중 간 왕래와 교역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남한의 문화콘텐츠는 북한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주민의 한류접촉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한두 번 접촉하던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쪽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한류가 확산된 것이다.

〈그림 4-7〉 한류접촉경험 (2008~2015)

단위: %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4-4〉는 약 74.0%의 응답자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82.5%→74.0%로 8.5%p 줄었다.

여기에는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중국 조선족 친인척들의 방북이나 북한가족들의 중국방문, 중국 휴대전화의 활용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2014년 북·중 간 인적, 물적 교류가 감소함으로써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상황이나 가족소식을 들을 기회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조·중국경지대의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제 및 북한이탈주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사에 응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비율도 69.1%→58.2%로 10.9%p 줄었다. 즉 지금까지 약 70%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친척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년 6개월 이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8%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남한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북한 내의 정보접촉이 어려워졌음을 말해준다.

〈표 4-4〉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5)

단위: 명(%)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15.2)	46(12.4)	19(16.7)	27(20.8)	30(22.6)	37(24.8)	28(19.2)
조금 접할 수 있다	156(52.7)	183(49.5)	62(54.4)	76(58.5)	75(56.4)	86(57.7)	80(54.8)
거의 접할 수 없다	86(29.1)	122(33.0)	30(26.3)	27(20.8)	28(21.1)	26(17.4)	37(25.3)
무응답	9(3.0)	19(5.1)	3(2.6)	-	-	-	1(0.7)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149(100.0)	146(100.0)

(2) 한류 선호도와 접촉경로

한류를 접촉한 경험 있는 88%의 응답자에 대해 남한의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매우 친숙했다'는 응답이 58.2%로 많았고, '약간 친숙했다' 26.0%,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2.7%,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는 0.7%로 매우 적었다. 남한의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음악이 북한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매우 친숙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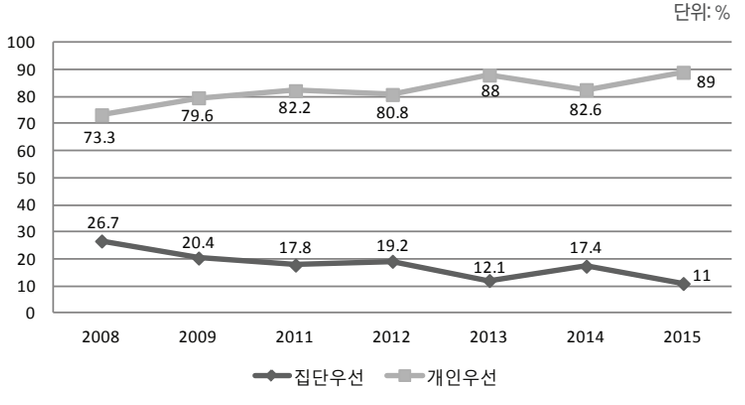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였는가를 판단하는 한류 접촉경로에 대해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사람들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19.9%,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6.8%,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이 3.4%로 적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이 아직은 불법이어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는 친구나 친척 등 믿을만한 주변사람들에게 구입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한류문화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29.5%, '강연, 학습' 10.3%, 북한의 방송 6.2%, 로동신문 등 북한의 신문 4.1%로 조사되었다. 즉 외부소식의 주요 경로 역시 주변사람을 통해 듣고 있고, 남한에서 보내는 방송이나 통신, 삐라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외부소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3) 개인주의 가치 확대

〈그림 4-8〉이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가치는 개인주의 지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가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도 개개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개인주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도 개인주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람들이 89%, 집단주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람들이 11%로, 예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생산규율이나 사회통제 등 정책과 행위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가 20:80으로 구성되었다면, 2010년대에는 10:90의 비중으로 개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그림 4-8〉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5)



집단주의 원칙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9대 1로 개인주의 가치가 압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은 '집단주의'를 상당 부분 변경하는 법개정을 단행하였다. 1992년 헌법 제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마친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이 조항을 수정하였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대신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대체하였다. 뒤 문장은 그대로 살려두었으나, 집단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라는 원칙을 삭제한 것이다. 개인주의가 9대1로 압도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집단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원칙을 헌법(6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주의는 상징적 수준에 머무를 뿐 주민들의 일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치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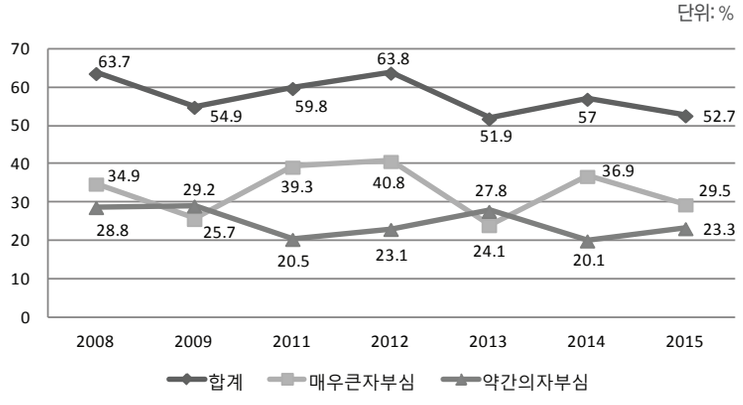
5. 정치사상의식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그림 4-9〉는 주체사상 이념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체사상을 자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52.7%로 '없다'는 응답률 47.3%에 비해 많았다.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은 29.5%로 많았고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3.3%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별로 없다'는 응답은 36.3%로 많은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1.0%로 매우 적었다. 즉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29.5%로 많은 반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11%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아직 주체사상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57.0%→52.7로 4.3%p 감소하였다. 2012년의 63.8%나 2008년의 63.7%에 비하면 10%p가량 낮아진 수치다. 매년 조사에서는 등락이 있지만, 긴 흐름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8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되며, 2000년대에 60%대로 내려왔고, 2010년대에는 50%대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제와 생활총화 참석률 등 일시적으로 주체사상 자부심이 상승하는 때도 있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5)



주체사상의 자부심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한 해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략적인 흐름은 발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체 표본 660명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 주체사상의 자부심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x2$=36.858, p=0.017).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은 40대 연령층에서 53.5%로 가장 낮고, 30대(56.1%), 20대(59.0%)로 내려갈수록 높았으며, 반대로 50대(60.5%), 60대(62.5)로 올라갈수록 더 높았다. 즉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에서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낮고, 40대를 중심으로 아래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동시에 60대로 올라갈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높았다. 현재의 40대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주의의 현실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졌을 것이며, 그러한 경험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부심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15년 전체표본 660명 대상분석,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0	56.1	53.5	60.5	62.5
없다	41.0	43.9	46.5	39.7	37.5

x^2=36.858, p=0.017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주민의 52.7%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사가 북한이탈주민의 표본을 통해 확보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표본을 통해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북한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표본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그들이 북한 안에 거주할 당시 주변 북한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델파이 방식으로 묻는 질문이어서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혹은 1년 6개월 이내에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실정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중국을 방문한 현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보자.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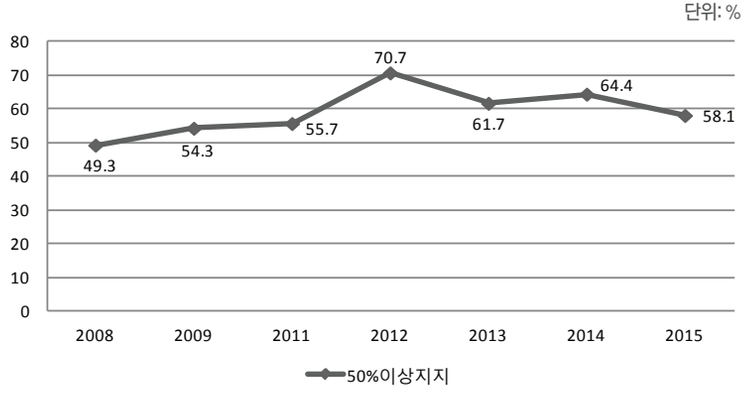
7월에 조사한 북한주민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 '자부심이 별로 없다'는 사람이 13%, '전혀 없다'는 사람은 22%로 나타났다.[13] 즉 북한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주민 중 주체사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65%로 평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평가(2014년 57%)보다 8.0%p 높게 나타났다. 북한내부거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평가보다 8.0%p 정도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통일평화연구원이 기획한 북한이탈주민 표본 방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중상층 혹은 평양시민을 대변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전체 북한주민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 표본으로 얻어진 통일평화연구원의 자료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평가하는 데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2) 김정은 지지도

〈그림 4-10〉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은의 지지도를 보여준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58.1%로 작년의 64.4%에서 6.3%p 하락하였다. 김정일 생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를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49.3%(08년)→54.3%(09년)→55.7%(11년)→70.7%(12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1.7%(13년)→64.4%(14년)→58.1%(15년)는 비교적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선전선동부의 활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4월 김정은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대된 것을 필두로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여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 들어 총 172회의 현지지도를 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선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조금이나마 향상되어 '인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도자라는 이미지와 젊고 패기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선전선동부의 활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10〉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2008~2015)



13] 강동완 · 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북한주민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세계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2014.10.29), p. 354.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도 주체사상의 자부심과 마찬가지로 세대별 차이를 보인다.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에서 김정은 지지도가 55.3%로 가장 낮고 30대 66.2%, 20대 71.2%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50대 59.8%, 60대 60.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40대를 기준으로 포물선 모양을 그린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고난의 행군 세대'인 40대는 가장 극심한 식량난 시기에 20대의 젊은 시기를 보내면서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식을 다른 연령층보다 더 강하게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 연령층이 김정은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학교생활과 학습활동이 재개되어 사회질서가 점차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의 젊은 층이 김정은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청년세대의 역할을 부쩍 강조해 나가고 있다.

〈표 4-6〉 연령별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2011~2015년 전체표본 660명 대상 분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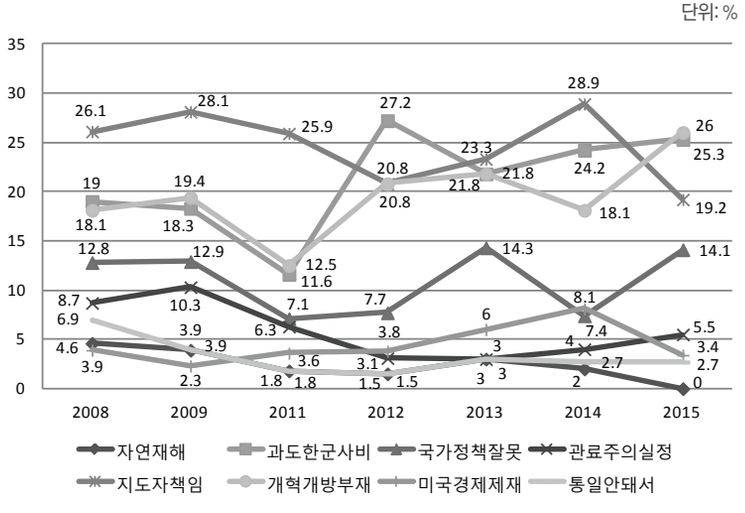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율	71.2	66.2	55.3	59.8	60.2

χ^2=79.419, p=0.021

김정일 및 김정은에 대한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그림 4-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2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과다한 군사비 지출'(25.3%)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19.2%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며, 과다한 군사비라는 응답은 북한당국이 경제침체에 대한 구실로 내세우는 정당화 담론으로 이 두 응답이 높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한편으로는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정당화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년의 변화를 보면, 지도자(김정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작년에는 28.9%로 가장 많았었는데, 2015년에는 19.2%로 9.7%p나 낮아졌다. 반면, 개혁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8.1%→26.0%로 7.9%p 높아졌고, 국가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7.4%→14.1%로 6.7%p 높아졌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침체가 지도자 개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1〉 경제침체의 원인



2015년의 조사를 앞에서 언급한 북한 내부주민의 의식과 비교하면 완벽한 일치를 보인다. 즉 북한 내부주민 조사에서도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22%로 두 번째를 차지한 반면,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17%로 나왔다.[14] 내부주민들 역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는 설명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낮췄다. 이러한 조사와 비교해 보아도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표본이 북한주민의식을 대변하는데 상당한 신뢰도와 유용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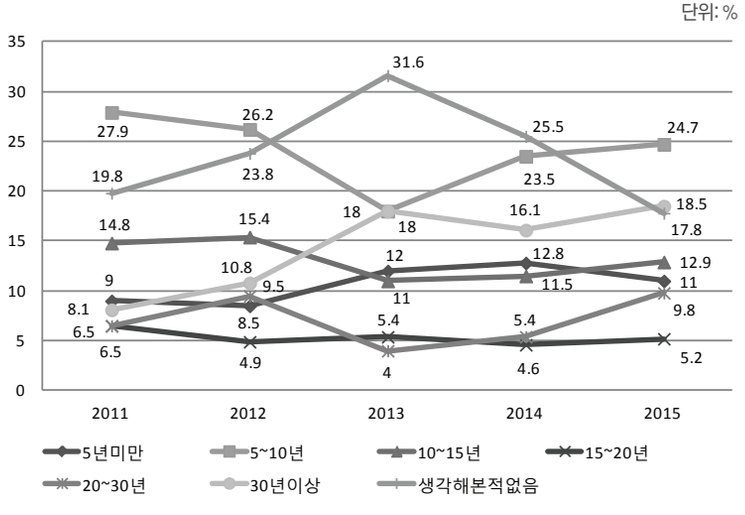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주민들은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당국은 줄곧 미국의 대북 '압살고립' 정책 때문에 경제발전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다.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은 북한이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오랫동안 활용해 왔고, 그러한 심리와 감정을 이용하여 경제침체와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합리화하여 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주민들은 그러한 당국의 정당화 논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은 지난 1년 사이에 7.0%→3.4%로 오히려 떨어졌다. 북한당국의 선전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한주민 의식의 현실과는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4]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주민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 2014년 10월 29일), p. 362.

(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5~10년'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이 18.5%, '생각해본 적 없다'가 17.8%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5~10년'이라는 응답은 23.5%→24.7%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5.5%→17.8%로 7.7%p나 낮아졌다. '5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12.8%→11.0%로 소폭 하락하여 북한주민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단기간에 붕괴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가장 높았던 2013년 이후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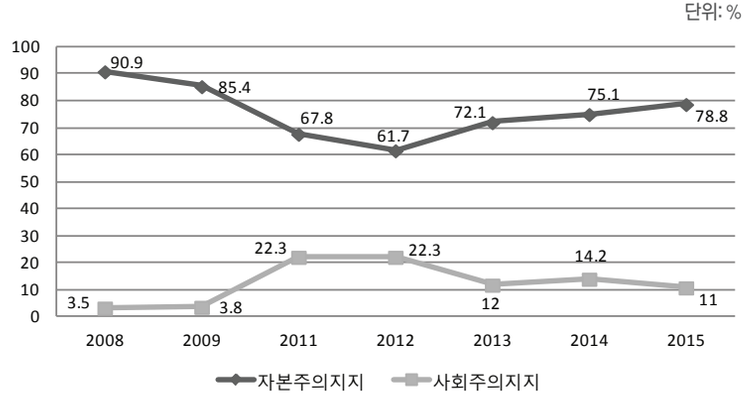
〈그림 4-12〉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2011~2015)



(4) 경제체제 선호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9:11로 자본주의지지 의견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지지에 대한 응답이 14.2%→11.0%로 소폭 줄었으나 큰 변화는 아니다.

〈그림 4-13〉 경제체제 선호도 (2008~2015)



북한주민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장경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 안에서 공산주의를 폐기한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오랫동안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체제유지의 골간이 되어 왔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시 국가의 목표에서 삭제되었다. 기존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29조)라고 공산주의를 강조하였으나,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만 남겨두었다. 기존에 표방했던 '공산주의적 새인간' 또는 '공산주의 건설자' 등의 용어를 모두 '사회주의' 혹은 '주체형'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면서 공산주의를 공식이념에서 삭제하였다. 위의 〈그림 4-13〉에서 보듯이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사회주의마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공산주의 이념이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시장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맛보고 있는 북한주민으로서는 경제체제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고 그만큼 그에 대한 선호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소결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서 본 2015년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식소득으로는 54.8%가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절대다수가 공식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76.3%가 장

사나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은 7.5%p가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나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16.4%나 되고, 주민의 절반 정도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극빈층이 지난 1년 사이 22.9%→16.4%로 감소하여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적정소득은 더 빨리 높아져 주민의 실질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사회통제는 지난 1년 사이에 9.1%p 상승하여 유례없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생활총화 참여율은 늘지 않았고 주민유동성과 한류접촉 경험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정부에 대한 비판낙서나 삐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9:1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북한정권 지속에 대한 생각도 장기유지론에서 단기붕괴론 쪽으로 소폭 이동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2.7%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도 58.1%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 사이 주민들의 사상의식과 정권지지도가 소폭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정치사상 의식은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의 선전선동 및 조직 활동 등 북한당국의 정치사회적 통제와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건설사업과 경제생활 향상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각종 건설사업과 식생활 부문을 부각하며 인민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정치사회 의식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발생한 남북관계의 긴장과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상황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 청사진을 어둡게 한다. 2016년 5월에 진행될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인민생활향상'을 통해 주민결속을 증진하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정치사회 의식에서 2016년에 호전될 가능성은 이런 점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에 대한 인식

제5장 주변국에 대한 인식

1. 서론

김정은 정권이 2012년 4월 출범한 이래로 북한의 정치상황과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유지로 인한 미·중세력균형의 변화는 새로운 차원의 경쟁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체제유지 및 공고화라는 북한의 근본 이익과 함께 김정은 정권은 정치체제 안정화, 경제난 및 대외관계 고립화 극복과 같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이른바 '공포정치'를 지속함으로 권력엘리트 계층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였다.

대외관계에 있어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보다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핵능력 강화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 이래로 이어진 강성국가건설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있을 시에 교류협력 증대와 신뢰조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북한은 2013년 5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남한과의 긴장과 대결 국면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2012년 2월 핵·미사일실험 중단과 대북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윤달합의'(Leap Day agreement)를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 해 4월 헌법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기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을 맞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발사를 단행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한국과 미국과의 전향적인 대외관계 개선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안정화를 중시하면서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 강화하고 2013년 3월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갔다. 북한의 이러한 체제결속 및 안보 추구 행위는 근본적인 대외관계의 변화나 관계개선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한국정부의 5.24 조치의 지속,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는 지속적인 외부 불안 요소로 작용함으로 북한 정권의 주변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마당 확산, 휴대전화 보급, 북·중무역 확대, 외부 정보유입 등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2015년 신년사에서 강조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식의 애민(愛民)정치가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에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북한 정권 인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이 북한주민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의 주변국 관계인식은 신중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변화추이를 추적하는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북한사회의 내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써 이는 불가능하다. 방법론적인 대안으로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에서 탈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이 주변국 혹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주민들이 주변국에 대하여 느꼈던 친밀감과 위협감,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희망 여부,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장 친밀한 국가

먼저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친밀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주변국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았다. 조사 문항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의 상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친밀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 것이며 민족적인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국가명	조사연도				국가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1.6	1.5	1.4	2.1	미국	68.8	65.9	76.2	74.9	78.3
일본	0.8	0.0	0.0	0.7	일본	9.1	6.8	5.1	4.3	3.9
한국	24.0	13.0	16.2	22.9	한국	16.0	20.6	11.0	8.9	8.1
중국	70.4	83.2	79.7	72.9	중국	5.3	5.8	7.3	10.3	8.8
러시아	3.2	2.3	2.7	1.4	러시아	0.8	0.9	0.5	1.0	0.9
합계(N)	125	131	148	144	합계(N)	1,197	1,199	1,200	1,200	1,200

〈표 5-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을 가깝게 여기는 국가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의 비율은 72.9%로 2014년의 79.7%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주변국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북한주민의 친중국 인식은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혈맹' 또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의 내재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확대되었던 북·중간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북·중간 경제의존 심화는 북한 주민의 대중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3년 이래 최근 2년 동안의 대중 친밀감 하락세는 향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유엔안보리 경제제재참여, 그리고 2013년 12월 북·중 경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일 수 있다. 당장의 북 · 중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인식 변화는 아닐지라도 향후 북한의 핵관련 대외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응은 북한의 대중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대중친밀감이 다소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같은 기간 증가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같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2015년 남북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2015년 8월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었으며 이후의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은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앞두고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의 북한 고위급 방한이 이루어졌고 2015년 신년연설에서 '남북관계 대전환'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5.24 조치 철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주민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민족주의적 동질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년 이래 미국은 가장 친밀한 국가였다. 북한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 까지는 미국 다음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 2014년, 2015년은 중국 다음으로 친밀도가 세 번째가 되었다. 최근 2년 동안의 대북친밀도 하락은 김정은 정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공포정치의 지속,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N)
2012	남성	62.5	26.8	10.7	56
	여성	76.8	21.7	1.5	69
2013	남성	78.9	14.0	7.0	57
	여성	86.5	12.2	1.4	74
2014	남성	79.6	12.2	8.2	49
	여성	79.8	18.2	2.0	99
2015	남성	63.6	29.1	7.2	55
	여성	78.7	19.1	2.2	89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2〉의 결과와 같다. 네 차례의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보다 중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4년 동안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 대한 친밀감은 평균 80.4%, 17.8%였으며 남성의 경우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평균 71.1%, 20.5%를 나타냈다. 여성 응답자들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 응답자에 비

해 두 나라를 제외하고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남성 응답자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4년 79.6%에서 2015년 63.6%로 2012년 조사 이래 처음 하락하였고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같은 기간 12.2%에서 29.1%로 증가하면서 처음 상승하게 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 및 한국에 대한 친밀감 상승 추세가 남성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0.0	0.0	1.2	0.0	0.0	2.1
일본	7.7	0.0	0.0	0.0	0.0	0.0
한국	46.2	30.4	18.5	23.8	13.3	10.6
중국	46.2	65.2	76.5	71.4	86.7	85.1
러시아	0.0	4.4	3.7	4.8	0.0	2.1
합계(N)	13	23	81	21	15	94
	2014			2015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0	0	2.2	0	0	3.4
일본	0	0	0	0	4.2	0
한국	10	9.4	19.8	27.6	20.8	23
중국	85	87.5	75.8	69	75	73.6
러시아	5	3.1	2.2	3.4	0	0
합계(N)	20	32	91	29	24	87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2013년 조사까지는 재북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그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르고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한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응답이 2014년에 비해 높아졌다. 대학교 출신 응답자의 경우 2014년 10.0%에서 2015년 27.6%로 17.6%p 증가하였고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출신의 경우 같은 기간 11.4%p, 3.2%p 각각 증가하였다. 대중친밀도는 학력 배경에 관계없이 다른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지만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재북학력이 높을수록 대중친밀도 하락 폭이 컸다는 점도 특징이다. 즉 북한의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다시 증가하고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다소 감소하는 있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5.6	0.9	0.0	1.8	0.0	1.6	7.7	0.9
일본	5.6	0.0	0.0	0.0	0.0	0.0	3.8	0.0
한국	22.2	24.5	11.1	13.3	10.0	17.3	26.9	22.2
중국	55.6	72.6	88.9	82.3	90.0	78.0	61.5	75.2
러시아	11.1	1.9	0.0	2.7	0.0	3.1	0.0	1.7
합계(N)	18	106	18	113	20	127	26	117

주: 2014년, 2015년의 경우 후보당원 각각 1명은 당원으로 포함시켰음.

당원 여부에 따라서도 주변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원 중에 한국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4년 20명 중 2명으로 10%로 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은 26명 중 7명으로 26.9%로 증가하였다. 당원 중 중국을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은 2014년 20명 중 18명으로 90%에 이르렀으나 2015년 26명 중 16명으로 61.5%로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비당원의 경우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으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2014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다소 감소하였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이나 당원 출신들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의 변화는 비당원보다 현저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인식의 변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른바 피포위의식 등은 북한주민들의 위협인식 형성에 오랜 기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에 대한 적대인식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은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악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위협 인식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조사 년도	2012	2013	2014	2015	조사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66.1	71.4	73.8	65.7	미국	8.6	9.5	4.4	5.4	4.7
일본	3.3	6.8	9.7	12.6	일본	11.6	12.3	16.0	24.6	16.1
한국	8.3	1.5	2.1	1.4	북한	46.0	47.3	56.9	49.8	54.8
중국	22.3	20.3	14.5	19.6	중국	33.6	30.5	21.3	17.6	23.3
러시아	0.0	0.0	0.0	0.7	러시아	0.3	0.4	1.3	2.6	1.3
합계(N)	121	133	145	143	합계(N)	1,197	1,199	1,200	1,199	1,200

북한주민 응답자의 65.7%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보고 있다. 다른 주변국과 비교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미국 적대인식과 함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북제재의 지속, 2012년 2.29합의 결렬 이후 지속된 북·미간 경색국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2012년 4월 위성발사 이후 중단된

북미대화 및 핵개발 협상 실패 등에 관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설정함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15] 이러한 북한 정권 엘리트들의 전략적 이해는 북한 주민들의 대미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3년 동안 증가해 왔던 대미위협인식이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고 같은 기간 감소하였던 대중위협인식이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73.8%이었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5년 65.7%로 8.1%p로 하락하였고 2014년 14.5%였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5년 19.6%로 5.1%p 상승하였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위협인식이 추후 어떻게 변화할지 세심한 관찰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북한 당국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북한주민 대다수는 한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남북 간에 뚜렷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족적 동질감에 의한 우호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인들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2015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한국인들의 10명 중 5명은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군사도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지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한국인들에게 북한을 가깝게 여기는 민족적 정서적 인식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와 안전의 측면에서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122.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중국	기타	합계(N)
2012	남성	66.0	22.6	11.4	53
	여성	66.2	22.1	11.7	68
2013	남성	61.0	28.8	10.2	59
	여성	79.7	13.5	6.8	74
2014	남성	77.1	14.6	8.3	48
	여성	72.2	14.4	13.4	97
2015	남성	53.6	30.4	16.0	56
	여성	73.6	12.6	13.8	87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경우 북한주민들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중국을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남성과 여성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들의 대중 위협인식이 2014년 14.6%에서 2015년 30.4%로 17.8%p 증가한 반면 대미 위협인식은 2014년 77.1%에서 2015년 53.6%로 23.5%p 하락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의 대중, 대미 위협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추세의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 소원해

진 북·중관계, 긴밀해지는 한·중관계 등의 요소가 북한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7〉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2			2013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58.3	68.4	68.3	77.3	60.0	71.6
일본	8.3	5.3	2.4	9.1	6.7	6.3
한국	8.3	5.3	8.5	0.0	0.0	2.1
중국	25.0	21.1	20.7	13.6	33.3	20.0
합계(N)	12	19	82	22	15	95
	2014			2015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85.0	73.3	72.2	46.4	75.0	69.0
일본	5.0	10.0	11.1	25.0	4.2	11.5
한국	0.0	3.3	2.2	0.0	4.2	1.1
중국	10.0	13.3	14.4	28.6	16.7	18.4
합계(N)	20	30	90	28	24	87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한 응답의 비율에도 차이가 발견된다. 2012년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북한주민들의 경우 다른 학력의 응답자 보다 미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 정도 낮고 중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기타 학력을 가진 응답자 보다 5%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보다 높아진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낮았었다. 2015년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북한주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이다.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재북학력자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46.4%로 전년도 85%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4년 10%에서 2015년 28.6%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3년의 흐름과 달리 2015년에 증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표 5-8〉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70.6	64.7	68.4	71.9	75.0	73.4	53.8	68.1
일본	0.0	3.9	10.5	6.1	15.0	8.9	15.4	12.1
한국	0.0	9.8	0.0	1.8	0.0	2.4	0.0	1.7
중국	29.4	21.6	21.1	20.2	10.0	15.3	30.8	17.2
합계(N)	17	102	19	114	20	124	26	116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는 당원 출신 응답자와 비당원 출신 응답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의 경우 당원 출신은 비당원 출신에 비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높았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당원 출신의 북한주민들 중 한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2015년 조사에서 당원

출신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75%에서 2015년 53.8%로 21.2%p 줄어들었고 중국은 2014년 10%에서 2015년 30.8%로 20.8%p로 증가하였다. 당원 출신에 비해 비당원 출신의 응답자들의 대중 위협인식의 증가와 대미 위협인식 하락의 폭은 크지 않았다. 즉 당원 출신의 북한주민들의 대중 대미 위협인식의 변화가 비당원 출신보다 현저하였다.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남북한 간의 통일은 민족적 과제인 것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사건이다. 또한, 통일은 목표인 것과 동시에 과정이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이 남북한 간의 대화, 조정, 협의, 이행을 필요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상이하고 중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동반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남북한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환경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그리고 문화 역량을 강화함으로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 대응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이다. 남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평화조성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희망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통일 희망에 대한 인식은 이 질문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표 5-9〉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 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원함	31.7	19.5	21.1	33.1	38.1	40.0	40.6	41.1	48.1
	원하지 않음	68.3	80.5	78.9	66.9	61.9	60.1	59.4	58.9	51.9
	합계 (N)	126	133	147	145	1,201	1,200	1,200	1,195	1200
중국	원함	15.0	16.7	14.9	14.4	10.2	10.5	18.3	19.2	22.3
	원하지 않음	85.0	83.3	85.1	85.6	89.8	89.6	81.7	80.7	77.6
	합계 (N)	127	132	148	146	1,200	1,200	1,200	1,198	1,199
일본	원함	10.5	6.8	6.8	8.3	13.5	11.9	14.4	12.6	14.0
	원하지 않음	89.5	93.2	93.2	91.7	86.5	88.1	85.6	87.4	86.0
	합계 (N)	124	132	146	145	1,201	1,200	1,200	1,197	1,199
러시아	원함	32.5	34.4	30.1	26.6	15.8	14.3	17.6	16.5	17.0
	원하지 않음	67.5	65.6	69.9	73.4	84.3	85.8	82.4	83.5	83.0
	합계 (N)	123	131	146	143	1,200	1,200	1,200	1,195	1,198

북한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는 중국이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주변국이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앞선 친밀감과 위협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보다 매년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응답률 또한 미국의 통일희망이 26.3%로 중국의 15.2%, 일본의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북한주민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33.1%로 2014년 21.1%에서 12%p 증가되었고 이는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보다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 응답자는 미국을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면서 중국, 일본 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더 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주민들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이지만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가 2015년 제외하고 통일희망이 기타 주변국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주민들의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을 제외한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 중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국가 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2011년 10.2%에서 2015년 22.3%로 2배 이상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 증가와 함께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

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5-10〉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28.6	71.4	56	23.7	76.3	59
	여성	34.3	65.7	70	16.2	83.8	74
학력별	대학교	46.2	53.8	13	27.3	72.7	22
	전문학교	39.1	60.9	23	20.0	80.0	15
	고등중학교	26.8	73.2	82	16.8	83.2	95
당원	당원	38.9	61.1	18	31.6	68.4	19
	비당원	29.9	70.1	107	17.5	82.5	114
통일 희망 정도		2014			2015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22.0	78.0	50	36.8	63.2	57
	여성	20.6	79.4	97	30.7	69.3	88
학력별	대학교	25.0	75.0	20	34.5	65.5	29
	전문학교	16.1	83.9	31	33.3	66.7	24
	고등중학교	21.7	78.3	92	34.1	65.9	88
당원	당원	19.0	81.0	21	40.7	59.3	27
	비당원	20.8	79.2	125	31.6	68.4	117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여성 응답자가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에는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비율로 북한주민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2015년의 경우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네 번의 조사 결과에서 뚜렷한 성별 격차는 드러나지는 않았다. 대학교 이상의 재북 학력자들은 2012년 46.2%, 2013년 27.3%, 2014년 25.0%, 2015년 34.5%로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만 전문학교 학력자의 경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16.1%에서 2015년 33.3%로 17.2%p가 증가하였고 이는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2014년을 제외할 경우 당원 출신의 북한주민들이 비당원 출신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비당원에 비해 2014년 19%에서 2015년 40.7%로 2배 이상 비율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5-11〉 중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14.3	85.7	56	8.6	91.4	58
	여성	15.5	84.5	71	23.0	77.0	74
학력별	대학교	38.5	61.5	13	9.5	90.5	21
	전문학교	4.3	95.7	23	6.7	93.3	15
	고등중학교	14.5	85.5	83	20.0	80.0	95
당원	당원	11.1	88.9	18	11.1	88.9	18
	비당원	15.0	85.0	107	17.5	82.5	114
통일 희망 정도		2014			2015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10.0	90.0	50	7.0	93.0	57
	여성	17.3	82.7	98	19.1	80.9	89
학력별	대학교	20.0	80.0	20	10.3	89.7	29
	전문학교	3.1	96.9	32	25.0	75.0	24
	고등중학교	14.3	85.7	91	13.5	86.5	89
당원	당원	9.5	90.5	21	11.1	88.9	27
	비당원	15.1	84.9	126	15.3	84.7	118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여성 북한주민들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대학교 이상의 재북학력자들이, 2013년에는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이, 그리고 2015년에는 전문학교 학력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 이후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 조사 이래로 비당원 출신의 북한주민들은 당원 출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표 5-12〉 일본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9.1	90.9	55	10.3	89.7	58
	여성	11.6	88.4	69	4.1	95.9	74
학력별	대학교	30.8	69.2	13	9.5	90.5	21
	전문학교	13.1	87	23	13.3	86.7	15
	고등중학교	6.3	93.8	80	5.3	94.7	95
당원	당원	11.8	88.2	17	16.7	83.3	18
	비당원	10.4	89.6	106	5.3	94.7	114
통일 희망 정도		2014			2015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4.1	95.9	49	8.8	91.2	57
	여성	8.2	91.8	97	8	92	88
학력별	대학교	5	95	20	6.9	93.1	29
	전문학교	3.3	96.7	30	12.5	87.5	24
	고등중학교	6.5	93.5	92	8	92	88
당원	당원	0	100	21	11.1	88.9	27
	비당원	7.3	92.7	124	7.7	92.3	117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은 성별에 차이 없이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는 여성이, 2014년에는 남성이 더 높은 비율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지만 2015년에는 남성은 91.2%, 여성은 92.0%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 이상의 재북 학력자들의 경우 2012년에는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평균(10.8%)보다 현저히 높았지만 2015년에는 6.9%p로 감소하여 전문학교(12.5%), 고등중학교(8.0%) 학력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3년 이후에는 학력과 관계없이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수렴화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에서 당원과 비당원 간의 비율 차이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다시 당원(11.1%), 비당원(7.7%)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당원여부에 큰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원은 평균 90.4%, 비당원은 92.4%가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개별국가들의 통일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항목은 북한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 가운데 어떠한 국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협력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표 5-13〉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2014		2015	
	빈도	%	빈도	%
중국	76	52.8	68	48.6
미국	30	20.8	24	17.1
러시아	5	3.5	8	5.7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3	22.9	40	28.6
합계	144	100.0	140	100.0

북한주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중국으로 응답한 비율은 52.8%, 2015년에는 48.6%로 그 비중이 소폭 하락하긴 하였으나 절반에 가깝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일을 위해 현실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4년 22.9%에서 2015년 28.6%로 증가하였다. 즉 이는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16]

북한의 주요 대외 무역 상대국은 중국, 한국, 일본이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절대적이었다. 한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5.24 조치를 발표하며 사실상

16] 위의 책, p. 133.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였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중경협은 더욱 확대되었고 북·중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되었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북·중경협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한국사람의 응답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76.1%, 72.5%, 60.2%, 67.9%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중경협이 심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5-14〉의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 응답자의 비율이 53.1%였고,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34.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한주민들은 북·중경협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5-14〉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북·중경협 강화	2014		2015	
	빈도	%	빈도	%
매우 바람직하다	50	33.6	38	26.2
바람직한 편이다	34	22.8	39	26.9
우려스러운 편이다	35	23.5	33	22.8
매우 우려스럽다	12	22.9	17	11.7
잘 모르겠다	18	8.1	18	12.4
합계	149	100.0	145	100.0

사실상 5.24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남북경협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북 · 중경협은 북한 대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까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북한 경제를 고려한다면 중국과의 무역은 체제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 · 중경협 확대로 인한 의존성 심화 우려에도 북한에게 북 · 중경협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 및 북 · 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 · 중경협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의식변화의 관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5. 소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함으로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 분단과정과 북한 정권 수립, 그리고 이후의 발전과정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한 인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같은 기간 증가하였다. 남성과 당원 출신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2015년의 경우 재북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 상승의 비율이 컸고 대중친밀도 하락 폭도 컸다. 조사 이후에 발생되었던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향후 북한주민들의 주변국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그동안 증가해왔던 대미위협인식이 2015년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하락하였던 대중위협인식이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대미위협인식의 하락과 대중 위협인식의 증가는 남성에서, 대학 이상의 재북학력자들에서, 그리고 당원출신들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인식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주민은 미국이 중국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의 도움을 더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 · 중경협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이익과 통일의 목표에 있어 중국의 현실적인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주민들은 주변국들이 대체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남북한주민 모두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성별과 학력, 당원 여부에 따라 주변국 인식에서 편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주민 의식이 집단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개인적 인식에 분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별히 북한주민들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은 향후 핵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와 함께 시장화,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중요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제6장 남한사회 적응실태

1. 서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가져온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 상대였고 적대국으로 인식했던 곳으로의 이주이며 분단 이전까지 같은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공유했음에도 제도나 사상이 전혀 다른 곳에서의 정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로의 진입은 이주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체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문명과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빈번히 발생하는 이주나 보편적 인권 차원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와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힘든 탈북과정을 거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이며 당당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남북한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을 고려한다면 본격적인 사회통합 과정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한국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와 지역 단위 공동체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통일평화연구원은 2011년부터 남한에 입국 후 정착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남한사람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사회적응실태 및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해왔다. 남한사회 초기 정착자들에 대한 연구는 북한에서의 인식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 이주 직후의 정서적, 인지적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사람으로서의 남한사회와 남한주민들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정착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자아 정체성 인식들을 누적된 조사결과들을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남한사회의 체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지, 이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과 이를 통한 다양한 차원의 관계 맺음일 것이다. 한국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기대

를 가지고 있느냐는 북한주민들의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2011년에는 91.3%가 남한출신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였고 2012년에는 89.7%, 2013년에는 87.3%, 2014년에는 90.6%, 그리고 2015년에는 91.7%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였다. 즉 북한주민들의 10명 중 9명은 남한주민들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민족적 동질감과 함께 남한주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4.2	35.4	42.9	33.6	39.3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7.1	54.3	44.4	57.0	52.4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7	9.5	12.0	9.4	7.6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	0.8	0.0	0.0	0.7
합계 (N)	104	127	133	149	145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남한주민 응답자의 45.6%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한 반면 나머지 54.4%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다수는 남한주민들을 친근하게 느끼지만, 남한주민의 절반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원인으로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지만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이 현저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주민들의 90%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61.9%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질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남북한주민들 간 서로에 대한 친근감이나 기대함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새롭게 남한사회에 편입하려는 북한주민들의 노력과 남한주민들의 개방적 인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서로에 대한 시각 차이는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입국 전 최초 기대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달라지게 된다. 이주 후 남한주민들과 관계형성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호의와 좌절은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재구성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남북한주민들 간의 가치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나 오해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남한사회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좌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형성에 긴밀히 영향을 준다. 그 반대적인 상황, 즉 남한주민들의 환대와 도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및 동포애로부터

발현되는 긍정적 관계형성은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6-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 북한이탈주민들의 72.6%가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는 79.7%였던 응답률과 비교하면 7.1%p로 낮아졌다.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의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지난 2년 연속 하락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감이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감하는 남한주민들의 포용성은 그만큼 높은 편이 아닐 수 있다.

〈표 6-2〉 남한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포용적이다	27.9	20.6	24.8	24.2	20.5
약간 포용적이다	48.1	50.0	54.9	52.3	52.1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23.1	27.8	19.5	21.5	27.4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1.0	1.6	0.8	2.0	0.0
합계 (N)	104	126	133	149	146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당시 학력, 직업, 당원여부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5년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은 41.4%,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25.0%, 고등중학교 학력자는 24.7%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이상 학력자들의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2013년 13.6%에서 2014년 30.0%, 2015년 41.4%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직업에 따른 뚜렷한 편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군인, 장사, 학생, 노동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원여부에 따르는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5년 당원 출신은 66.7%, 비당원 출신은 73.7%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당원출신이 비당원 출신들에 비해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높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들의 포용적 태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표 6-3〉의 통계는 2015년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57명 중 8명(전체 145명의 5.5%)은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76명 중 25명(전체 145명의 17.2%)도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11명 중 5명(전체의 3.4%)은 남한주민들은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 (2015)

단위: 명(%)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이지 못함	합계
매우 친근함	22(38.6)	27(47.4)	8(14.0)	0(0)	57(100)
다소 친근함	7(9.2)	44(57.9)	25(32.9)	0(0)	76(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5(45.5)	6(54.5)	0(0)	11(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1(100)	0(0)	0(0)	0(0)	1(100)
합계	30(20.7)	76(52.4)	39(26.9)	0(0)	145(100)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사후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면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정착 후 사회적응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근감과 포용성 지표에 대한 수치적 간격이 클수록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불만족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표 6-3〉에서도 남한주민에 대한 높은 친근감을 가졌던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패턴은 최근 2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한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3년 13.8%, 2014년 19.3%, 2015년에는 24.8%로 증가하고 있다.

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주민으로 살아가다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탈북의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북한식 사유방식, 생활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체계를 수용,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문명과 사회발전 과정에서 인간의 이주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 자기정체성의 혼란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17]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는 '탈북자'로 인식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6-4〉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정체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나는 남한사람이다	74.3	64.3	63.9	67.8	68.5
나는 북한사람이다	21.0	31.0	31.6	26.2	26.7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8	4.8	4.5	6.0	4.8
합계 (N)	105	126	133	149	146

17] 박명규 · 정은미 · 송영훈,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145.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6-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나는 남한사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63.9%, 2014년 67.8%, 2015년 68.5%였다. 2014년, 2015년 결과를 놓고 볼 때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2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이미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인식보다 '사회적 옳음'을 준거로 규범적 응답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18]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을 남한주민들의 친근감과 포용성을 통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남한주민들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 중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한 비율은 2014년에는 82.0%, 2015년은 77.2%로 나타났다.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 중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한 비율은 2014년은 62.4%, 2015년은 65.8%였다.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2014년의 86.1%, 2015년 83.3%는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고, 남한주민들이 다소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2014년은 69.2%, 2015년은 61.8%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한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친근감이 높은 사람들과 남한사회가 자신들에게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들어 주목할 점은 남한사람들이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남한사람들이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 37.1%에서 2015년 70.0%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 비율은 37.1%에서 27.5%로 감소하였다. 즉 남한사회에서 상대적 소외나 실망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신을 북한사람이 아닌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정에서 경험되는 일종의 비포용성과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간격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모두에게 '한국사람'으로서의 동화된 정체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남한사회가 포용적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남한사회 혹 남한사람에 대한 실망감에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정체성을 갖고 싶은 희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주민들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람들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람들의 포용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인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다. 남한주민들과의 관계맺음, 경제활동, 직업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18] 위의 책, p. 146.

기대감이 충족감 혹은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만족감이 클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 경제·사회활동 참여의 동기부여가 되며 남한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지만, 상실감이 클 경우 탈북에 대한 회의감, 자기존중감 상실, 정체성 혼란, 남한사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갖는 기대감과 현실의 상실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응답자의 79.5%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4.1%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2년 동안의 추세에서 큰 변화는 발견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표 6-5〉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매우 만족한다	38.6	44.4	38.9	41.8
대체로 만족한다	33.9	34.6	41.6	37.7
보통이다	25.2	18.1	15.4	16.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4	2.3	2.0	4.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2.0	0.0
합계 (N)	127	133	149	146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인 생활의 만족여부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별개일 수 있다. 〈표 6-6〉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응답자의 89.0%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2.1%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2년 43.3%, 2013년 55.6%, 2014년 56.8%, 2015년 65.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6-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매우 만족한다	43.3	55.6	56.8	65.8
대체로 만족한다	42.5	31.6	31.1	23.3
보통이다	11.0	11.3	8.8	8.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1	0.8	2.0	1.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1.4	0.7
합계 (N)	127	133	148	146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 남한에서의 높은 생활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거와 교육지원, 취업알선, 적응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기본적인 정착을 도울 뿐이지 개인의 자립을 보장해 줄 수 없

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노력,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함께 요구되는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경제적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직 혹은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소비활동을 하는 것은 남한사회에 적응과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형태를 파악해본 결과 정규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비경제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에서 나타나듯이 1년 이상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4.5%, 2012년 33.1%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9.0%, 2014년 9.5%, 그리고 2015년 3.4%로 하락하였다. 직장이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52.1%에서 2012년 49.6%로 하락하였지만 2013년 55.6%, 2014년 64.2%, 2015년 6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단위: %

취업형태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근로자	24.5	33.1	9.0	9.5	3.4
계약직 근로자	4.3	1.7	3.8	6.8	2.7
일용직 근로자	11.7	5.0	9.0	4.7	6.8
고용자	1.1	0.0	0.0	0.0	0.7
자영업자	3.2	2.5	0.8	0.7	1.4
실업자	3.2	8.3	21.8	14.2	15.1
비경제활동인구	52.1	49.6	55.6	64.2	69.9
합계 (N)	94	121	133	148	146

북한이탈주민들의 학력별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대학교 학력 이상 학력자들의 정규직 비율은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에 비해 낮았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조사결과 대학교 학력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89.6%,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70.8%,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은 86.5%이었다. 북한에서의 고학력 출신 이탈주민들의 낮은 정규직 비율과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심리적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 궁극적인 자립과 자활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정규직화는 남한사회의 불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 및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수요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된 맞춤식 일자리 창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실업난과 비정규직화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취업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 형평성 및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회통합과정에서의 기여뿐 아니라 경제성장 촉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19]

최근 북한에서의 장마당 확산, 북·중간 무역 확대 등으로 사적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서 장사경험이 있던 사람들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4년, 2015년 모두 장사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비율보다 높았다. 2015년의 경우 장사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비율은 27.8%였으며 장사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사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적 비율은 현저히 높다. 2014년에는 74.8%, 2015년에는 72.2%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장사경험이 있음에도 자신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대답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생계 위주의 장사경험이 남한사회에서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한사회에서의 취업은 새로운 학습과정을 요구하며 남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경쟁력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단기간의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장기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 정진화 · 손상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 9.

4. 소결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으며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남한주민들에 대한 높은 친근감에 비해 남한주민들의 포용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사람들이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북한사람이 아닌 남한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남한사람들에 대한 실망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수용과 대등한 정체성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사 참여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취업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취업상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경제적 자립,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남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직업, 전문성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의지를 한국 사회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한 남한주민들의 포용적 태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심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과 이질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결장

제7장 결장

2015년 북한주민의 의식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01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합의식의 패턴이 확인된다. 통일에 대하여, 남한에 대하여,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주변국에 대하여 각기 북한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이다. 전체주의적인 통제, 교육 및 직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상교화와 집단주의 원리가 북한주민에게 단일한 이념적 논리를 주입시킨 탓이 크다. 동시에 외부세계와의 접촉기회가 거의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것이 철저하게 억압된 까닭에 기존의 사고유형이 '정답'의 형태로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세대 간, 계층 간, 정치집단 간 견해차가 뚜렷하여 남남갈등을 우려할 정도인 남한에 비해 북한주민의 의식이 훨씬 더 동질적이고 규범적인 것은 예상한대로다. 다만 남북관계, 통일, 민족정서 등의 차원에서는 남북한에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1. 통일의식: 도구적 기대감과 신중함

먼저 통일과 관련한 북한주민의 의식을 보면, 첫째로 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생각하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그러나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더욱 뚜렷해졌다.

둘째, 현실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 통일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두 이유의 응답률 격차는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유보다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다. 응답 결과만으로 보면, 통일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 개인에게 '대박'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통일 후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 가까이 통일 후 남북한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통일 후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북한 주민 역시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일 후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현 남한사회가 이상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하기를 원하는 응답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남한체제로의 통일을 선택했다. 또한, 통일 후에도 남한지역에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이고, 나머지의 응답자들은 북한지역을 선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선택을 유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북한주민에게 남한사회가 미치는 통일의 유인력(誘因力)이 아직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인식에서도 세대 간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5년~1998년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춘기를 보냈던 현재 30대의 응답자들은 여러 항목들에서 고령층(60대 이상)과 다른 응답 태도를 보였다. 30대의 경우 북한주민이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뚜렷하였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30대에 국가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동체적 유대의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통일 이후에 남북한주민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는 응답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60대 이상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통일의 예상 시기에서도 20대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에서 세대 변인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후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세대 통합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대남인식: 긍정적 이미지와 이질화

2015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지난 1년 사이에 3.7%p 감소한 반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인식은 6.6%p 증가하였다.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도 소폭(4.4%p) 낮아졌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호전되고 안보불안감도 완화된 것은 3차 핵실험 이후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하던 시기를 벗어나 남북 스포츠 교류와 북한 고위층의 방안으로 화해국면이 조성되었고 분단·광복 70년을 맞아 관계개선의 대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남 인지도는 평균 73.6%로 높은 편이며 작년에 64%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상승하였고,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효용성도 각각 4.7%p, 17.2%p가 상승하였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7:3으로 지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하였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는 10%가량 줄어들었다. 북한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외부지원에 대한 북한 내부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은 62.3%로 매우 높으며, '적'이라는 의식(16.4%)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물론 이러한 수치도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선호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나, 적대의식보다 협력의

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상호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 역시 매우 크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2011~2015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종 모양 혹은 포물선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 독특한 의식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호의적 대남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 20대 젊은층으로 내려갈수록 적대적 대남의식이 강하며, 마찬가지로 60대로 올라갈수록 적대적 대남의식이 높아진다. 20대 젊은층이 남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마당 세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난의 행군 세대'의 의식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호의적 대남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교류와 북한 시장화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생활상태: 변화, 통제, 불안

2015년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8%가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절대다수가 공식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76.3%가 장사나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비율은 전년에 비해 7.5%p가 상승한 것이다. 장사나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16.4%나 되고, 주민의 절반 정도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극빈층이 지난 1년 사이 22.9%→16.4%로 감소하여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적정소득은 더 빨리 높아져 주민의 실질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사회통제는 지난 1년 사이에 매우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생활총화 참여율은 늘지 않았고 주민 유동성과 한류접촉 경험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정부에 대한 비판낙서나 삐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도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태도가 1:9 정도로 압도적이고 북한정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장기유지론에서 단기붕괴론 쪽으로 소폭 이동하는 모습이다. 시장화의 증대

와 함께 생활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도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2.7%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도 58.1%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 사이 주민들의 사상의식과 정권지지도가 소폭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정치사상 의식은 한편으로는 북한당국의 선전선동 및 조직 활동 등 북한당국의 정치 · 사회적 통제와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건설사업과 경제생활 향상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각종 건설사업과 식생활 부문을 부각하며 인민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정치사회 의식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대외인식에서는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기본 패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분단과정과 북한 정권 수립, 그리고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집합의식이 2015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다만 유의미한 변화도 감지되는데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보이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소폭 하락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물론 중국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중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발생한 남북관계의 긴장과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상황은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을 어렵게 한다. 앞으로 북한은 2016년 5월에 진행될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인민생활향상'을 통해 주민결속을 증진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정치사회 의식이 2016년에 호전될 가능성은 이런 점에서 높지 않아 보인다.

부록

집계표 2015

설문지 2015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96.6%(141)	1.4%(2)	1.4%(2)	0.7%(1)	0.0%(0)
성별	남자	0.0	96.5	1.8	1.8	0.0	0.0
	여자	0.0	96.6	1.1	1.1	1.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97.7	0.0	0.0	2.3	0.0
	30대	0.0	93.3	2.2	4.4	0.0	0.0
	40대	0.0	100.0	0.0	0.0	0.0	0.0
	50대	0.0	93.8	6.3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93.1	3.4	3.4	0.0	0.0
	전문학교	0.0	100.0	0.0	0.0	0.0	0.0
	고등중학교	0.0	97.8	1.1	1.1	0.0	0.0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6.2	0.0	3.8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96.6	1.7	0.8	0.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7.3	0.9	1.8	0.0	0.0
	없다	0.0	94.1	2.9	0.0	2.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6.4	0.0	3.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8.8	1.3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1.9	2.7	2.7	2.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96.5	2.4	0.0	1.2	0.0
	없다	0.0	96.7	0.0	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6.5	1.8	0.0	1.8	0.0
	결혼(동거 포함)	0.0	95.2	1.6	3.2	0.0	0.0
	이혼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의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89.7%(131)	7.5%(11)	2.7%(4)	0.0%(0)
성별	남자	0.0	87.7	7.0	5.3	0.0
	여자	0.0	91.0	7.9	1.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79.5	13.6	6.8	0.0
	30대	0.0	95.6	2.2	2.2	0.0
	40대	0.0	100.0	0.0	0.0	0.0
	50대	0.0	75.0	25.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86.2	13.8	0.0	0.0
	전문학교	0.0	91.7	8.3	0.0	0.0
	고등중학교	0.0	91.0	4.5	4.5	0.0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2.3	7.7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89.0	7.6	3.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2.0	6.3	1.8	0.0
	없다	0.0	82.4	11.8	5.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2.9	3.6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8.8	7.5	3.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9.2	10.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88.2	8.2	3.5	0.0
	없다	0.0	91.8	6.6	1.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86.0	8.8	5.3	0.0
	결혼(동거 포함)	0.0	90.3	8.1	1.6	0.0
	이혼	0.0	96.2	3.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통일 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1.4%(2)	1.4%(2)	27.4%(40)	3.4%(5)	8.2%(12)	46.6%(68)	9.6%(14)	2.1%(3)
성별	남자	1.8	0.0	29.8	0.0	10.5	42.1	14.0	1.8
	여자	1.1	2.2	25.8	5.6	6.7	49.4	6.7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0.0	0.0
	20대	2.3	0.0	18.2	2.3	9.1	59.1	6.8	2.3
	30대	0.0	2.2	31.1	2.2	2.2	40.0	22.2	0.0
	40대	0.0	2.7	40.5	5.4	10.8	35.1	2.7	2.7
	50대	6.3	0.0	12.5	6.3	6.3	62.5	0.0	6.3
	60대	0.0	0.0	33.3	0.0	33.3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3.4	24.1	6.9	3.4	48.3	13.8	0.0
	전문학교	4.2	0.0	33.3	0.0	8.3	41.7	12.5	0.0
	고등중학교	1.1	1.1	25.8	3.4	9.0	48.3	7.9	3.4
	인민학교	0.0	0.0	33.3	0.0	33.3	33.3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3.8	0.0	34.6	0.0	3.8	46.2	11.5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8	1.7	25.4	4.2	9.3	46.6	9.3	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8	1.8	26.8	3.6	6.3	45.5	11.6	2.7
	없다	0.0		29.4	2.9	14.7	50.0	2.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32.1	3.6	7.1	35.7	14.3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1.3	27.5	3.8	7.5	47.5	10.0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24.3	2.7	10.8	51.4	5.4	2.7
	무응답	0.0	0.0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25.9	2.4	9.4	49.4	8.2	3.5
	없다	1.6	3.3	29.5	4.9	6.6	42.6	11.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22.8	5.3	10.5	50.9	7.0	1.8
	결혼(동거 포함)	1.6	3.2	32.3	1.6	8.1	41.9	9.7	1.6
	이혼	0.0	0.0	26.9	3.8	3.8	46.2	15.4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0.7%(1)	11.0%(16)	30.1%(44)	6.8%(10)	2.1%(3)	6.2%(9)	43.2%(63)
성별	남자	0.0	8.8	35.1	7.0	1.8	10.5	35.1
	여자	0.0	12.4	27.0	6.7	2.2	3.4	48.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4.5	36.4	11.4	6.8	6.8	34.1
	30대	0.0	13.3	31.1	4.4	0.0	6.7	44.4
	40대	0.0	18.9	21.6	5.4	0.0	2.7	51.4
	50대	0.0	6.3	25.0	6.3	0.0	12.5	43.8
	60대	0.0	0.0	33.3	0.0	0.0	0.0	66.7
학력	대학교	0.0	6.9	31.0	10.3	3.4	6.9	41.4
	전문학교	0.0	4.2	25.0	8.3	0.0	16.7	41.7
	고등중학교	0.0	14.6	31.5	4.5	2.2	3.4	43.8
	인민학교	0.0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1.5	26.9	7.7	0.0	7.7	46.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11.0	31.4	6.8	2.5	5.9	4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14.3	30.4	5.4	2.7	6.3	40.2
	없다	0.0	0.0	29.4	11.8	0.0	5.9	5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4.3	28.6	3.6	7.1	7.1	3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5	30.0	8.8	1.3	6.3	4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2	32.4	5.4	0.0	5.4	3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7.1	25.9	4.7	2.4	7.1	51.8
	없다	0.0	16.4	36.1	9.8	1.6	4.9	3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2.3	33.3	8.8	5.3	7.0	33.3
	결혼(동거 포함)	0.0	8.1	29.0	6.5	0.0	6.5	48.4
	이혼	0.0	11.5	26.9	3.8	0.0	3.8	53.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

문5)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0.0%(0)	85.6%(125)	12.3%(18)	1.4%(2)	0.7%(1)
성별	남자	0.0	0.0	82.5	15.8	1.8	0.0
	여자	0.0	0.0	87.6	10.1	1.1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0.0	79.5	15.9	4.5	0.0
	30대	0.0	0.0	82.2	17.8	0.0	0.0
	40대	0.0	0.0	97.3	2.7	0.0	0.0
	50대	0.0	0.0	81.3	12.5	0.0	6.3
	60대	0.0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89.7	6.9	0.0	3.4
	전문학교	0.0	0.0	79.2	20.8	0.0	0.0
	고등중학교	0.0	0.0	86.5	12.4	1.1	0.0
	인민학교	0.0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있다	0.0	0.0	90.2	8.9	0.0	0.9
	없다	0.0	0.0	70.6	23.5	5.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92.9	7.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3.8	15.0	1.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83.8	10.8	2.7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81.2	15.3	2.4	1.2
	없다	0.0	0.0	91.8	8.2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82.5	15.8	1.8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88.7	8.1	1.6	1.6
	이혼	0.0	0.0	84.6	15.4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0)	0.0%(0)	93.8%(137)	5.35%(8)	0.0%(0)	0.7%(1)
성별	남자	0.0	0.0	93.0	7.0	0.0	0.0
	여자	0.0	0.0	94.4	4.5	0.0	1.1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0.0	90.9	9.1	0.0	0.0
	30대	0.0	0.0	97.8	2.2	0.0	0.0
	40대	0.0	0.0	97.3	2.7	0.0	0.0
	50대	0.0	0.0	87.5	6.3	0.0	6.3
	60대	0.0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96.6	0.0	0.0	3.4
	전문학교	0.0	0.0	87.5	12.5	0.0	0.0
	고등중학교	0.0	0.0	94.4	5.6	0.0	0.0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96.2	3.8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0.0	93.2	5.9	0.0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0	93.8	5.4	0.0	0.9
	없다	0.0	0.0	94.1	5.9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96.4	3.6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92.5	7.5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94.6	2.7	0.0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92.9	5.9	0.0	1.2
	없다	0.0	0.0	95.1	4.9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94.7	5.3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0.0	91.9	6.5	0.0	1.6
	이혼	0.0	0.0	96.2	3.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0)	47.9%(70)	31.5 %(46)	9.6 %(14)	4.1%(6)	6.8 %(10)
성별	남자	0.0	36.8	33.3	10.5	7.0	12.3
	여자	0.0	55.1	30.3	9.0	2.2	3.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	0.0	0.0	0.0	100.0	0.0	0.0
	20	0.0	34.1	40.9	11.4	2.3	11.4
	30	0.0	55.6	24.4	11.1	4.4	4.4
	40	0.0	51.4	29.7	8.1	8.1	2.7
	50	0.0	62.5	31.3	0.0	0.0	6.3
	60	0.0	33.3	33.3	0.0	0.0	33.3
학력	대학교	0.0	37.9	31.0	13.8	10.3	6.9
	전문학교	0.0	62.5	25.0	8.3	0.0	4.2
	고등중학교	0.0	46.1	33.7	9.0	3.4	7.9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3	34.6	3.8	11.5	7.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0.0	30.5	11.0	2.5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9.1	32.1	8.9	4.5	5.4
	없다	0.0	44.1	29.4	11.8	2.9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32.1	10.7	0.0	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5.0	32.5	10.0	5.0	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1.4	29.7	8.1	5.4	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3.5	36.5	8.2	2.4	9.4
	없다	0.0	54.1	24.6	11.5	6.6	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49.1	28.1	12.3	1.8	8.8
	결혼(동거 포함)	0.0	43.5	33.9	9.7	6.5	6.5
	이혼	0.0	53.8	34.6	3.8	3.8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0)	73.3%(107)	14.4%(21)	5.5%(8)	2.7%(4)	4.1%(6)
성별	남자	0.0	63.2	17.5	7.0	5.3	7.0
	여자	0.0	79.8	12.4	4.5	1.1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68.2	15.9	6.8	2.3	6.8
	30대	0.0	68.9	20.0	6.7	4.4	0.0
	40대	0.0	78.4	10.8	5.4	0.0	5.4
	50대	0.0	81.3	6.3	0.0	6.3	6.3
	6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9.0	17.2	6.9	0.0	6.9
	전문학교	0.0	83.3	8.3	4.2	4.2	0.0
	고등중학교	0.0	73.0	15.7	4.5	3.4	3.4
	인민학교	0.0	33.3	0.0	33.3	0.0	33.3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7.7	19.2	11.5	7.7	3.8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76.3	13.6	4.2	1.7	4.2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75.9	13.4	3.6	3.6	3.6
	없다	0.0	64.7	17.6	11.8	0.0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1.4	17.9	3.6	3.6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0.0	13.8	2.5	1.3	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9.5	13.5	13.5	5.4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72.9	12.9	5.9	3.5	4.7
	없다	0.0	73.8	16.4	4.9	1.6	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70.2	17.5	7.0	0.0	5.3
	결혼(동거 포함)	0.0	75.8	12.9	4.8	4.8	1.6
	이혼	0.0	73.1	11.5	3.8	3.8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0)	28.8%(42)	25.3%(37)	11.0%(16)	24.0%(35)	11.0%(16)
성별	남자	0.0	24.6	17.5	10.5	24.6	22.8
	여자	0.0	31.5	30.3	11.2	23.6	3.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20.5	38.6	9.1	20.5	11.4
	30대	0.0	20.0	17.8	15.6	33.3	13.3
	40대	0.0	45.9	18.9	10.8	18.9	5.4
	50대	0.0	37.5	12.5	6.3	25.0	18.8
	60대	0.0	33.3	66.7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24.1	24.1	13.8	27.6	10.3
	전문학교	0.0	29.2	20.8	0.0	41.7	8.3
	고등중학교	0.0	29.2	27.0	13.5	18.0	12.4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6.9	23.1	19.2	11.5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29.7	26.3	8.5	27.1	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1.3	22.3	13.4	22.3	10.7
	없다	0.0	20.6	35.3	2.9	29.4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9.3	32.1	7.1	14.3	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8	23.8	11.3	27.5	1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4	24.3	13.5	21.6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9.4	25.9	11.8	20.0	12.9
	없다	0.0	27.9	24.6	9.8	29.5	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1.6	29.8	7.0	22.8	8.8
	결혼(동거 포함)	0.0	25.8	22.6	12.9	25.8	12.9
	이혼	0.0	26.9	23.1	15.4	23.1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0)	41.1%(60)	14.4%(21)	10.3%(15)	21.2 %(31)	13.0%(19)
성별	남자	0.0	33.3	14.0	10.5	26.3	15.8
	여자	0.0	46.1	14.6	10.1	18.0	1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34.1	20.5	15.9	20.5	9.1
	30대	0.0	31.1	11.1	13.3	28.9	15.6
	40대	0.0	51.4	13.5	2.7	21.6	10.8
	50대	0.0	56.3	12.5	0.0	6.3	25.0
	6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7.9	10.3	17.2	20.7	13.8
	전문학교	0.0	41.7	0.0	16.7	25.0	16.7
	고등중학교	0.0	41.6	20.2	5.6	20.2	12.4
	인민학교	0.0	33.3	0.0	33.3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6.9	19.2	15.4	26.9	11.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44.9	13.6	8.5	20.3	1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4.6	14.3	8.9	18.8	13.4
	없다	0.0	29.4	14.7	14.7	29.4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3.6	3.6	25.0	7.1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7.5	18.8	3.8	26.3	1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0.5	13.5	13.5	18.9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4.7	14.1	5.9	24.7	10.6
	없다	0.0	36.1	14.8	16.4	16.4	16.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8.6	15.8	14.0	19.3	12.3
	결혼(동거 포함)	0.0	41.9	11.3	11.3	22.6	12.9
	이혼	0.0	42.3	19.2	0.0	23.1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45.2%(66)	24.0%(35)	19.2%(28)	11.6%(17)
성별	남자	0.0	22.8	31.6	28.1	17.5
	여자	0.0	59.6	19.1	13.5	7.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54.5	25.0	15.9	4.5
	30대	0.0	26.7	31.1	24.4	17.8
	40대	0.0	51.4	13.5	18.9	16.2
	50대	0.0	50.0	25.0	18.8	6.3
	60대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17.2	41.4	27.6	13.8
	전문학교	0.0	41.7	29.2	20.8	8.3
	고등중학교	0.0	53.9	16.9	16.9	12.4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0.8	26.9	26.9	15.4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48.3	22.9	17.8	11.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7.3	22.3	20.5	9.8
	없다	0.0	38.2	29.4	14.7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3.6	10.7	17.9	17.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2.5	28.7	18.8	1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3.2	24.3	21.6	10.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7.1	24.7	15.3	12.9
	없다	0.0	42.6	23.0	24.6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0.9	26.3	14.0	8.8
	결혼(동거 포함)	0.0	40.3	22.6	21.0	16.1
	이혼	0.0	42.3	23.1	26.9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50.7%(74)	31.5%(46)	11.0%(16)	6.8%(10)
성별	남자	0.0	38.6	36.8	12.3	12.3
	여자	0.0	58.4	28.1	10.1	3.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56.8	36.4	4.5	2.3
	30대	0.0	40.0	37.8	20.0	2.2
	40대	0.0	56.8	18.9	8.1	16.2
	50대	0.0	37.5	37.5	12.5	12.5
	6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1.4	37.9	17.2	3.4
	전문학교	0.0	50.0	33.3	4.2	12.5
	고등중학교	0.0	53.9	28.1	11.2	6.7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3	34.6	15.4	7.7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3.4	30.5	10.2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51.8	31.3	11.6	5.4
	없다	0.0	47.1	32.4	8.8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25.0	14.3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1.2	33.8	10.0	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6	32.4	10.8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9.4	27.1	15.3	8.2
	없다	0.0	52.5	37.7	4.9	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4.4	29.8	12.3	3.5
	결혼(동거 포함)	0.0	50.0	32.3	9.7	8.1
	이혼	0.0	42.3	34.6	11.5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49.3 %(72)	28.8 %(42)	13.0 %(19)	8.9 %(13)
성별	남자	0.0	33.3	28.1	22.8	15.8
	여자	0.0	59.6	29.2	6.7	4.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61.4	25.0	11.4	2.3
	30대	0.0	37.8	35.6	17.8	8.9
	40대	0.0	56.8	18.9	10.8	13.5
	50대	0.0	31.3	37.5	12.5	18.8
	60대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37.9	27.6	27.6	6.9
	전문학교	0.0	29.2	50.0	8.3	12.5
	고등중학교	0.0	56.2	24.7	10.1	9.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4.6	23.1	30.8	11.5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53.4	28.8	9.3	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8.2	27.7	15.2	8.9
	없다	0.0	52.9	32.4	5.9	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9.3	32.1	14.3	1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5	31.3	13.8	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9.5	21.6	10.8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50.6	25.9	14.1	9.4
	없다	0.0	47.5	32.8	11.5	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4.4	26.3	14.0	5.3
	결혼(동거 포함)	0.0	41.9	35.5	9.7	12.9
	이혼	0.0	53.8	19.2	19.2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51.4%(75)	28.1%(41)	10.3%(15)	10.3%(15)
성별	남자	0.0	33.3	29.8	17.5	19.3
	여자	0.0	62.9	27.0	5.6	4.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50.0	29.5	13.6	6.8
	30대	0.0	35.6	35.6	15.6	13.3
	40대	0.0	67.6	21.6	2.7	8.1
	50대	0.0	56.3	18.8	6.3	18.8
	6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1.4	31.0	17.2	10.3
	전문학교	0.0	33.3	45.8	12.5	8.3
	고등중학교	0.0	57.3	23.6	7.9	11.2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5	30.8	15.4	15.4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55.1	26.3	9.3	9.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50.9	29.5	9.8	9.8
	없다	0.0	52.9	23.5	11.8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2.9	35.7	7.1	1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2.5	30.0	7.5	1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1	18.9	18.9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51.8	25.9	11.8	10.6
	없다	0.0	50.8	31.1	8.2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2.6	24.6	12.3	10.5
	결혼(동거 포함)	0.0	48.4	32.3	11.3	8.1
	이혼	0.0	53.8	26.9	3.8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0.0%(0)	3.4%(5)	17.1%(25)	6.8%(10)	48.6%(71)	24.0%(35)
성별	남자	0.0	3.5	15.8	7.0	56.1	17.5
	여자	0.0	3.4	18.0	6.7	43.8	2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6.8	18.2	6.8	56.8	11.4
	30대	0.0	0.0	11.1	6.7	57.8	24.4
	40대	0.0	2.7	13.5	5.4	45.9	32.4
	50대	0.0	6.3	25.0	12.5	18.8	37.5
	60대	0.0	0.0	66.7	0.0	0.0	33.3
학력	대학교	0.0	0.0	10.3	6.9	51.7	31.0
	전문학교	0.0	4.2	29.2	12.5	33.3	20.8
	고등중학교	0.0	3.4	15.7	4.5	53.9	22.5
	인민학교	0.0	33.3	0.0	33.3	0.0	33.3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9.2	3.8	46.2	30.8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4.2	16.9	7.6	48.3	2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6	16.1	5.4	48.2	26.8
	없다	0.0	2.9	20.6	11.8	50.0	14.7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21.4	10.7	39.3	25.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5	16.3	7.5	47.5	2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16.2	2.7	59.5	18.9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	18.8	9.4	49.4	21.2
	없다	0.0	6.6	14.8	3.3	47.5	27.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3	19.3	5.3	52.6	17.5
	결혼(동거 포함)	0.0	1.6	12.9	6.5	46.8	32.3
	이혼	0.0	3.8	23.1	11.5	42.3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유대감

문16)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0.0%(0)	32.9%(48)	52.1%(76)	13.0%(19)	2.1%(3)
성별	남자	0.0	22.8	52.6	19.3	5.3
	여자	0.0	39.3	51.7	9.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22.7	56.8	18.2	2.3
	30대	0.0	35.6	51.1	11.1	2.2
	40대	0.0	40.5	48.6	8.1	2.7
	50대	0.0	37.5	43.8	18.8	0.0
	60대	0.0	33.3	66.7	0.0	0.0
학력	대학교	0.0	31.0	55.2	13.8	0.0
	전문학교	0.0	50.0	37.5	8.3	4.2
	고등중학교	0.0	30.3	52.8	14.6	2.2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6.9	53.8	15.4	3.8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4.7	50.8	12.7	1.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4.8	51.8	11.6	1.8
	없다	0.0	26.5	52.9	17.6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5.7	50.0	10.7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0.0	56.3	11.3	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7.8	43.2	18.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31.8	49.4	16.5	2.4
	없다	0.0	34.4	55.7	8.2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6.3	56.1	15.8	1.8
	결혼(동거 포함)	0.0	32.3	56.5	11.3	0.0
	이혼	0.0	46.2	34.6	11.5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7)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0%(0)	26.7%(39)	48.6%(71)	21.9%(32)	2.7%(4)
성별	남자	0.0	36.8	43.9	15.8	3.5
	여자	0.0	20.2	51.7	25.8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15.9	54.5	25.0	4.5
	30대	0.0	35.6	44.4	17.8	2.2
	40대	0.0	27.0	56.8	13.5	2.7
	50대	0.0	31.3	31.3	37.5	0.0
	60대	0.0	33.3	33.3	33.3	0.0
학력	대학교	0.0	24.1	58.6	17.2	0.0
	전문학교	0.0	29.2	45.8	25.0	0.0
	고등중학교	0.0	28.1	46.1	21.3	4.5
	인민학교	0.0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2.3	34.6	19.2	3.8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22.0	52.5	22.9	2.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1.3	48.2	19.6	0.9
	없다	0.0	11.8	50.0	29.4	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6.4	32.1	21.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5.0	50.0	21.3	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2	59.5	21.6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3.5	50.6	23.5	2.4
	없다	0.0	31.1	45.9	19.7	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9.3	45.6	29.8	5.3
	결혼(동거 포함)	0.0	35.5	48.4	16.1	0.0
	이혼	0.0	23.1	53.8	19.2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對 남한 인식

문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 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0.7 %(1)	0.0%(0)	6.8%(10)	62.3%(91)	5.5%(8)	8.2%(12)	16.4 %(24)
성별	남자	1.8	0.0	8.8	61.4	3.5	8.8	15.8
	여자	0.0	0.0	5.6	62.9	6.7	7.9	1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0.0	4.5	54.5	9.1	9.1	22.7
	30대	0.0	0.0	4.4	62.2	6.7	8.9	17.8
	40대	0.0	0.0	10.8	67.6	2.7	8.1	10.8
	50대	6.3	0.0	12.5	68.8	0.0	0.0	12.5
	60대	0.0	0.0	0.0	66.7	0.0	33.3	0.0
학력	대학교	0.0	0.0	6.9	75.9	3.4	3.4	10.3
	전문학교	4.2	0.0	20.8	58.3	0.0	8.3	8.3
	고등중학교	0.0	0.0	3.4	60.7	6.7	9.0	20.2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1.5	65.4	3.8	7.7	11.5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8	0.0	5.9	61.0	5.9	8.5	1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0.0	7.1	66.1	5.4	4.5	16.1
	없다	0.0	0.0	5.9	50.0	5.9	20.6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7.1	57.1	7.1	0.0	2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6.3	66.3	3.8	10.0	1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8.1	59.5	5.4	10.8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4.7	58.8	3.5	10.6	21.2
	없다	0.0	0.0	9.8	67.2	8.2	4.9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5.3	61.4	7.0	5.3	21.1
	결혼(동거 포함)	1.6	0.0	9.7	58.1	6.5	12.9	11.3
	이혼	0.0	0.0	3.8	73.1	0.0	3.8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4.19 혁명

문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4%(2)	0.0%(0)	20.5%(3)	19.9%(29)	26.7%(39)	31.5%(46)
성별	남자	0.0	0.0	35.1	22.8	22.8	19.3
	여자	2.2	0.0	11.2	18.0	29.2	39.3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9.1	22.7	25.0	43.2
	30대	2.2	0.0	22.2	15.6	28.9	31.1
	40대	2.7	0.0	24.3	18.9	24.3	29.7
	50대	0.0	0.0	31.3	31.3	31.3	6.3
	60대	0.0	0.0	66.7	0.0	0.0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51.7	20.7	17.2	10.3
	전문학교	0.0	0.0	29.2	8.3	37.5	25.0
	고등중학교	2.2	0.0	9.0	20.2	28.1	40.4
	인민학교	0.0	0.0	0.0	66.7	0.0	33.3
	무학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0.8	19.2	26.9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1.7	0.0	18.6	20.3	27.1	3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1.8	0.0	22.3	17.0	25.9	33.0
	없다	0.0	0.0	14.7	29.4	29.4	2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21.4	21.4	21.4	32.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0.0	23.8	15.0	31.3	2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3.5	27.0	21.6	3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20.0	21.2	25.9	31.8
	없다	1.6	0.0	21.3	18.0	27.9	3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14.0	21.1	21.1	42.1
	결혼(동거 포함)	0.0	0.0	24.2	21.0	30.6	24.2
	이혼	3.8	0.0	26.9	15.4	26.9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5.18 광주항쟁

문2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7%(1)	0.7%(1)	35.6%(52)	27.4%(40)	21.2%(31)	14.4%(21)
성별	남자	0.0	1.8	47.4	33.3	12.3	5.3
	여자	1.1	0.0	28.1	23.6	27.0	20.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0.0	20.5	29.5	27.3	22.7
	30대	2.2	0.0	33.3	26.7	28.9	8.9
	40대	0.0	0.0	48.6	27.0	8.1	16.2
	50대	0.0	6.3	50.0	25.0	12.5	6.3
	60대	0.0	0.0	66.7	0.0	33.3	0.0
학력	대학교	0.0	0.0	69.0	20.7	10.3	0.0
	전문학교	0.0	4.2	37.5	29.2	25.0	4.2
	고등중학교	1.1	0.0	25.8	28.1	24.7	20.2
	인민학교	0.0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30.8	19.2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0.8	33.1	27.1	22.0	16.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9	0.9	37.5	26.8	19.6	14.3
	없다	0.0	0.0	29.4	29.4	26.5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42.9	21.4	17.9	1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41.3	31.3	15.0	1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18.9	24.3	37.8	1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	30.6	30.6	24.7	12.9
	없다	1.6	0.0	42.6	23.0	16.4	16.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22.8	33.3	21.1	21.1
	결혼(동거 포함)	0.0	1.6	41.9	22.6	22.6	11.3
	이혼	0.0	0.0	46.2	26.9	19.2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88 서울올림픽

문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4%(2)	0.0%(0)	13.0%(19)	23.3%(34)	32.9%(48)	29.5%(43)
성별	남자	0.0	0.0	24.6	29.8	31.6	14.0
	여자	2.2	0.0	5.6	19.1	33.7	39.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15.9	11.4	45.5	27.3
	30대	2.2	0.0	6.7	28.9	33.3	28.9
	40대	2.7	0.0	18.9	29.7	16.2	32.4
	50대	0.0	0.0	6.3	31.3	37.5	25.0
	60대	0.0	0.0	33.3	0.0	0.0	66.7
학력	대학교	0.0	0.0	27.6	37.9	24.1	10.3
	전문학교	0.0	0.0	4.2	25.0	41.7	29.2
	고등중학교	2.2	0.0	11.2	18.0	32.6	36.0
	인민학교	0.0	0.0	0.0	0.0	66.7	33.3
	무학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8.5	15.4	30.8	15.4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7	0.0	7.6	24.6	33.1	3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1.8	0.0	13.4	20.5	33.9	30.4
	없다	0.0	0.0	11.8	32.4	29.4	2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7.1	25.0	35.7	2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0.0	16.3	23.8	32.5	2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0.8	21.6	29.7	3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12.9	23.5	28.2	34.1
	없다	1.6	0.0	13.1	23.0	39.3	2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14.0	22.8	38.6	22.8
	결혼(동거 포함)	0.0	0.0	12.9	25.8	30.6	30.6
	이혼	3.8	0.0	11.5	15.4	26.9	4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2002 월드컵

문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2.7%(4)	0.0%(0)	8.9%(13)	27.4%(40)	30.8%(45)	30.1%(44)
성별	남자	1.8	0.0	21.1	36.8	22.8	17.5
	여자	3.4	0.0	1.1	21.3	36.0	3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4.5	34.1	29.5	31.8
	30대	2.2	0.0	8.9	26.7	40.0	22.2
	40대	5.4	0.0	13.5	27.0	18.9	35.1
	50대	6.3	0.0	6.3	18.8	31.3	37.5
	60대	0.0	0.0	33.3	0.0	33.3	33.3
학력	대학교	0.0	0.0	17.2	34.5	37.9	10.3
	전문학교	4.2	0.0	4.2	29.2	37.5	25.0
	고등중학교	3.4	0.0	7.9	24.7	27.0	37.1
	인민학교	0.0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4.6	19.2	26.9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3.4	0.0	3.4	29.7	31.4	3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3.6	0.0	10.7	23.2	33.9	28.6
	없다	0.0	0.0	2.9	41.2	20.6	35.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10.7	25.0	32.1	2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	0.0	10.0	30.0	27.5	3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5.4	24.3	37.8	29.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2.4	0.0	7.1	24.7	31.8	34.1
	없다	3.3	0.0	11.5	31.1	29.5	2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3.5	0.0	7.0	35.1	35.1	19.3
	결혼(동거 포함)	1.6	0.0	11.3	19.4	32.3	35.5
	이혼	3.8	0.0	7.7	26.9	19.2	4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세월호 사건

문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4.1%(6)	0.0%(0)	27.4%(40)	25.3%(37)	16.4%(24)	26.7%(39)
성별	남자	3.5	0.0	35.1	31.6	19.3	10.5
	여자	4.5	0.0	22.5	21.3	14.6	37.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2.3	0.0	22.7	18.2	27.3	29.5
	30대	2.2	0.0	31.1	33.3	13.3	20.0
	40대	5.4	0.0	32.4	18.9	5.4	37.8
	50대	12.5	0.0	18.8	37.5	12.5	18.8
	60대	0.0	0.0	33.3	0.0	66.7	0.0
학력	대학교	3.4	0.0	48.3	20.7	10.3	17.2
	전문학교	8.3	0.0	20.8	29.2	16.7	25.0
	고등중학교	3.4	0.0	22.5	27.0	18.0	29.2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8.5	42.3	11.5	7.7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5.1	0.0	25.4	22.0	16.9	30.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4.5	0.0	30.4	25.9	11.6	27.7
	없다	2.9	0.0	17.6	23.5	32.4	2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39.3	35.7	3.6	17.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0	0.0	27.5	20.0	17.5	3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18.9	29.7	24.3	2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0.0	0.0	0.0	0.0
	없다	4.7	0.0	25.9	25.9	17.6	25.9
	무응답, 응답오류	3.3	0.0	29.5	24.6	14.8	27.9
혼인	미혼	3.5	0.0	22.8	19.3	28.1	26.3
	결혼(동거 포함)	4.8	0.0	35.5	30.6	11.3	17.7
	이혼	3.8	0.0	19.2	26.9	3.8	4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운영

문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0%(0)	33.6%(49)	40.4%(59)	19.2%(28)	6.8%(10)
성별	남자	0.0	42.1	49.1	5.3	3.5
	여자	0.0	28.1	34.8	28.1	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34.1	38.6	20.5	6.8
	30대	0.0	31.1	42.2	24.4	2.2
	40대	0.0	29.7	40.5	16.2	13.5
	50대	0.0	50.0	31.3	12.5	6.3
	60대	0.0	33.3	66.7	0.0	0.0
학력	대학교	0.0	55.2	31.0	10.3	3.4
	전문학교	0.0	29.2	37.5	29.2	4.2
	고등중학교	0.0	28.1	44.9	19.1	7.9
	인민학교	0.0	33.3	0.0	33.3	33.3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6.9	61.5	7.7	3.8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5.6	35.6	21.2	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4.8	37.5	19.6	8.0
	없다	0.0	29.4	50.0	17.6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2.1	35.7	21.4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6.3	41.3	17.5	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9.7	43.2	18.9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31.8	41.2	18.8	8.2
	없다	0.0	36.1	39.3	19.7	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8.6	40.4	15.8	5.3
	결혼(동거 포함)	0.0	32.3	38.7	24.2	4.8
	이혼	0.0	23.1	46.2	15.4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접해 봤다	한두번 접해 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0.0%(0)	57.5%(84)	30.8%(45)	11.6%(17)
성별	남자	0.0	63.2	33.3	3.5
	여자	0.0	53.9	29.2	1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20대	0.0	65.9	22.7	11.4
	30대	0.0	64.4	24.4	11.1
	40대	0.0	40.5	48.6	10.8
	50대	0.0	56.3	25.0	18.8
	60대	0.0	66.7	33.3	0.0
학력	대학교	0.0	75.9	24.1	0.0
	전문학교	0.0	66.7	16.7	16.7
	고등중학교	0.0	49.4	37.1	13.5
	인민학교	0.0	33.3	33.3	33.3
	무학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6.2	50.0	3.8
	후보당원	0.0	100.0	0.0	0.0
	비당원	0.0	59.3	27.1	13.6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0.7	29.5	9.8
	없다	0.0	47.1	35.3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7.9	21.4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0.0	31.3	8.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5.9	35.1	1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8.2	36.5	15.3
	없다	0.0	70.5	23.0	6.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6.7	21.1	12.3
	결혼(동거 포함)	0.0	54.8	35.5	9.7
	이혼	0.0	42.3	42.3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26)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2.3%(18)	0.0%(0)	58.2%(85)	26.0%(38)	2.7%(4)	0.7%(1)
성별	남자	5.3	0.0	57.9	33.3	3.5	0.0
	여자	16.9	0.0	58.4	21.3	2.2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11.4	0.0	61.4	22.7	4.5	0.0
	30대	8.9	0.0	62.2	26.7	2.2	0.0
	40대	13.5	0.0	59.5	21.6	2.7	2.7
	50대	25.0	0.0	31.3	43.8	0.0	0.0
	60대	0.0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3.4	0.0	69.0	27.6	0.0	0.0
	전문학교	16.7	0.0	66.7	16.7	0.0	0.0
	고등중학교	13.5	0.0	51.7	29.2	4.5	1.1
	인민학교	33.3	0.0	66.7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7.7	0.0	53.8	38.5	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13.6	0.0	58.5	23.7	3.4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0.7	0.0	59.8	26.8	2.7	0.0
	없다	17.6	0.0	52.9	23.5	2.9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7	0.0	57.1	32.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1.3	0.0	60.0	25.0	3.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6.2	0.0	54.1	24.3	2.7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5.3	0.0	49.4	31.8	3.5	0.0
	없다	8.2	0.0	70.5	18.0	1.6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0.5	0.0	63.2	22.8	3.5	0.0
	결혼(동거 포함)	11.3	0.0	54.8	32.3	1.6	0.0
	이혼	19.2	0.0	53.8	19.2	3.8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남한문화 유통경로

문27)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3.7%(20)	2.7%(4)	6.8%(10)	53.4%(78)	19.9%(29)	3.4%(5)
성별	남자	8.8	5.3	7.0	56.1	19.3	3.5
	여자	16.9	1.1	6.7	51.7	20.2	3.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15.9	2.3	6.8	54.5	18.2	2.3
	30대	8.9	2.2	6.7	62.2	17.8	2.2
	40대	13.5	0.0	8.1	48.6	21.6	8.1
	50대	25.0	12.5	6.3	31.3	25.0	0.0
	60대	0.0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4	6.9	69.0	17.2	3.4
	전문학교	20.8	4.2	8.3	41.7	25.0	0.0
	고등중학교	15.7	2.2	6.7	51.7	19.1	4.5
	인민학교	33.3	0.0	0.0	66.7	0.0	0.0
	무학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7.7	7.7	15.4	50.0	19.2	0.0
	후보당원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14.4	1.7	5.1	54.2	20.3	4.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1.6	3.6	8.9	50.0	21.4	4.5
	없다	20.6	0.0	0.0	64.7	14.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0.7	3.6	7.1	39.3	39.3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5	2.5	5.0	62.5	12.5	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18.9	2.7	10.8	43.2	21.6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7.6	3.5	5.9	54.1	17.6	1.2
	없다	8.2	1.6	8.2	52.5	23.0	6.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4.0	1.8	7.0	54.4	21.1	1.8
	결혼(동거 포함)	11.3	4.8	8.1	56.5	14.5	4.8
	이혼	19.2	0.0	3.8	42.3	30.8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선거방식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93.8%(137)	4.1%(6)	0.0%(0)	2.1%(3)
성별	남자	0.0	98.2	0.0	0.0	1.8
	여자	0.0	91.0	6.7	0.0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95.5	2.3	0.0	2.3
	30대	0.0	93.3	6.7	0.0	0.0
	40대	0.0	94.6	2.7	0.0	2.7
	50대	0.0	100.0	0.0	0.0	0.0
	60대	0.0	66.7	0.0	0.0	33.3
학력	대학교	0.0	89.7	6.9	0.0	3.4
	전문학교	0.0	91.7	8.3	0.0	0.0
	고등중학교	0.0	95.5	2.2	0.0	2.2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6.2	3.8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3.2	4.2	0.0	2.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4.6	3.6	0.0	1.8
	없다	0.0	91.2	5.9	0.0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2.9	7.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2.5	3.8	0.0	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7.3	2.7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95.3	1.2	0.0	3.5
	없다	0.0	91.8	8.2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4.7	3.5	0.0	1.8
	결혼(동거 포함)	0.0	95.2	3.2	0.0	1.6
	이혼	0.0	88.5	7.7	0.0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생활수준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94.5%(138)	2.7%(4)	2.1%(3)	0.7%(1)
성별	남자	0.0	93.0	3.5	3.5	0.0
	여자	0.0	95.5	2.2	1.1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95.5	2.3	2.3	0.0
	30대	0.0	93.3	2.2	4.4	0.0
	40대	0.0	94.6	2.7	0.0	2.7
	50대	0.0	100.0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96.6	0.0	3.4	0.0
	전문학교	0.0	91.7	8.3	0.0	0.0
	고등중학교	0.0	94.4	2.2	2.2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6.2	3.8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4.1	2.5	2.5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5.5	1.8	1.8	0.9
	없다	0.0	91.2	5.9	2.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9.3	7.1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5.0	1.3	2.5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7.3	2.7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94.1	2.4	2.4	1.2
	없다	0.0	95.1	3.3	1.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3.0	3.5	3.5	0.0
	결혼(동거 포함)	0.0	93.5	3.2	1.6	1.6
	이혼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역사인식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65.1%(95)	27.4%(40)	5.5%(8)	2.1%(3)
성별	남자	0.0	57.9	36.8	1.8	3.5
	여자	0.0	69.7	21.3	7.9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61.4	31.8	6.8	0.0
	30대	0.0	68.9	31.1	0.0	0.0
	40대	0.0	64.9	18.9	8.1	8.1
	50대	0.0	68.8	25.0	6.3	0.0
	60대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62.1	37.9	0.0	0.0
	전문학교	0.0	70.8	25.0	4.2	0.0
	고등중학교	0.0	65.2	24.7	6.7	3.4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7.7	38.5	0.0	3.8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66.1	25.4	6.8	1.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4.3	29.5	4.5	1.8
	없다	0.0	67.6	20.6	8.8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7.9	28.6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3.7	26.3	7.5	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7.6	29.7	0.0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4.7	28.2	4.7	2.4
	없다	0.0	65.6	26.2	6.6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00.0	0.0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61.4	29.8	8.8	0.0
	이혼	0.0	71.0	21.0	3.2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57.7	38.5	3.8	0.0

언어사용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65.1%(95)	28.8%(42)	6.2%(9)	0.0%(0)
성별	남자	0.0	63.2	31.6	5.3	0.0
	여자	0.0	66.3	27.0	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61.4	31.8	6.8	0.0
	30대	0.0	68.9	24.4	6.7	0.0
	40대	0.0	59.5	32.4	8.1	0.0
	50대	0.0	81.3	18.8	0.0	0.0
	60대	0.0	33.3	66.7	0.0	0.0
학력	대학교	0.0	55.2	34.5	10.3	0.0
	전문학교	0.0	58.3	33.3	8.3	0.0
	고등중학교	0.0	69.7	27.0	3.4	0.0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3.1	23.1	3.8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62.7	30.5	6.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4.3	28.6	7.1	0.0
	없다	0.0	67.6	29.4	2.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8.6	21.4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5.0	36.3	8.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8.4	18.9	2.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7.1	30.6	2.4	0.0
	없다	0.0	62.3	26.2	11.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6.7	28.1	5.3	0.0
	결혼(동거 포함)	0.0	61.3	33.9	4.8	0.0
	이혼	0.0	69.2	19.2	11.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생활풍습

문32)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48.6%(71)	38.4%(56)	11.6%(17)	1.4%(2)
성별	남자	0.0	47.4	38.6	10.5	3.5
	여자	0.0	49.4	38.2	12.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40.9	45.5	13.6	0.0
	30대	0.0	51.1	40.0	6.7	2.2
	40대	0.0	51.4	32.4	13.5	2.7
	50대	0.0	62.5	31.3	6.3	0.0
	60대	0.0	33.3	0.0	66.7	0.0
학력	대학교	0.0	37.9	48.3	10.3	3.4
	전문학교	0.0	45.8	45.8	8.3	0.0
	고등중학교	0.0	55.1	32.6	11.2	1.1
	인민학교	0.0	0.0	33.3	66.7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1.5	15.4	15.4	7.7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45.8	43.2	11.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52.7	35.7	10.7	0.9
	없다	0.0	35.3	47.1	14.7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4.3	25.0	10.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5.0	41.3	12.5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5.9	43.2	8.1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50.6	37.6	10.6	1.2
	없다	0.0	45.9	39.3	13.1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00.0	0.0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43.9	47.4	8.8	0.0
	이혼	0.0	46.8	32.3	17.7	3.2
	무응답, 응답오류	0.0	61.5	34.6	3.8	0.0

가치관

문33)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중복응답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7%(1)	0.0%(0)	60.3%(88)	30.8%(45)	7.5%(11)	0.7%(1)
성별	남자	0.0	0.0	61.4	33.3	5.3	0.0
	여자	1.1	0.0	59.6	29.2	9.0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0.0	54.5	36.4	9.1	0.0
	30대	2.2	0.0	53.3	35.6	8.9	0.0
	40대	0.0	0.0	73.0	16.2	8.1	2.7
	50대	0.0	0.0	62.5	37.5	0.0	0.0
	60대	0.0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65.5	27.6	6.9	0.0
	전문학교	0.0	0.0	50.0	41.7	8.3	0.0
	고등중학교	1.1	0.0	60.7	30.3	6.7	1.1
	인민학교	0.0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69.2	23.1	7.7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8	0.0	58.5	32.2	7.6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0	61.6	30.4	7.1	0.9
	없다	2.9	0.0	55.9	32.4	8.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4.3	32.1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0.0	56.3	33.8	7.5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67.6	24.3	8.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62.4	27.1	8.2	1.2
	없다	0.0	0.0	57.4	36.1	6.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52.6	40.4	7.0	0.0
	결혼(동거 포함)	1.6	0.0	62.9	29.0	4.8	1.6
	이혼	0.0	0.0	69.2	15.4	15.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0)	25.3%(37)	23.3%(34)	30.8%(45)	20.5%(30)
성별	남자	0.0	22.8	14.0	35.1	28.1
	여자	0.0	27.0	29.2	28.1	1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15.9	27.3	38.6	18.2
	30대	0.0	26.7	20.0	26.7	26.7
	40대	0.0	37.8	24.3	29.7	8.1
	50대	0.0	18.8	12.5	31.3	37.5
	60대	0.0	33.3	33.3	0.0	33.3
학력	대학교	0.0	10.3	17.2	34.5	37.9
	전문학교	0.0	20.8	33.3	20.8	25.0
	고등중학교	0.0	30.3	22.5	32.6	14.6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6.9	19.2	30.8	23.1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25.4	23.7	31.4	19.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22.3	24.1	31.3	22.3
	없다	0.0	35.3	20.6	29.4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5.7	21.4	14.3	2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8	23.8	35.0	1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1.6	21.6	35.1	2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9.4	21.2	25.9	23.5
	없다	0.0	19.7	26.2	37.7	16.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1.1	28.1	31.6	19.3
	결혼(동거 포함)	0.0	24.2	21.0	30.6	24.2
	이혼	0.0	34.6	19.2	30.8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북핵위협

문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위협적이다	다소 위협적이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0.0%(0)	65.1%(95)	25.3%(37)	7.5%(11)	2.1%(3)
성별	남자	0.0	61.4	22.8	10.5	5.3
	여자	0.0	67.4	27.0	5.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75.0	25.0	0.0	0.0
	30대	0.0	55.6	28.9	13.3	2.2
	40대	0.0	67.6	21.6	5.4	5.4
	50대	0.0	56.3	25.0	18.8	0.0
	60대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58.6	27.6	6.9	6.9
	전문학교	0.0	41.7	41.7	16.7	0.0
	고등중학교	0.0	73.0	20.2	5.6	1.1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7.7	26.9	3.8	11.5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66.9	24.6	8.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1.6	26.8	9.8	1.8
	없다	0.0	76.5	20.6	0.0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4.3	21.4	14.3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0.0	20.0	7.5	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1	40.5	2.7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8.2	23.5	7.1	1.2
	없다	0.0	60.7	27.9	8.2	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4.9	29.8	5.3	0.0
	결혼(동거 포함)	0.0	66.1	24.2	6.5	3.2
	이혼	0.0	65.4	15.4	15.4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6)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0.0%(0)	23.3%(34)	43.8%(64)	21.9%(32)	11.0%(16)
성별	남자	0.0	33.3	43.9	19.3	3.5
	여자	0.0	16.9	43.8	23.6	1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15.9	38.6	29.5	15.9
	30대	0.0	20.0	48.9	24.4	6.7
	40대	0.0	24.3	48.6	13.5	13.5
	50대	0.0	43.8	37.5	12.5	6.3
	60대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20.7	51.7	13.8	13.8
	전문학교	0.0	20.8	50.0	25.0	4.2
	고등중학교	0.0	24.7	41.6	23.6	10.1
	인민학교	0.0	0.0	0.0	33.3	66.7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5	34.6	19.2	7.7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20.3	45.8	22.0	11.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25.0	40.2	24.1	10.7
	없다	0.0	17.6	55.9	14.7	11.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9.3	25.0	25.0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8	56.3	15.0	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0.8	32.4	35.1	2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2.4	47.1	21.2	9.4
	없다	0.0	24.6	39.3	23.0	1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9.3	42.1	21.1	17.5
	결혼(동거 포함)	0.0	29.0	38.7	27.4	4.8
	이혼	0.0	19.2	61.5	11.5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대북지원 규모

문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4%(2)	1.4%(2)	37.7%(55)	23.3%(34)	4.8%(7)	3.4%(5)	28.1%(41)
성별	남자	0.0	1.8	35.1	15.8	5.3	5.3	36.8
	여자	2.2	1.1	39.3	28.1	4.5	2.2	2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2.3	0.0	50.0	36.4	6.8	2.3	2.3
	30대	0.0	4.4	31.1	17.8	6.7	0.0	40.0
	40대	0.0	0.0	29.7	24.3	2.7	2.7	40.5
	50대	6.3	0.0	31.3	0.0	0.0	18.8	43.8
	60대	0.0	0.0	66.7	33.3	0.0	0.0	0.0
학력	대학교	3.4	6.9	41.4	6.9	6.9	0.0	34.5
	전문학교	0.0	0.0	37.5	20.8	0.0	12.5	29.2
	고등중학교	0.0	0.0	34.8	30.3	5.6	2.2	27.0
	인민학교	33.3	0.0	66.7	0.0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	38.5	11.5	3.8	3.8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1.7	0.8	37.3	26.3	4.2	3.4	2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1.8	34.8	23.2	3.6	3.6	32.1
	없다	2.9	0.0	47.1	23.5	8.8	2.9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5.7	14.3	7.1	0.0	42.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2.5	36.3	25.0	5.0	3.8	2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40.5	27.0	2.7	5.4	2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2.4	0.0	42.4	24.7	3.5	2.4	24.7
	없다	0.0	3.3	31.1	21.3	6.6	4.9	32.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42.1	28.1	8.8	3.5	15.8
	결혼(동거 포함)	1.6	3.2	38.7	12.9	3.2	4.8	35.5
	이혼	0.0	0.0	26.9	38.5	0.0	0.0	3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남한의 대북지원 인식

문3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0.0%(0)	59.6%(87)	14.4%(21)	15.8%(23)	5.5%(8)	4.8%(7)
성별	남자	0.0	52.6	14.0	21.1	7.0	5.3
	여자	0.0	64.0	14.6	12.4	4.5	4.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63.6	18.2	15.9	2.3	0.0
	30대	0.0	55.6	17.8	15.6	6.7	4.4
	40대	0.0	59.5	5.4	16.2	5.4	13.5
	50대	0.0	56.3	12.5	18.8	12.5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2.1	10.3	20.7	0.0	6.9
	전문학교	0.0	66.7	20.8	4.2	4.2	4.2
	고등중학교	0.0	55.1	14.6	18.0	7.9	4.5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11.5	15.4	7.7	15.4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61.0	15.3	16.1	5.1	2.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3.4	11.6	13.4	6.3	5.4
	없다	0.0	47.1	23.5	23.5	2.9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10.7	25.0	3.6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3.7	12.5	16.3	3.8	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6.8	21.6	8.1	10.8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1.2	9.4	16.5	8.2	4.7
	없다	0.0	57.4	21.3	14.8	1.6	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00.0	0.0	0.0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56.1	19.3	17.5	5.3	1.8
	이혼	0.0	54.8	16.1	16.1	8.1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76.9	0.0	11.5	0.0	11.5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인식

문3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긍정	약간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부정	매우부정
		0.0%(0)	55.5%(81)	19.2%(28)	14.4%(21)	5.5%(8)	5.5%(8)
성별	남자	0.0	47.4	17.5	22.8	5.3	7.0
	여자	0.0	60.7	20.2	9.0	5.6	4.5
	10대	0.0	0.0	100.0	0.0	0.0	0.0
연령대	20대	0.0	59.1	22.7	15.9	2.3	0.0
	30대	0.0	48.9	24.4	15.6	6.7	4.4
	40대	0.0	56.8	8.1	10.8	8.1	16.2
	50대	0.0	56.3	18.8	18.8	6.3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4.8	27.6	13.8	3.4	10.3
	전문학교	0.0	70.8	12.5	8.3	4.2	4.2
	고등중학교	0.0	52.8	19.1	16.9	6.7	4.5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6.2	15.4	15.4	3.8	19.2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56.8	20.3	14.4	5.9	2.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58.0	17.0	14.3	4.5	6.3
	없다	0.0	47.1	26.5	14.7	8.8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0.0	17.9	17.9	3.6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7.5	21.3	12.5	5.0	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1	16.2	16.2	8.1	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1.2	15.3	11.8	7.1	4.7
	없다	0.0	47.5	24.6	18.0	3.3	6.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4.4	21.1	19.3	3.5	1.8
	결혼(동거 포함)	0.0	51.6	22.6	11.3	8.1	6.5
	이혼	0.0	65.4	7.7	11.5	3.8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인식

문4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긍정	약간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부정	매우부정
		0.0%(0)	63.7%(93)	15.1%(22)	15.1%(22)	3.4%(5)	2.7%(4)
성별	남자	0.0	52.6	17.5	21.1	5.3	3.5
	여자	0.0	70.8	13.5	11.2	2.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72.7	13.6	13.6	0.0	0.0
	30대	0.0	57.8	17.8	17.8	6.7	0.0
	40대	0.0	56.8	16.2	13.5	2.7	10.8
	50대	0.0	68.8	12.5	12.5	6.3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5.5	6.9	17.2	3.4	6.9
	전문학교	0.0	62.5	4.2	20.8	8.3	4.2
	고등중학교	0.0	62.9	20.2	13.5	2.2	1.1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7.7	15.4	11.5	7.7	7.7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64.4	15.3	16.1	2.5	1.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5.2	12.5	15.2	4.5	2.7
	없다	0.0	58.8	23.5	14.7	0.0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7.1	14.3	21.4	3.6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8.8	15.0	11.3	3.8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6.8	16.2	18.9	2.7	5.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7.1	12.9	14.1	3.5	2.4
	없다	0.0	59.0	18.0	16.4	3.3	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1.4	17.5	21.1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61.3	16.1	14.5	6.5	1.6
	이혼	0.0	73.1	7.7	3.8	3.8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

문4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0.0%(0)	29.5%(43)	23.3%(34)	36.3%(53)	11.0%(16)
성별	남자	0.0	26.3	24.6	28.1	21.1
	여자	0.0	31.5	22.5	41.6	4.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27.3	25.0	43.2	4.5
	30대	0.0	26.7	22.2	40.0	11.1
	40대	0.0	35.1	16.2	32.4	16.2
	50대	0.0	25.0	37.5	25.0	12.5
	60대	0.0	33.3	33.3	0.0	33.3
학력	대학교	0.0	24.1	24.1	27.6	24.1
	전문학교	0.0	33.3	16.7	37.5	12.5
	고등중학교	0.0	28.1	25.8	40.4	5.6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9.2	30.8	26.9	23.1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32.2	22.0	37.3	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26.8	23.2	36.6	13.4
	없다	0.0	38.2	23.5	35.3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5.7	14.3	32.1	17.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8.7	28.7	35.0	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4.3	18.9	43.2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9.4	27.1	34.1	9.4
	없다	0.0	29.5	18.0	39.3	1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8.1	21.1	42.1	8.8
	결혼(동거 포함)	0.0	27.4	25.8	35.5	11.3
	이혼	0.0	38.5	23.1	26.9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김정은 지지도

문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0.7% (1)	0.0% (0)	13.7% (20)	12.3% (18)	11.6% (17)	3.4% (5)	21.9% (32)	12.3% (18)	4.1% (6)	7.5% (11)	12.3% (18)
성별	남자	1.8	0.0	19.3	17.5	10.5	1.8	17.5	10.5	1.8	7.0	12.3
	여자	0.0	0.0	10.1	9.0	12.4	4.5	24.7	13.5	5.6	7.9	1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0.0	9.1	9.1	11.4	4.5	20.5	15.9	4.5	9.1	15.9
	30대	0.0	0.0	17.8	15.6	8.9	4.4	17.8	4.4	6.7	11.1	13.3
	40대	0.0	0.0	16.2	13.5	10.8	0.0	32.4	18.9	0.0	0.0	8.1
	50대	6.3	0.0	12.5	6.3	18.8	6.3	12.5	6.3	6.3	12.5	12.5
	60대	0.0	0.0	0.0	33.3	33.3	0.0	33.3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20.7	17.2	6.9	0.0	27.6	6.9	6.9	10.3	3.4
	전문학교	4.2	0.0	8.3	8.3	12.5	4.2	25.0	12.5	4.2	8.3	12.5
	고등중학교	0.0	0.0	13.5	11.2	13.5	4.5	20.2	13.5	3.4	6.7	13.5
	인민학교	0.0	0.0	0.0	33.3	0.0	0.0	0.0	33.3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23.1	15.4	15.4	0.0	19.2	15.4	0.0	0.0	11.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8	0.0	11.0	11.9	11.0	4.2	22.0	11.9	5.1	9.3	1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0.0	15.2	13.4	12.5	4.5	23.2	8.9	4.5	5.4	11.6
	없다	0.0	0.0	8.8	8.8	8.8	0.0	17.6	23.5	2.9	14.7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8.6	7.1	10.7	3.6	25.0	7.1	7.1	3.6	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8	12.5	12.5	2.5	25.0	12.5	5.0	7.5	1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13.5	16.2	10.8	5.4	13.5	13.5	0.0	10.8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0.0	15.3	8.2	12.9	2.4	23.5	14.1	4.7	5.9	11.8
	없다	0.0	0.0	11.5	18.0	9.8	4.9	19.7	9.8	3.3	9.8	1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8.8	15.8	8.8	3.5	17.5	14.0	7.0	8.8	15.8
	결혼(동거 포함)	1.6	0.0	16.1	11.3	9.7	4.8	25.8	12.9	1.6	6.5	9.7
	이혼	0.0	0.0	19.2	7.7	19.2	0.0	23.1	7.7	3.8	7.7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0.0%(0)	9.6%(14)	40.4%(59)	43.2%(63)	6.8%(10)
성별	남자	0.0	15.8	38.6	42.1	3.5
	여자	0.0	5.6	41.6	43.8	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4.5	40.9	47.7	6.8
	30대	0.0	15.6	31.1	48.9	4.4
	40대	0.0	8.1	48.6	32.4	10.8
	50대	0.0	12.5	43.8	37.5	6.3
	60대	0.0	0.0	66.7	33.3	0.0
학력	대학교	0.0	17.2	44.8	31.0	6.9
	전문학교	0.0	8.3	33.3	50.0	8.3
	고등중학교	0.0	7.9	39.3	46.1	6.7
	인민학교	0.0	0.0	66.7	33.3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1.5	38.5	38.5	11.5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9.3	39.8	44.9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10.7	37.5	43.8	8.0
	없다	0.0	5.9	50.0	41.2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1.4	21.4	46.4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8	50.0	38.8	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32.4	51.4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8.2	40.0	47.1	4.7
	없다	0.0	11.5	41.0	37.7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8	38.6	50.9	8.8
	결혼(동거 포함)	0.0	16.1	41.9	35.5	6.5
	이혼	0.0	11.5	42.3	42.3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중복응답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0.7%(1)	0.7%(1)	6.8%(10)	55.5%(81)	24.0%(35)	12.3%(18)
성별	남자	1.8	1.8	7.0	50.9	22.8	15.8
	여자	0.0	0.0	6.7	58.4	24.7	10.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20대	2.3	0.0	2.3	52.3	29.5	13.6
	30대	0.0	0.0	6.7	55.6	26.7	11.1
	40대	0.0	0.0	16.2	54.1	16.2	13.5
	50대	0.0	6.3	0.0	56.3	25.0	12.5
	60대	0.0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6.9	44.8	34.5	13.8
	전문학교	0.0	4.2	4.2	62.5	20.8	8.3
	고등중학교	1.1	0.0	7.9	57.3	21.3	12.4
	인민학교	0.0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7.7	57.7	15.4	19.2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8	0.8	6.8	55.1	25.4	1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9	8.0	59.8	21.4	9.8
	없다	2.9	0.0	2.9	41.2	32.4	20.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0.7	60.7	17.9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8.8	56.3	25.0	1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2.7	0.0	48.6	27.0	1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1.2	4.7	52.9	28.2	11.8
	없다	0.0	0.0	9.8	59.0	18.0	1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1.8	0.0	5.3	54.4	29.8	8.8
	결혼(동거 포함)	0.0	1.6	4.8	58.1	22.6	12.9
	이혼	0.0	0.0	11.5	53.8	15.4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4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0%(0)	11.0%(16)	24.7%(36)	13.0%(19)	5.5%(8)	9.6%(14)	18.5%(27)	17.8%(26)
성별	남자	0.0	10.5	22.8	12.3	3.5	15.8	24.6	10.5
	여자	0.0	11.2	25.8	13.5	6.7	5.6	14.6	22.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0.0
	20대	0.0	4.5	22.7	27.3	11.4	6.8	15.9	11.4
	30대	0.0	8.9	31.1	8.9	2.2	8.9	20.0	20.0
	40대	0.0	16.2	24.3	2.7	5.4	13.5	18.9	18.9
	50대	0.0	18.8	12.5	6.3	0.0	12.5	25.0	25.0
	60대	0.0	33.3	0.0	33.3	0.0	0.0	0.0	33.3
학력	대학교	0.0	10.3	27.6	10.3	3.4	6.9	27.6	13.8
	전문학교	0.0	4.2	16.7	16.7	4.2	16.7	16.7	25.0
	고등중학교	0.0	13.5	27.0	11.2	6.7	9.0	15.7	16.9
	인민학교	0.0	0.0	0.0	33.3	0.0	0.0	33.3	33.3
	무학	0.0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5.4	23.1	15.4	3.8	7.7	19.2	15.4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10.2	25.4	11.9	5.9	9.3	18.6	1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12.5	26.8	12.5	5.4	8.9	15.2	18.8
	없다	0.0	5.9	17.6	14.7	5.9	11.8	29.4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7	21.4	21.4	3.6	7.1	10.7	25.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8	25.0	8.8	7.5	12.5	20.0	1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6.2	27.0	16.2	2.7	5.4	18.9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9.4	15.3	15.3	5.9	9.4	22.4	22.4
	없다	0.0	13.1	37.7	9.8	4.9	9.8	13.1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8.8	31.6	15.8	8.8	10.5	14.0	10.5
	결혼(동거 포함)	0.0	14.5	16.1	12.9	1.6	11.3	21.0	22.6
	이혼	0.0	3.8	30.8	7.7	7.7	3.8	23.1	23.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4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 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0.0%(0)	34.2%(50)	18.5%(27)	27.4%(40)	8.9%(13)	11.0%(16)
성별	남자	0.0	43.9	17.5	17.5	7.0	14.0
	여자	0.0	28.1	19.1	33.7	10.1	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36.4	27.3	29.5	2.3	4.5
	30대	0.0	31.1	13.3	31.1	13.3	11.1
	40대	0.0	37.8	10.8	24.3	10.8	16.2
	50대	0.0	37.5	25.0	18.8	6.3	12.5
	60대	0.0	0.0	0.0	33.3	33.3	33.3
학력	대학교	0.0	41.4	10.3	20.7	10.3	17.2
	전문학교	0.0	41.7	16.7	33.3	4.2	4.2
	고등중학교	0.0	31.5	20.2	28.1	10.1	10.1
	인민학교	0.0	0.0	33.3	33.3	0.0	33.3
	무학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5	15.4	15.4	19.2	11.5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3.1	19.5	29.7	6.8	11.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5.7	13.4	30.4	8.9	11.6
	없다	0.0	29.4	35.3	17.6	8.8	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6.4	17.9	21.4	10.7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1.3	18.8	31.3	6.3	12.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2.4	18.9	24.3	13.5	1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34.1	21.2	27.1	7.1	10.6
	없다	0.0	34.4	14.8	27.9	11.5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0.0	0.0	100.0	0.0
	결혼(동거 포함)	0.0	24.6	24.6	31.6	8.8	10.5
	이혼	0.0	43.5	16.1	22.6	8.1	9.7
	무응답, 응답오류	0.0	34.6	11.5	30.8	7.7	15.4

북한경제 어려움의 이유

문4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 오류	자연 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 못 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 (김정일)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1.4% (2)	2.1% (3)	0.0% (0)	25.3% (37)	14.4% (21)	5.5% (8)	19.2% (28)	26.0% (38)	3.4% (5)	2.7% (4)	0.0% (0)
성별	남자	3.5	1.8	0.0	22.8	12.3	3.5	19.3	31.6	5.3	0.0	0.0
	여자	0.0	2.2	0.0	27.0	15.7	6.7	19.1	22.5	2.2	4.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0.0	0.0	36.4	11.4	11.4	13.6	27.3	0.0	0.0	0.0
	30대	0.0	2.2	0.0	17.8	15.6	2.2	17.8	31.1	8.9	4.4	0.0
	40대	0.0	2.7	0.0	21.6	16.2	2.7	24.3	27.0	2.7	2.7	0.0
	50대	6.3	6.3	0.0	18.8	18.8	6.3	31.3	12.5	0.0	0.0	0.0
	60대	33.3	0.0	0.0	33.3	0.0	0.0	0.0	0.0	0.0	33.3	0.0
학력	대학교	3.4	3.4	0.0	17.2	6.9	0.0	20.7	34.5	10.3	3.4	0.0
	전문학교	0.0	4.2	0.0	25.0	16.7	8.3	25.0	16.7	0.0	4.2	0.0
	고등중학교	1.1	1.1	0.0	25.8	16.9	6.7	18.0	25.8	2.2	2.2	0.0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7.7	0.0	0.0	23.1	7.7	0.0	30.8	23.1	3.8	3.8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2.5	0.0	26.3	16.1	6.8	16.1	26.3	3.4	2.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2.7	0.0	20.5	16.1	6.3	20.5	25.9	3.6	3.6	0.0
	없다	2.9	0.0	0.0	41.2	8.8	2.9	14.7	26.5	2.9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10.7	10.7	14.3	25.0	28.6	10.7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5	2.5	0.0	27.5	16.3	2.5	13.8	30.0	2.5	2.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0.0	29.7	13.5	5.4	27.0	16.2	0.0	5.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2	1.2	0.0	23.5	15.3	7.1	18.8	27.1	2.4	3.5	0.0
	없다	1.6	3.3	0.0	27.9	13.1	3.3	19.7	24.6	4.9	1.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0.0	33.3	12.3	8.8	12.3	29.8	1.8	1.8	0.0
	결혼(동거 포함)	3.2	4.8	0.0	19.4	14.5	3.2	24.2	24.2	3.2	3.2	0.0
	이혼	0.0	0.0	0.0	23.1	15.4	3.8	23.1	23.1	7.7	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개인사업 인구률

문48) 귀하는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0.0% (0)	1.4% (2)	0.7% (1)	2.7% (4)	4.1% (6)	6.8% (10)	8.9% (13)	17.1% (25)	30.8% (45)	27.4% (40)
성별	남자	0.0	0.0	1.8	5.3	7.0	7.0	10.5	17.5	31.6	19.3
	여자	0.0	2.2	0.0	1.1	2.2	6.7	7.9	16.9	30.3	32.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2.3	0.0	0.0	2.3	4.5	9.1	18.2	40.9	22.7
	30대	0.0	0.0	2.2	6.7	6.7	11.1	8.9	13.3	17.8	33.3
	40대	0.0	2.7	0.0	2.7	2.7	5.4	5.4	21.6	32.4	27.0
	50대	0.0	0.0	0.0	0.0	6.3	6.3	12.5	12.5	31.3	31.3
	60대	0.0	0.0	0.0	0.0	0.0	0.0	33.3	0.0	66.7	0.0
학력	대학교	0.0	0.0	0.0	3.4	3.4	0.0	13.8	20.7	27.6	31.0
	전문학교	0.0	0.0	4.2	4.2	12.5	4.2	12.5	12.5	20.8	29.2
	고등중학교	0.0	1.1	0.0	2.2	2.2	10.1	6.7	18.0	36.0	23.6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0.0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8	3.8	3.8	7.7	7.7	19.2	26.9	26.9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7	0.0	2.5	4.2	6.8	9.3	16.9	30.5	28.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9	0.9	0.9	4.5	7.1	7.1	17.0	30.4	31.3
	없다	0.0	2.9	0.0	8.8	2.9	5.9	14.7	17.6	32.4	14.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0	10.7	3.6	3.6	14.3	25.0	42.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3	2.5	2.5	8.8	11.3	22.5	31.3	2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0.0	5.4	2.7	5.4	8.1	8.1	35.1	32.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	1.2	1.2	3.5	3.5	8.2	21.2	29.4	30.6
	없다	0.0	1.6	0.0	4.9	4.9	11.5	9.8	11.5	32.8	2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5	0.0	1.8	1.8	8.8	7.0	14.0	36.8	26.3
	결혼(동거 포함)	0.0	0.0	1.6	3.2	4.8	3.2	8.1	16.1	32.3	30.6
	이혼	0.0	0.0	0.0	3.8	7.7	11.5	15.4	26.9	15.4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생산규율 유지

문4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0%(0)	8.9%(13)	24.7%(36)	23.3%(34)	43.2%(63)
성별	남자	0.0	12.3	21.1	26.3	40.4
	여자	0.0	6.7	27.0	21.3	4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2.3	20.5	36.4	40.9
	30대	0.0	6.7	17.8	17.8	57.8
	40대	0.0	8.1	45.9	18.9	27.0
	50대	0.0	31.3	6.3	18.8	43.8
	60대	0.0	33.3	0.0	0.0	66.7
학력	대학교	0.0	0.0	20.7	17.2	62.1
	전문학교	0.0	16.7	20.8	16.7	45.8
	고등중학교	0.0	9.0	25.8	27.0	38.2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9.2	23.1	19.2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6.8	24.6	24.6	4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7.1	22.3	19.6	50.9
	없다	0.0	14.7	32.4	35.3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7.9	21.4	17.9	42.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8	27.5	23.8	4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3.5	18.9	27.0	40.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9	23.5	22.4	41.2
	없다	0.0	3.3	26.2	24.6	4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7.0	22.8	31.6	38.6
	결혼(동거 포함)	0.0	8.1	24.2	16.1	51.6
	이혼	0.0	15.4	30.8	19.2	3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5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30%미만	30~50%	50~70%	70~90%	90%이상
		0.0%(0)	0.7%(1)	12.3%(18)	15.8%(23)	24.7%(36)	26.7%(39)	19.9%(29)
성별	남자	0.0	0.0	8.8	7.0	28.1	31.6	24.6
	여자	0.0	1.1	14.6	21.3	22.5	23.6	1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0.0	9.1	13.6	29.5	29.5	18.2
	30대	0.0	0.0	15.6	11.1	26.7	26.7	20.0
	40대	0.0	2.7	10.8	27.0	16.2	27.0	16.2
	50대	0.0	0.0	18.8	6.3	18.8	25.0	31.3
	60대	0.0	0.0	0.0	33.3	33.3	0.0	33.3
학력	대학교	0.0	0.0	10.3	13.8	13.8	37.9	24.1
	전문학교	0.0	0.0	12.5	12.5	29.2	25.0	20.8
	고등중학교	0.0	1.1	13.5	18.0	25.8	22.5	19.1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66.7	0.0
	무학	0.0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7.7	30.8	23.1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0.8	15.3	17.8	23.7	26.3	16.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9	10.7	17.9	24.1	26.8	19.6
	없다	0.0	0.0	17.6	8.8	26.5	26.5	20.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1.4	3.6	25.0	35.7	1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3	10.0	18.8	25.0	26.3	18.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10.8	18.9	24.3	18.9	2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15.3	14.1	23.5	23.5	23.5
	없다	0.0	1.6	8.2	18.0	26.2	31.1	1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8.8	17.5	19.3	35.1	19.3
	결혼(동거 포함)	0.0	1.6	14.5	12.9	22.6	22.6	25.8
	이혼	0.0	0.0	15.4	15.4	42.3	19.2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5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0.0%(0)	4.1%(6)	6.8%(10)	10.3%(15)	22.6%(33)	56.2%(82)
성별	남자	0.0	1.8	7.0	15.8	17.5	57.9
	여자	0.0	5.6	6.7	6.7	25.8	55.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4.5	4.5	13.6	27.3	50.0
	30대	0.0	2.2	6.7	11.1	17.8	62.2
	40대	0.0	2.7	5.4	2.7	27.0	62.2
	50대	0.0	12.5	6.3	18.8	18.8	43.8
	60대	0.0	0.0	33.3	0.0	0.0	66.7
학력	대학교	0.0	3.4	3.4	3.4	17.2	72.4
	전문학교	0.0	4.2	8.3	20.8	20.8	45.8
	고등중학교	0.0	3.4	7.9	10.1	25.8	52.8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	7.7	23.1	11.5	5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4.2	6.8	7.6	25.4	5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2.7	2.7	9.8	25.0	59.8
	없다	0.0	8.8	20.6	11.8	14.7	4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10.7	7.1	17.9	6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8	6.3	10.0	23.8	56.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	5.4	13.5	24.3	51.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5.9	8.2	12.9	21.2	51.8
	없다	0.0	1.6	4.9	6.6	24.6	62.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5	5.3	12.3	24.6	54.4
	결혼(동거 포함)	0.0	3.2	9.7	11.3	21.0	54.8
	이혼	0.0	7.7	3.8	3.8	19.2	65.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가 보았다	가끔 가 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0.0%(0)	37.7%(55)	37.7%(55)	24.7%(36)
성별	남자	0.0	50.9	36.8	12.3
	여자	0.0	29.2	38.2	32.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20대	0.0	36.4	43.2	20.5
	30대	0.0	37.8	40.0	22.2
	40대	0.0	35.1	29.7	35.1
	50대	0.0	50.0	25.0	25.0
	60대	0.0	33.3	66.7	0.0
학력	대학교	0.0	48.3	41.4	10.3
	전문학교	0.0	37.5	45.8	16.7
	고등중학교	0.0	33.7	34.8	31.5
	인민학교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30.8	19.2
	후보당원	0.0	0.0	100.0	0.0
	비당원	0.0	35.6	38.1	2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2.9	35.7	21.4
	없다	0.0	20.6	44.1	35.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2.9	46.4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0.0	41.3	18.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0	24.3	48.6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31.8	43.5	24.7
	없다	0.0	45.9	29.5	2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6.8	45.6	17.5
	결혼(동거 포함)	0.0	40.3	30.6	29.0
	이혼	0.0	34.6	38.5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0.0%(0)	5.5%(8)	5.5%(8)	80.1%(117)	8.9%(13)
성별	남자	0.0	7.0	7.0	78.9	7.0
	여자	0.0	4.5	4.5	80.9	10.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9.1	2.3	84.1	4.5
	30대	0.0	4.4	11.1	75.6	8.9
	40대	0.0	2.7	0.0	83.8	13.5
	50대	0.0	6.3	6.3	75.0	12.5
	60대	0.0	0.0	33.3	66.7	0.0
학력	대학교	0.0	6.9	6.9	72.4	13.8
	전문학교	0.0	8.3	0.0	79.2	12.5
	고등중학교	0.0	4.5	6.7	82.0	6.7
	인민학교	0.0	0.0	0.0	100.0	0.0
	무학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7	7.7	76.9	7.7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5.1	5.1	80.5	9.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6	4.5	80.4	11.6
	없다	0.0	11.8	8.8	79.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1	3.6	82.1	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3	5.0	80.0	8.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8.1	78.4	1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9.4	4.7	76.5	9.4
	없다	0.0	0.0	6.6	85.2	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7.0	5.3	84.2	3.5
	결혼(동거 포함)	0.0	3.2	6.5	82.3	8.1
	이혼	0.0	7.7	3.8	65.4	2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문5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조선신문 (로동신문)	조선 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삐라 등)
		0.7%(1)	1.4%(2)	4.1%(6)	6.2%(9)	47.9%(70)	10.3%(15)	29.5%(43)
성별	남자	1.8	3.5	5.3	7.0	35.1	5.3	42.1
	여자	0.0	0.0	3.4	5.6	56.2	13.5	21.3
	10대	0.0	0.0	0.0	0.0	100.0	0.0	0.0
연령대	20대	0.0	0.0	4.5	11.4	43.2	9.1	31.8
	30대	0.0	2.2	4.4	4.4	48.9	11.1	28.9
	40대	0.0	0.0	2.7	2.7	56.8	10.8	27.0
	50대	6.3	6.3	6.3	6.3	37.5	12.5	25.0
	60대	0.0	0.0	0.0	0.0	33.3	0.0	6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3.4	0.0	3.4	6.9	41.4	3.4	41.4
	전문학교	0.0	4.2	4.2	4.2	50.0	8.3	29.2
	고등중학교	0.0	1.1	4.5	4.5	50.6	13.5	25.8
	인민학교	0.0	0.0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3.8	0.0	3.8	3.8	50.0	11.5	26.9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7	4.2	6.8	47.5	9.3	30.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1.8	2.7	3.6	50.0	8.0	33.0
	없다	0.0	0.0	8.8	14.7	41.2	17.6	1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0.0	0.0	42.9	14.3	42.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1.3	2.5	7.5	45.0	8.8	3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10.8	5.4	59.5	10.8	1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	3.5	8.2	47.1	11.8	28.2
	없다	1.6	1.6	4.9	3.3	49.2	8.2	3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3.5	10.5	49.1	8.8	28.1
	결혼(동거 포함)	1.6	1.6	6.5	3.2	45.2	11.3	30.6
	이혼	0.0	3.8	0.0	3.8	50.0	11.5	3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7%(1)	0.7%(1)	2.1%(3)	0.7%(1)	22.6%(33)	71.9%(105)	1.4%(2)
성별	남자	1.8	1.8	3.5	1.8	28.1	61.4	1.8
	여자	0.0	0.0	1.1	0.0	19.1	78.7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100.0	0.0
	20대	2.3	0.0	0.0	0.0	20.5	75.0	2.3
	30대	0.0	2.2	4.4	0.0	28.9	62.2	2.2
	40대	0.0	0.0	0.0	0.0	24.3	75.7	0.0
	50대	0.0	0.0	0.0	6.3	6.3	87.5	0.0
	60대	0.0	0.0	33.3	0.0	33.3	33.3	0.0
학력	대학교	0.0	0.0	0.0	0.0	27.6	69.0	3.4
	전문학교	0.0	0.0	0.0	4.2	20.8	75.0	0.0
	고등중학교	1.1	1.1	3.4	0.0	22.5	71.9	0.0
	인민학교	0.0	0.0	0.0	0.0	0.0	66.7	33.3
	무학	0.0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	7.7	3.8	26.9	57.7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8	0.0	0.8	0.0	22.0	74.6	1.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9	0.9	2.7	0.9	25.9	68.8	0.0
	없다	0.0	0.0	0.0	0.0	11.8	82.4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3.6	0.0	0.0	0.0	28.6	67.9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8	0.0	18.8	77.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0.0	2.7	27.0	64.9	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1.2	1.2	1.2	1.2	22.4	70.6	2.4
	없다	0.0	0.0	3.3	0.0	23.0	7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3.5	0.0	22.8	71.9	1.8
	결혼(동거 포함)	1.6	1.6	1.6	1.6	24.2	67.7	1.6
	이혼	0.0	0.0	0.0	0.0	19.2	80.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평화위협국가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0%(0)	2.1%(3)	64.4%(94)	12.3%(18)	1.4%(2)	19.2%(28)	0.7%(1)
성별	남자	0.0	1.8	52.6	15.8	0.0	29.8	0.0
	여자	0.0	2.2	71.9	10.1	2.2	12.4	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0.0
	20대	0.0	2.3	63.6	15.9	2.3	13.6	2.3
	30대	0.0	0.0	60.0	13.3	0.0	26.7	0.0
	40대	0.0	5.4	75.7	8.1	0.0	10.8	0.0
	50대	0.0	0.0	68.8	0.0	0.0	31.3	0.0
	60대	0.0	0.0	0.0	66.7	0.0	33.3	0.0
학력	대학교	0.0	3.4	44.8	24.1	0.0	27.6	0.0
	전문학교	0.0	0.0	75.0	4.2	4.2	16.7	0.0
	고등중학교	0.0	2.2	67.4	11.2	1.1	18.0	0.0
	인민학교	0.0	0.0	66.7	0.0	0.0	0.0	33.3
	무학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3.8	15.4	0.0	30.8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1.7	66.9	11.9	1.7	16.9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0.9	64.3	12.5	0.9	21.4	0.0
	없다	0.0	5.9	64.7	11.8	2.9	11.8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60.7	14.3	3.6	21.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5	66.3	12.5	1.3	17.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64.9	10.8	0.0	21.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4	69.4	11.8	1.2	14.1	1.2
	없다	0.0	1.6	57.4	13.1	1.6	26.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8	61.4	12.3	3.5	19.3	1.8
	결혼(동거 포함)	0.0	3.2	64.5	9.7	0.0	22.6	0.0
	이혼	0.0	0.0	69.2	19.2	0.0	11.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7%(1)	0.0%(0)	13.7%(20)	19.2%(28)	24.7%(36)	41.8%(61)
성별	남자	0.0	0.0	17.5	19.3	21.1	42.1
	여자	1.1	0.0	11.2	19.1	27.0	41.6
	10대	0.0	0.0	0.0	100.0	0.0	0.0
연령대	20대	0.0	0.0	4.5	20.5	25.0	50.0
	30대	2.2	0.0	17.8	24.4	20.0	35.6
	40대	0.0	0.0	10.8	13.5	29.7	45.9
	50대	0.0	0.0	25.0	6.3	31.3	37.5
	60대	0.0	0.0	66.7	33.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3.4	31.0	20.7	44.8
	전문학교	0.0	0.0	16.7	16.7	33.3	33.3
	고등중학교	1.1	0.0	16.9	16.9	23.6	41.6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9.2	23.1	19.2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0.0	12.7	18.6	26.3	4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0.0	15.2	21.4	21.4	42.0
	없다	2.9	0.0	8.8	11.8	35.3	41.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14.3	17.9	17.9	5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12.5	22.5	23.8	4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16.2	13.5	32.4	35.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15.3	12.9	29.4	42.4
	없다	1.6	0.0	11.5	27.9	18.0	4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12.3	21.1	22.8	43.9
	결혼(동거 포함)	1.6	0.0	11.3	22.6	24.2	40.3
	이혼	0.0	0.0	23.1	7.7	30.8	3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0%(0)	4.8%(7)	9.6%(14)	37.0%(54)	48.6%(71)
성별	남자	0.0	3.5	3.5	38.6	54.4
	여자	0.0	5.6	13.5	36.0	4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0.0	6.8	43.2	50.0
	30대	0.0	4.4	8.9	37.8	48.9
	40대	0.0	2.7	10.8	37.8	48.6
	50대	0.0	18.8	12.5	18.8	50.0
	60대	0.0	33.3	0.0	33.3	33.3
학력	대학교	0.0	0.0	10.3	20.7	69.0
	전문학교	0.0	8.3	16.7	41.7	33.3
	고등중학교	0.0	5.6	7.9	40.4	46.1
	인민학교	0.0	0.0	0.0	66.7	33.3
	무학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8	7.7	23.1	65.4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5.1	10.2	40.7	44.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5.4	8.0	34.8	51.8
	없다	0.0	2.9	14.7	44.1	3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10.7	28.6	57.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8	7.5	37.5	5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1	13.5	43.2	35.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5.9	9.4	42.4	42.4
	없다	0.0	3.3	9.8	29.5	5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5	5.3	43.9	47.4
	결혼(동거 포함)	0.0	4.8	12.9	29.0	53.2
	이혼	0.0	7.7	11.5	42.3	3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7%(1)	0.0%(0)	4.1%(6)	4.1%(6)	38.4%(56)	52.7%(77)
성별	남자	0.0	0.0	7.0	1.8	33.3	57.9
	여자	1.1	0.0	2.2	5.6	41.6	4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2.3	2.3	43.2	52.3
	30대	2.2	0.0	0.0	4.4	37.8	55.6
	40대	0.0	0.0	5.4	2.7	40.5	51.4
	50대	0.0	0.0	12.5	12.5	18.8	56.3
	60대	0.0	0.0	33.3	0.0	33.3	33.3
학력	대학교	0.0	0.0	0.0	6.9	24.1	69.0
	전문학교	0.0	0.0	8.3	4.2	45.8	41.7
	고등중학교	1.1	0.0	4.5	3.4	41.6	49.4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7.7	3.8	30.8	57.7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0.0	3.4	4.2	40.7	5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0.0	3.6	4.5	34.8	57.1
	없다	2.9	0.0	5.9	2.9	50.0	3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3.6	0.0	32.1	6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5.0	2.5	38.8	53.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2.7	10.8	43.2	40.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4.7	4.7	40.0	50.6
	없다	1.6	0.0	3.3	3.3	36.1	5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3.5	1.8	43.9	50.9
	결혼(동거 포함)	1.6	0.0	3.2	6.5	29.0	59.7
	이혼	0.0	0.0	7.7	3.8	50.0	3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6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1%(3)	0.0%(0)	4.8%(7)	21.2%(31)	42.5%(62)	29.5%(43)
성별	남자	0.0	0.0	3.5	15.8	42.1	38.6
	여자	3.4	0.0	5.6	24.7	42.7	23.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0.0	2.3	22.7	47.7	27.3
	30대	4.4	0.0	2.2	17.8	51.1	24.4
	40대	0.0	0.0	5.4	16.2	37.8	40.5
	50대	6.3	0.0	18.8	25.0	18.8	31.3
	60대	0.0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3.4	20.7	41.4	34.5
	전문학교	0.0	0.0	8.3	25.0	45.8	20.8
	고등중학교	3.4	0.0	4.5	20.2	42.7	29.2
	인민학교	0.0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8	15.4	26.9	53.8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2.5	0.0	5.1	22.0	46.6	23.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8	0.0	5.4	21.4	40.2	31.3
	없다	2.9	0.0	2.9	20.6	50.0	2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7.1	0.0	3.6	10.7	46.4	32.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0.0	3.8	22.5	45.0	2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7	0.0	8.1	27.0	35.1	27.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남한친인척	있다	2.4	0.0	4.7	21.2	43.5	28.2
	없다	1.6	0.0	4.9	21.3	41.0	3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3.5	17.5	52.6	26.3
	결혼(동거 포함)	3.2	0.0	3.2	27.4	33.9	32.3
	이혼	3.8	0.0	11.5	15.4	42.3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협조 필요 국가

문6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0.0%(0)	4.1%(6)	46.6%(68)	16.4%(24)	5.5%(8)	0.0%(0)	27.4%(40)
성별	남자	0.0	1.8	49.1	19.3	7.0	0.0	22.8
	여자	0.0	5.6	44.9	14.6	4.5	0.0	30.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2.3	45.5	13.6	4.5	0.0	34.1
	30대	0.0	4.4	46.7	20.0	6.7	0.0	22.2
	40대	0.0	5.4	45.9	18.9	0.0	0.0	29.7
	50대	0.0	6.3	56.3	6.3	6.3	0.0	25.0
	60대	0.0	0.0	33.3	0.0	66.7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48.3	24.1	6.9	0.0	20.7
	전문학교	0.0	4.2	37.5	20.8	12.5	0.0	25.0
	고등중학교	0.0	5.6	47.2	13.5	3.4	0.0	30.3
	인민학교	0.0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50.0	26.9	11.5	0.0	11.5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0.0
	비당원	0.0	4.2	46.6	14.4	3.4	0.0	31.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5	47.3	17.9	5.4	0.0	25.0
	없다	0.0	2.9	44.1	11.8	5.9	0.0	35.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50.0	21.4	3.6	0.0	21.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0	48.8	15.0	6.3	0.0	2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	37.8	16.2	5.4	0.0	3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7	44.7	15.3	4.7	0.0	30.6
	없다	0.0	3.3	49.2	18.0	6.6	0.0	2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8	45.6	19.3	3.5	0.0	29.8
	결혼(동거 포함)	0.0	6.5	43.5	9.7	9.7	0.0	30.6
	이혼	0.0	3.8	53.8	26.9	0.0	0.0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북 · 중협력

문62)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한 편이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잘 모르겠다
		0.7%(1)	0.0%(0)	26.0%(38)	26.7%(39)	22.6%(33)	11.6%(17)	12.3%(18)
성별	남자	1.8	0.0	28.1	22.8	19.3	17.5	10.5
	여자	0.0	0.0	24.7	29.2	24.7	7.9	1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0.0	27.3	29.5	27.3	6.8	9.1
	30대	2.2	0.0	20.0	26.7	17.8	17.8	15.6
	40대	0.0	0.0	35.1	24.3	13.5	8.1	18.9
	50대	0.0	0.0	18.8	18.8	43.8	18.8	0.0
	60대	0.0	0.0	0.0	66.7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24.1	20.7	24.1	27.6	3.4
	전문학교	0.0	0.0	20.8	29.2	25.0	12.5	12.5
	고등중학교	1.1	0.0	27.0	29.2	21.3	6.7	14.6
	인민학교	0.0	0.0	66.7	0.0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8.5	19.2	15.4	15.4	11.5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8	0.0	23.7	27.1	24.6	11.0	12.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9	0.0	25.0	24.1	23.2	12.5	14.3
	없다	0.0	0.0	29.4	35.3	20.6	8.8	5.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0.0	28.6	28.6	14.3	17.9	10.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0.0	26.3	25.0	23.8	8.8	1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1.6	29.7	27.0	13.5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0.0	27.1	27.1	21.2	10.6	14.1
	없다	1.6	0.0	24.6	26.2	24.6	13.1	9.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0.0	22.8	28.1	28.1	10.5	10.5
	결혼(동거 포함)	0.0	0.0	32.3	22.6	19.4	16.1	9.7
	이혼	3.8	0.0	19.2	34.6	19.2	3.8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남한주민 친근감

문63)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0)	39.0%(57)	52.7%(77)	7.5%(11)	0.7%(1)
성별	남자	0.0	33.3	50.9	14.0	1.8
	여자	0.0	42.7	53.9	3.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29.5	61.4	9.1	0.0
	30대	0.0	37.8	51.1	11.1	0.0
	40대	0.0	56.8	40.5	2.7	0.0
	50대	0.0	31.3	62.5	6.3	0.0
	60대	0.0	33.3	33.3	0.0	33.3
학력	대학교	0.0	34.5	58.6	6.9	0.0
	전문학교	0.0	33.3	54.2	12.5	0.0
	고등중학교	0.0	40.4	51.7	6.7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4.6	50.0	11.5	3.8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40.7	53.4	5.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1.1	52.7	6.3	0.0
	없다	0.0	32.4	52.9	11.8	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5.7	60.7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5.0	56.3	7.5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8.6	40.5	10.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1.2	49.4	8.2	1.2
	없다	0.0	36.1	57.4	6.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5.1	57.9	7.0	0.0
	결혼(동거 포함)	0.0	38.7	50.0	9.7	1.6
	이혼	0.0	50.0	46.2	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0%(0)	20.5%(30)	52.1%(76)	27.4%(40)	0.0%(0)
성별	남자	0.0	21.1	43.9	35.1	0.0
	여자	0.0	20.2	57.3	22.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11.4	56.8	31.8	0.0
	30대	0.0	24.4	48.9	26.7	0.0
	40대	0.0	24.3	59.5	16.2	0.0
	50대	0.0	12.5	43.8	43.8	0.0
	60대	0.0	66.7	0.0	33.3	0.0
학력	대학교	0.0	10.3	48.3	41.4	0.0
	전문학교	0.0	25.0	50.0	25.0	0.0
	고등중학교	0.0	21.3	53.9	24.7	0.0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10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3.1	46.2	30.8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20.3	53.4	26.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18.8	55.4	25.9	0.0
	없다	0.0	26.5	41.2	32.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5.0	53.6	21.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6.3	58.8	25.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7.0	35.1	37.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5.9	47.1	27.1	0.0
	없다	0.0	13.1	59.0	27.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7.5	52.6	29.8	0.0
	결혼(동거 포함)	0.0	22.6	46.8	30.6	0.0
	이혼	0.0	23.1	61.5	15.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국민의식

문65)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나는 남한 사람 이다	나는 북한 사람 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0.0%(0)	68.5%(100)	26.7%(39)	4.8%(7)
성별	남자	0.0	66.7	26.3	7.0
	여자	0.0	69.7	27.0	3.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20대	0.0	70.5	22.7	6.8
	30대	0.0	64.4	31.1	4.4
	40대	0.0	70.3	24.3	5.4
	50대	0.0	68.8	31.3	0.0
	60대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9.0	20.7	10.3
	전문학교	0.0	54.2	45.8	0.0
	고등중학교	0.0	73.0	23.6	3.4
	인민학교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5.4	26.9	7.7
	후보당원	0.0	100.0	0.0	0.0
	비당원	0.0	69.5	26.3	4.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8.8	27.7	3.6
	없다	0.0	67.6	23.5	8.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1.4	25.0	3.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7.5	27.5	5.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0.3	24.3	5.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72.9	23.5	3.5
	없다	0.0	62.3	31.1	6.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6.7	26.3	7.0
	결혼(동거 포함)	0.0	71.0	25.8	3.2
	이혼	0.0	69.2	26.9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남한생활 만족도

문66)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41.8%(61)	37.7%(55)	16.4%(24)	4.1%(6)	0.0%(0)
성별	남자	0.0	35.1	45.6	14.0	5.3	0.0
	여자	0.0	46.1	32.6	18.0	3.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43.2	43.2	11.4	2.3	0.0
	30대	0.0	33.3	35.6	24.4	6.7	0.0
	40대	0.0	45.9	43.2	8.1	2.7	0.0
	50대	0.0	50.0	18.8	25.0	6.3	0.0
	60대	0.0	66.7	0.0	33.3	0.0	0.0
학력	대학교	0.0	48.3	34.5	13.8	3.4	0.0
	전문학교	0.0	33.3	29.2	29.2	8.3	0.0
	고등중학교	0.0	41.6	41.6	13.5	3.4	0.0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34.6	11.5	3.8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40.7	38.1	17.8	3.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44.6	32.1	17.9	5.4	0.0
	없다	0.0	32.4	55.9	11.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2.9	32.1	17.9	7.1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6.3	42.5	17.5	3.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4.1	32.4	10.8	2.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44.7	36.5	16.5	2.4	0.0
	없다	0.0	37.7	39.3	16.4	6.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42.1	42.1	15.8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38.7	35.5	19.4	6.5	0.0
	이혼	0.0	46.2	34.6	11.5	7.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67)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0)	65.8%(96)	23.3%(34)	8.9%(13)	1.4%(2)	0.7%(1)
성별	남자	0.0	59.6	26.3	10.5	1.8	1.8
	여자	0.0	69.7	21.3	7.9	1.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75.0	20.5	4.5	0.0	0.0
	30대	0.0	57.8	20.0	17.8	2.2	2.2
	40대	0.0	67.6	24.3	5.4	2.7	0.0
	50대	0.0	62.5	31.3	6.3	0.0	0.0
	60대	0.0	33.3	66.7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1.7	27.6	20.7	0.0	0.0
	전문학교	0.0	62.5	16.7	16.7	4.2	0.0
	고등중학교	0.0	69.7	24.7	3.4	1.1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5.4	23.1	11.5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66.1	23.7	7.6	1.7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1.6	24.1	11.6	1.8	0.9
	없다	0.0	79.4	20.6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7.1	17.9	21.4	3.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0.0	30.0	7.5	1.3	1.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3.8	13.5	2.7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71.8	21.2	4.7	2.4	0.0
	없다	0.0	57.4	26.2	14.8	0.0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70.2	24.6	5.3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64.5	19.4	11.3	3.2	1.6
	이혼	0.0	57.7	30.8	11.5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취업형태

문68) 귀하의 현재 취업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0.0%(0)	3.4%(5)	2.7%(4)	6.8%(10)	0.7%(1)	1.4%(2)	15.1%(22)	69.9%(102)
성별	남자	0.0	5.3	1.8	7.0	0.0	3.5	24.6	57.9
	여자	0.0	2.2	3.4	6.7	1.1	0.0	9.0	77.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20대	0.0	0.0	6.8	2.3	2.3	0.0	6.8	81.8
	30대	0.0	6.7	0.0	15.6	0.0	2.2	24.4	51.1
	40대	0.0	2.7	2.7	2.7	0.0	0.0	13.5	78.4
	50대	0.0	6.3	0.0	6.3	0.0	6.3	12.5	68.8
	60대	0.0	0.0	0.0	0.0	0.0	0.0	33.3	66.7
학력	대학교	0.0	3.4	3.4	0.0	0.0	3.4	17.2	72.4
	전문학교	0.0	4.2	0.0	16.7	4.2	4.2	16.7	54.2
	고등중학교	0.0	3.4	3.4	6.7	0.0	0.0	13.5	73.0
	인민학교	0.0	0.0	0.0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7	3.8	11.5	0.0	3.8	34.6	38.5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2.5	2.5	5.9	0.8	0.8	11.0	76.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0.0	4.5	3.6	7.1	0.9	1.8	15.2	67.0
	없다	0.0	0.0	0.0	5.9	0.0	0.0	14.7	79.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6	3.6	7.1	0.0	3.6	14.3	67.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0	1.3	6.3	1.3	1.3	17.5	67.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5.4	8.1	0.0	0.0	8.1	78.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2.4	2.4	5.9	0.0	1.2	17.6	70.6
	없다	0.0	4.9	3.3	8.2	1.6	1.6	11.5	6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8	5.3	3.5	1.8	0.0	12.3	75.4
	결혼(동거 포함)	0.0	4.8	0.0	11.3	0.0	1.6	19.4	62.9
	이혼	0.0	3.8	3.8	3.8	0.0	3.8	11.5	7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100.0

2015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4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 남한사회, 북한사회, 주변국가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2014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중 만18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며, 약 1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 참여시 사례비로 3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은미 연구원 (02-880-4052)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 □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폐기 처리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명규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 안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통일 인식

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원한다. ② 약간 원한다.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같은 민족이니까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③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④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⑤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⑥ 기타(적을 것:)

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30년 이상 ⑥ 불가능하다.

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등 인도적 대북지원 14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금강산개성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②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③ 별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④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대남 인식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 4.19 혁명	1	2	3	4
㉯ 5.18 광주항쟁	1	2	3	4
㉰ 88서울올림픽	1	2	3	4
㉱ 2002 월드컵	1	2	3	4
㉲ 세월호 사건	1	2	3	4
㉳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자주 접해봤다.
② 한두 번 접해봤다.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3-1. (13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① 매우 친숙했다.
② 약간 친숙했다.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3-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까?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4.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생활수준	1	2	3	4
㉰ 역사인식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	1	2	3	4
㉳ 가치관	1	2	3	4
	1	2	3	4

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위협적이다.
② 다소 위협적이다.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1	2	3	4	5
㉰ 개성공업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20.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10% 미만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
⑦ 70% ⑧ 80%
⑨ 90% 이상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대체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20년
⑤ 20~30년 ⑥ 30년 이상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찬성했다. ② 다소 찬성했다.
③ 반반/그저 그랬다. ④ 다소 반대했다.
⑤ 매우 반대했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②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⑨ 기타 ( )

27. 귀하는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① 10% 미만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
⑦ 70% ⑧ 80%
⑨ 90% 이상

28.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30% 미만 ② 30~50%
③ 50~70% ④ 70~90%
⑤ 90% 이상

3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① 자주 가보았다.
② 가끔 가보았다.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③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④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① 조선신문 (로동신문)
② 조선방송
③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④ 강연, 학습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 · 통신, 삐라 등)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월생활비(월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북한돈_____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① 중국
② 미국
③ 러시아
④ 일본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9.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림직한 편이다.
③ 우려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우려스럽다.
⑤ 잘 모르겠다.

남한사회 적응실태

40.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포용적이다.
② 약간 포용적이다.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2.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3.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경우)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46.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47.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① 평양　② 남포
③ 개성　④ 평안남도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⑨ 양강도　⑩ 황해남도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사무원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⑤ 학생　⑥ 군인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_____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_____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혼 ② 결혼 (동거 포함) ③ 이혼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3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인 쇄 2016. 03. 31

발 행 2016. 03.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정은미 · 김병로 · 박명규 · 최규빈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5 / 저자: 정은미, 김병로, 박명규, 최규빈.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3)
권말부록: 집계표 2015 ; 설문지 2015
ISBN 979-11-955093-3-1 93340 : 비매품
북한 주민[北韓住民]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6008264